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제42차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주최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일시 2021년 1월 12일 (화) 13:00 ~ 18:00
방식 온라인 기반 실시간 화상회의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제42차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주최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일시 2021년 1월 12일 (화) 13:00 ~ 18:00
방식 온라인 기반 실시간 화상회의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는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와 함께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제주 지역의 고전문학 자료는 풍부한 구비문학 자료와 타자의 시선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기록문학 자료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비문학 자료는 주로 신화, 무속, 민요 등에 대해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었고, 기록문학의 경우 유배문학적인 시각과 타자의 시선을 통해 기록된 전통시대 풍습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시대 제주문인의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 및 번역되고 있으며, 제주 지역 고문서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연구의 기반이 서서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문학 분야의 연구가 타자의 시선과 제주적 실체의 차이와 충돌 등을 구분하고, 제주인의 주체적 자아와 문화적 특성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듯합니다. 특히 구비문학 자료의 체계적인 채록, 정리 및 주체적 연구와는 달리 기록문학 자료인 경우 잘 알려진 자료들 외에 다양한 자료의 발굴, 정리 및 DB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이러한 기초연구의 부족이 그동안 제주 고전문학 연구 및 전통 시대에 대한 이해를 타인의 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고전문학’과 ‘자료’를 핵심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제주의 신화와 민요를 비롯하여 전통시대 제주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고전산문 자료 관련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고, 문학의 장이 되었던 현장 답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제주 고전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자료의 발굴 및 정리가 제주학 분야의 연구 및 대중화의 기반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와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을 포함한 모든 주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소장 조 현 천

초청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문학연구소는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이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고전문학 자료는 그동안 무가와 민요, 그리고 유배 및 풍속 관계 한문학 자료 등이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각 분야별로 연구의 성과 또한 상당 부분 축적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제주문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주 관련 고전 문헌이 새로 발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제주 고전문학은 제주라는 지역을 이미지화하는 데 그 자체로 이채롭거니와, 한국 고전문학의 지평을 확장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지점은 제주인의 ‘자기형상’과 육지인의 ‘타자인식’이 뒤섞여 있어 고전문학 자료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분야 연구는 개별 장르에 국한되어 왔거나 제주를 타자적 공간으로 조명하는 데 소용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분야별 자료를 통섭하고 개별 작품에 투영된 두 개의 시선을 아울러 주시하며 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제주의 역사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 고전문학의 지평을 환기하는 데도 대단히 유용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한문산문, 제주의 신화와 민요, 풍속 및 표류 기록물 등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해당 자료들의 성격을 재고함으로써 새로운 접근의 시각을 모색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는 제주 고전문학에 관련한 연구와 학술연토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연구소의 핵심적 연구 주제인 한국문학지리학의 새로운 학적 지평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발표와 토론에도 직접 참여해 준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참여, 조언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학술대회 안내

2021년 1월 12일 (화)

13:00 ~ 13:10

개회사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장

13:10 ~ 14:10

1부 발표

사회 강문종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발표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

『남명소승』을 읽는다 : 백호 문학에 있어서 공간과 상상

발표 허남춘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제주 신화 「원천강본풀이」에 담긴 삶의 철학

토론 김일환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14:30 ~ 16:00

2부 발표

사회 양승목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발표 좌혜경 문화재청

제주 민요의 문화사적 가치

토론 조현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발표 정한국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18세기 제주문인 정채성의 일단 : 장한철 『표해록』의 경우

토론 강문종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발표 김새미오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제주지리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소고

: 『이원진_탐라지』 이후 제주지리지를 중심으로

토론 함영대 경상대 한문학과

16:20 ~ 17:50

종합토론

좌장 신익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17:50 ~ 18:00

폐회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장

온라인 참여 안내

- 본 학술행사는 정부당국의 방역정책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 학술대회를 위한 미팅룸은 당일 오후 12시 40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 아래의 접속 정보 및 안내를 참고하시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웹엑스 (Cisco Webex Meetings)
미팅룸 번호	170 638 6385
미팅룸 링크	https://dongguk.webex.com/join/nl190364

- * 웹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시는 경우,
프로그램 실행 후 위 미팅룸 번호를 입력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위 미팅룸 링크를 입력하시어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 발표자료집은 PDF파일로 제작하여 학술대회가 시작하기 전
한국문학연구소 홈페이지 (koli.dongguk.edu) 에 업로드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목 차

발 표 문

임형택	『남명소승』을 읽는다 : 백호 문학에 있어서 공간과 상상	3
허남춘	제주 신화 「원천강본풀이」에 담긴 삶의 철학	25
좌혜경	제주 민요의 문화사적 가치	51
정한국	18세기 제주문인 정체성의 일단 : 장한철 『표해록』의 경우	69
김새미오	제주지리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소고 : 『이원진_탐라지』 이후 제주지리지를 중심으로	99

토 론 문

김일환	「제주 신화 「원천강본풀이」에 담긴 삶의 철학」에 대한 토론문	135
조현설	「제주 민요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139
강문종	「18세기 제주문인 정체성의 일단」에 대한 토론문	141
함영대	「제주지리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소고」에 대한 토론문	145

발표문

『南溟小乘』을 읽는다

: 白湖文學에 있어서 공간과 상상

임 형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 『남명소승』의 이본 및 교감의 문제
2. 『남명소승』의 문학적 특성 : 사실과 상상의 交織
3. 백호문학에서 遊仙의 이미지와 유선시

시작하는 말

『남명소승』은 백호 임제(林悌, 1549~1587)가 1577년에서 1578년 사이에 제주도를 여행하고 남긴 기록이다. 최초의 본격적인 제주도 여행기이다. 한국문학사에서 유가, 혹은 기행문학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다.

이 『남명소승』이 학계나 독자 일반이 접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지난 1958년에 와서 비로소 간행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원본 자체가 훼손이 심해서 문맥이 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필자는 이 점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다가, 행운이라면 큰 행운인데, 그 이본 2종을 시차를 두고 구해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원형을 재현하게 된 것이다. 『백호전집』(1997)의 편역이 이루어졌고, 다시 『신편 백호전집』(2014)으로 진전을 시키게 되었다.

우리는 경험의 보고적 성격의 기록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방법론적인 과제이다. 둘러보면 여행의 기록류에 속하는 자료들이 산적해 있다. 국내의 산수유기는 물론, 해외여행의 연행록(燕行錄)·해사록(海槎錄) 등등 거의 무궁무진하다. 최근 들어 연행록과 해사록은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성과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소재적인 차원에 머물거나 시류를 타고 교류사로 편향한 사례가 많은 것 같다. 인식 주체의 시각과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가 방법론적인 모색

4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또한 뚜렷하지 못하다.

『남명소승』을 읽는다'고 표제한 본 소고는 먼저 수행한 작업의 후속인 셈이다. 나름으로 하나의 시론이다.

1. 『남명소승』의 이본 및 교감 문제

현재 파악이 된 『남명소승』의 이본은 다음 3종이 있다.

- A) 『林白湖文集』 1958년 石印本 제3책 부록에 실린 것. (이하 '문집부록본'으로 표현)
 - * “여러 종족들과 의논하여 『백호집』을 다시 인출하되 『남명소승』·『화사』 등 글을 따로 묶어 한 책을 만들기로 하였다.”(戊戌 1958년 초봄에 12대 손 鍾弼은 삼가 씀)
- B) 『白湖逸稿』 연대 미상의 필사본. (이하 '일고본'으로 표현)
 - * 「愁城誌」(殘)·『南溟小乘』·「柳與梅爭春」·「饑東君序」가 함께 실려 있다.
- C) 『謙齋遺藁』에 수록되어 있는 것. 필사본 1책. (이하 '유고본'으로 표현)
 - * 『겸재유고』는 백호의 30대로 들어서기 직전의 시작품과 『남명소승』이 실려 있는 책임. 錦里編次라는 기록이 이 책 중간에 보인다.

문집부록본은 간행 년대가 근래이긴 해도 『남명소승』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원본이 착간이 있는데다가 글자의 결손이 심해서 작품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정도이다.

일고본은 작품의 전모를 손상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선본이다. 다만 주(註)가 많이 탈락되었고 오자도 간혹 보인다.

유고본은 작자의 친필인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아주 조기에 필사된 것임이 분명하다.¹⁾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원본의 하단부가 온통 손상을 입

1) 『겸재유고』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의 우전문고(雨田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시고 2권에 『남명소승』이 부록되어 전체 1책이다. 시고에서 『남명소승』으로 넘어가는 장에 '錦里編次'라고 적힌 것이 보인다. '금리'는 백호의 고향 마을인 회진의 별칭이다. 고친 글씨나 편집상의 표시가 지면의 곳곳에 보인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이 책을 백호의 친필 초고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는 이현일의 「林悌의 『謙齋遺

은 상태여서 역시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남명소승』의 한 대목이 위 3종의 이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제시해서 각 이본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필까 한다.

11월 25일의 기록으로, 작자가 제주도를 일주하는 도중이다. 예시문은 서귀포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들린 산방산(山房山) 기슭에서 남쪽 바다를 향해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는 장면이다.

- A) 문집부록본: 落照漏雲, 倒影重溟, 一笛響亮, □□□□, □氣飛越,
神遊汗漫, 彼回仙七百之潮, 無異於□□□□塘之□耳.
- B) 일고본: 落照漏雲, 倒影重溟, 一笛響亮 吹徹遙空, 豪氣飛越,
神遊汗漫, 彼回仙七百□之湖, 無異於瀉一杯坳塘之上耳.
- C) 유고본: 落照漏雲, 倒影重溟, 一笛響亮, □□□□, 豪氣飛越,
神遊汗漫, 彼回仙七百里之湖, □□□□□塘之上耳.

위에서 확인되듯 부록본은 오서낙자에다 결락이 심해서 도무지 의미 불통이고 일고본은 낙자 하나만 빼면 오류가 없다. 유고본의 경우 오서낙자는 없으나 역시 결락이 많아 제대로 해독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는 지난 1997년에 『백호전집』을 우전(雨田) 신호열(辛鎬烈) 선생님과 공동번역으로 간행했고, 2014년에 『신편 백호전집』을 다시 편역·간행했다. 먼저 『백호전집』의 번역작업을 할 때는 일고본에 의거하면서 부록본을 참고했다. 다음 『신편 백호전집』에서는 『겸재유고』까지 확보하게 되어, 역시 일고본을 바탕으로 하되 다른 2종과 대조, 복원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 결과로 원문을 재차 정리하게 된 바 위 예시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번역문도 아울러 붙여 둔다.

藁』 연구」(『한국한문학연구』 46, 2010)가 있다.

6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落照漏雲，倒影重溟，一笛響亮 吹徹遙空，豪氣飛越，神遊汗漫，彼回仙七百里之湖，無異於瀉一杯坳塘之上耳。

낙조가 구름 사이에서 새어나와 아득한 바다 위로 거꾸러지는데, 한가락 젓대소리는 메아리 쳐서 먼 하늘을 뚫는다. 호탕한 기운은 날아오르고 신유(神遊)는 무한히 펼쳐지니, 저 회선(回仙)의 7백리 호수는 조그만 웅덩이 위로 쏟아부은 물과 다름이 없는 듯 생각되었다.²⁾

* 回仙: 신선으로 유명한 여동빈(呂洞賓)의 별칭. 여동빈이 동정호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朗吟飛過洞庭湖”)

위 대목은 깊이 음미해봄직한 내용이다. “회선의 7백리 호수” - 동정호는 예전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태산과 더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상상의 공간이었다. 큰 산이라면 태산, 큰 물이라면 동정호라고 이르지 않았던가. 그런 동정호가 지금 바라보는 대양에 비하면 “조그만 웅덩이 위로 쏟아부은 물” 정도라고 한다. 대양과 동정호의 크기를 대비해 보면 동정호는 웅덩이 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유는 조금도 과장이 아닐 터다. 동정호의 상대적 왜소성을 인식한 것은 바위처럼 굳어진 상념을 깨트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 중국 중심의 인식구도에서 탈피해 가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의미심장한 대목이 위에서 살펴본바 이본들의 교감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날 수 있었다.

백호는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등지고 남쪽 바다를 바라보며 느낀 감회를 “호탕한 기운은 날아오르고 신유(神遊)는 무한히 펼쳐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 중심의 인식구도에서 탈피, ‘상상의 공간’ 으로부터 ‘현실의 공간’ 을 각성한 것이다. 하여 현실의 바다를 발견하게 되지만, 제주도와 함께 바다를 백호는 다분히 ‘신유(仙遊)의 세계’ 처럼 의식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2) 『신편 백호전집』하 563면, 창비 2014. 이하 본고의 번역문은 이 책에서 인용하되 약간의 손질을 가하기도 했다.

2. 『남명소승』의 문학적 특성: 사실과 상상의 交織

『남명소승』은 여행기, 한문학의 용어로는 유기(遊記)라고 하는 것이다. 작자 자신 언제 어디를 다녀 온 도정에서 보고 들은 사실들을 기록한 글이다. 이 경우는 백호가 1577년 11월 초에 길을 떠나 이듬 해 3월 초 돌아온 때까지 제주도라는 특별한 공간을 여행한 보고이다. (년월일은 모두 음력, 이하 같음)

예전의 여행기가 대개 그렇듯 『남명소승』도 일기 형식을 쓰고 있다. 실학의 노작이자 위대한 문학 작품이기도 한 『열하일기』도 기실 여행기의 일종이다. 이 경우 일기체로 되었기에 서명부터 『열하일기』라고 했던 것이다. 여행기의 일기적 구조는 시간에 따라 공간인식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일기적 구조 자체가 경험한 사실에 입각해서 서술하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남명소승』을 펼쳐보면 산문을 기조로 하면서 시편이 대폭 들어와 있음을 일견에 알 수 있다. 시편이 많다는 점은 사실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서를 많이 개입시키는 태도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상상력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점은 『남명소승』 읽기에서 가장 주목처이다. 사실과 상상의 교직(交織)은 그 중요한 특성이다. 하지만 물리적 짜임이 아니며, 상상이라도 어디까지나 사실로부터 일어난 상상이다. 그렇긴 해도 ‘사실의 영역’과 ‘상상의 영역’을 일단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1) 『남명소승』에서 사실의 영역

제주도는 조선시대 문인들에 있어서는 글쓰기의 아주 좋은 소재로 생각되었다. 백호 역시 이색적인 체험을 하게 된 터이므로, 이 여행에 비상한 의미를 두어서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사실의 영역에 일차적 관심이 두어졌던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그리하여 『남명소승』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이 견문한 사실에 일단 기초하고 있었다.

『남명소승』은 요컨대 16세기 한 문학가에 의해 인식된 제주도이다. 고향 나주의 회진을 떠나 강진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 제주도를 유람하고 고향으로 회귀하기까지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여러 다양한 물사들을 민감하게 포착해서 경쾌한 필치로

8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그려냈다. 그런 가운데서 시선이 가는 몇 가지를 들어서 소개한다.

제주도의 전체 개관

제주도 땅에서 백호는 우선 바다를 따라 한 바퀴 돌며 유람을 한 다음, 제주도에 관한 인문지리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행정과 방어(防禦)의 체계며, 지형·물산·생활·풍속 및 언어·기후 등에까지 요령 있게 정리한 내용이다. 끝에 시 한 편을 붙인 것도 인상적이다. 여기서는 큰 눈으로 정리한 서두만 제시해서 16세기 당시의 제주도에 대한 전체적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정남방인데 한라산이 중앙에 우뚝 솟아 좌우로 날개를 펼쳐서 한일자가 옆으로 놓인 형국이다. 제주진은 북쪽에 위치해서 두무악(頭無岳, 한라산의 별칭)과 마주 대하고 있다. 정의현은 왼편 날개의 남쪽에 위치하고 대정현은 오른편 날개의 남쪽에 위치하니, 이 3개 진(鎭)이 세발술을 이룬 모양으로 북동서의 세 모서리를 각기 점거하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현실과 애환

제주도는 토질이 워낙 척박하여 먹고 살기 어려운 실상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로 건너가는 선상에서 한 사공을 만난다.

“그날 밤 덕돌이라는 사공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말하기를, 일찍이 왜구에게 사로잡혀 일본 땅으로 끌려가서 7년이나 머물러 있었다 한다. 거기서 먹고 살기는 부족한 줄 몰랐으나 고국 땅이 그리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에 몰래 작은 배를 얻어 타고 간신히 돌아왔다. 그럼에도 관가에서는 고달픈 역(役)을 조금도 감면해주지 않는다고 길게 탄식하였다. 또한 일본의 풍속에 대해서도 자못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16세기에 제주도는 왜구의 침략이 잦았다. 덕돌이는 왜구에게 붙잡혀가서 7년이나

있다가, 거기는 먹고 살기 괜찮았음에도 고국 땅이 그리워 몰래 탈출해 돌아온 사람이다. 그럼에도 관에서는 부역을 감면해 주지 않아 고역(苦役)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하는 그의 탄성이 참으로 안타깝게 들린다.

제주도 사람들은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되는데 풍랑으로 인해 익사자가 속출하였다. 그래서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잃어 짝이 없는 여자들이 많았다. 이에 육지에서 군인들이 수자리를 살려 들어오면 홀로 된 여자들이 남자를 맞으러 배가 닿는 포구로 나간다. 남자는 봄에 왔다가 가을이면 떠난다. 이런 풍속을 백호는 민요조의 「영랑곡(迎郎曲, 입을 맞이하는 노래)」과 「송랑곡(送郎曲, 입을 떠나보내는 노래)」으로 표현한다. “삼월이라 삼진날 복사꽃 활짝 피어 / 뚝단배들 두둥실 바다를 건너오면 / 곱게 단장하고 별도포에 노닐다가 / 해 지는 언덕 위로 팔짱 끼고 돌아온다네.”(「영랑곡」) 참으로 고난에 애환이 서린 사연임에도 더없이 흥겹다. 현실을 낭만적으로 호도한 것이라기보다 그럴밖에 없는 삶의 실상을 깊이 이해해서 서민적 정감의 낙관주의로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귤유보(橘柚譜)

제주도는 기후가 훨씬 온난해서 식물의 분포가 육지와는 사뭇 다르다. 지금도 사람들이 남국적인 정취를 느끼는데 백호 당시에는 더더욱 정취가 달라 보였을 것이다. 『남명소승』은 이런 데도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던바 귤유보를 작성해 남기기도 했다. 이는 특히 문헌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는 문헌이다. 귤유보에는 지초(芝草, 영지의 일종)라는 신비로운 식물이 부록으로 들어있다. 지초에는 모형도가 그려져 있다고 적혀 있으나 지금 전하는 데 그림은 보이지 않아 유감이다.

제주도의 언어

이곳의 언어는 왕왕 한자를 섞어 쓰는데, 이를테면 남자의 존칭은 ‘관관官官’이라 하며, 흙토土 자나 마늘산蒜 자는 모두 방언을 쓰지 아니하고, ‘不好’와 같은 글자는 한자음으로 말한다. 이런 따위가 아주 많다. 귀양 와 있는 신장령(申長齡)이라

10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는 사람은 원래 역관이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이곳의 말소리는 중국과 흡사하다. 소나 말을 모는 소리는 더욱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이다”라고 한다. 아마 풍토가 중국과 동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일찍이 원나라가 차지하여 이곳에다 관리를 두었던 까닭으로 중국말과 섞여서 그런 것인가?

위에 거론된 언어적 현상은 제주도어 연구에 귀중한 정보가 아닌가 한다. 이 밖에 대화나 서술 가운데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드러내 놓기도 하여 흥미롭다. 또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지 싶어 옮겨 둔다.

- 육지(陸地): “제주 사람들은 본국을 육지라고 이른다.” - 원주
- 목관(牧官): “제주 사람들은 통판(通判)을 목관이라 부르며, 목사를 절도사라 부른다.” - 원주
- 산척(山尺): 사냥꾼
- 적목(赤木): 향나무의 일종

2) 상상 영역으로서의 선계(仙界)

백호에 있어서 제주도는 현실적 공간임이 물론이다. 과거 급제의 영예를 안고 제주 목사로 계시는 부친을 뵙기 위해 어렵게 바다를 건너 왔으므로 한동안 머물면서 두루 유람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남명소승』은 방금 살펴보았듯 여러모로 현실적 의미를 풍부하게 내포한 기록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는 그의 뇌리에 상상적 공간으로서 입력되어 있었다.

꿈속에 황학(黃鶴)을 타고 영주(瀛洲)로 찾아를 가니
그곳의 신선님께 나를 보고 맞이한다.

(「思仙謠」의 1~2구)

‘영주’란 상상적 공간으로서 신선세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제주도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했다. 신선은 속세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을 터이므로 선계(仙界)라면 곧

한라산이다. 백호에게 선계로 각인된 것은 한라산이다. 그런데 난관이 있었다. 이 한라산의 정상은 겨울로 접어들면서 백설이 천 길이나 쌓여 올라가는 일이 불가능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꿈속에 신선을 만나는 꿈을 자주 꾸게 되었던 것이다. 그 꿈은 기어코 꼭 이뤄야할 소원이었다.

내면의 서사적 구성

『남명소승』은 일관되게 일기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이면서 단선적 기록이 되기 쉽다. 하지만 찬찬히 읽어나가면 서사적 구성이 내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소설 작법의 복선에 해당하는 것을 들어 본다.

길에서 한 스님을 만났다. 그 스님은 눈썹 사이에 운하(雲霞)의 기운이 감돌아, 자못 신이한 느낌이 들기에 말을 붙였다.

“대사는 어디 계시오?”

“존자암(尊者菴)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를 건너온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는데 선산(仙山)에 꼭 가고 싶으나 얼음이 얼어붙고 눈이 쌓여서 이제껏 올라가질 못했다오. 속절없이 눈앞이 갑갑하고 꿈도 고달플 뿐이러오.”

(11월 25일의 기록)

이 대목은 제주도를 평지로 돌 때 서귀포에서 대정읍에 이르는 도중이다. 첫 장의 산방산 기슭에서 대양을 바라보는 대목 또한 이날의 일이었다. 위 길에서 만난 스님의 첫 인상을 “**눈썹 사이에 운하의 기운이 감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속세를 벗어난 느낌을 받은 때문이다. 우연히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지만 마치 인연이 있었던 듯 전개되고 있다. 그는 청순(淸淳)이란 승려다. 백호는 해를 넘겨서 2월 10일에야 한라산 등반을 시작한다. 중간 기착지로 존자암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 스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의도된 허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선연(仙緣)이 있었던 셈이다.

12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남명소승』은 선경에 오르지 못하는 주인공의 안타까운 심경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다시 한 장면을 들어보자.

한라산에 눈이 가득 쌓여 올라가고 싶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월 초닷새 밤 꿈에, 고원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니 봉우리들이 의구하고 푸른 수목이 겹겹이 둘러는데 무언가 학처럼 희고 깨끗해 보이는 것이 있었다. 나는 처음에 학으로 여겼는데 곁에 어떤 사람이,

“학이 아니라 잔설(殘雪)이오.”

라고 말하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눈이었다. 그래서 나는 농담으로,

“흰 눈의 흰 것이 흰 학의 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말했다.

이 꿈을 끈 다음, 며칠 지나서 정상 등반에 나섰는데 연일 비가 내려 며칠 머물어야 했다. 여러 날 비가 내린 뒤의 경관을 두러보며, “**지난 닷새날 밤에 꾸었던 꿈이 이제 와서 비로소 맞는 듯싶었다**”는 혼자 말을 한다. 비가 발걸음을 붙잡았지만 얼음과 눈이 대부분 녹아 시야에 잔설만 보였던 것이다.

한라산은 작가의 뇌리에 입력된 동경의 세계이면서도 범접하기 결코 용이하지 않았다. 이 고난의 발걸음은 선경을 찾는, 선유(仙遊) 그것이었다.

백호에 있어 상상의 공간으로서의 제주도는 중심부가 한라산에 있었다. 이 중심부로 진입하는 데는 지루한 기다림에다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신비의 선경은 사람들의 진입을 결코 쉽게 허용하지 않았던 셈이다. 그런 난관들을 통과해서 드디어 선경에 진입하는 전후의 기록은 그대로 이야기처럼 엮어질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복선이 생기게도 되었다. 『남명소승』은 전체적으로 현실영역과 상상영역이 교직된 모양이지만, 상상영역이 내면적으로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전체로서 서사적 구성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한라산가」

오랜 기다림 끝에 2월 10일, 눈이 거의 다 녹아 인마(人馬)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산척(山尺)의 보고를 받고 드디어 한라산을 향해 출발을 한다. 하지만 산행은 만만치 않았다. “산자락 위로 올라가니 아직 얼음과 눈이 녹지 않아서 곳곳에 한길 깊이나 쌓여 있다. 사람과 말이 눈 속으로 빠져들어 부득이 말을 버리고 도보로 걸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겨우 존자암(尊者菴)에 당도하니 해는 석양 무렵이었다.” 존자암의 승려 청순의 영접을 받아, 밤에 등불을 달고 앉아 맑은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한라산가」를 장률(長律) 형식으로 짓는다.

장백산 남녘이요 약목(若木)의 동쪽
푸른 연꽃이 파도 위에 높이 꽃힌 듯.

선학(仙鶴)은 하늘에서 훨훨 내려오고
신오(神鰲)는 태곳적부터 기세도 웅장해라.

정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검은 구름 감돌고
하늘이 어둑할 때부터 해바퀴 붉게 솟네.

(…6구 생략…)

들판에 수많은 좋은 말들 나라에서 기르는 말
마을마다 꿀과 유자, 가을의 풍광일세.

멀리서 온 나그네의 구경거리 풍족한데
눈 사치 끝없는 욕망 괴이하다 하지 마오.

선계를 그려 꿈꾸기 몇 번이던가?
한해 수자리 사는 땅에 방황하노라.³⁾

3) 원문은 “一年海成爲孤蓬”이다. ‘孤蓬’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처음에는 쪽배로 보았다가 심리적으로 외롭게 방황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번역한 것이다. ‘一年

14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지금 나 여기 청명절에 오르니
산비는 부슬부슬 월계수를 적시네.

「한라산가」를 무심코 지었다고 했으나, 의미가 대단히 있었던 것 같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선산에 올라와 지금 중간 기착지에서 밤을 보내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한라산 주제의 시상이 떠올랐을 것이다.

서두의 4구는 제주도라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표출한 내용이다. 앞서 인용해 읽었던 ‘제주도의 전체 개관’과는 사뭇 다른 상(像)이다. 제주도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장백산’과 ‘약목’을 끌어온 점이 흥미롭다. ‘약목’은 곤륜산(崑崙山) 서쪽에 있다는 붉은 나무로 신화적인 어휘이다. 실재와 가상이 어울려 있다. ‘신오’는 큰 자라로 등에 선 산을 지고 바다에 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인간의 신화적인 상상의 산물이다. 상상의 공간으로 인식된 신화적인 제주도이다. 그런 한편에 현실 공간으로서도 인식되고 있다. 별관에 수많은 말이 뛰놀고 마을마다 굴과 유자가 익어가는 눈앞의 현실적 풍경은 상상하기 그지없다. 한 편 내에서도 상상적 인식과 현실적 인식이 교합되어 있다. 그런 중에 상상의 신화적 이미지가 전편을 압도한다.

위 시편을 끝맺는 대목에서 청명절에 이르러서야 선계에 들어섰는데 비가 부슬부슬 계수나무를 적신다고 한다. 시적 분위기를 십분 느끼게 하면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도 있다.

「발운가(撥雲歌)」

「한라산가」를 지은 이튿날에는 존자암에 머물면서 영곡(靈谷, 영실)을 다녀온다. 작중에서 오백장군동으로 일컫고 이 제목의 시를 짓는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선흥(仙興)을 이기지 못해 또 「보허사(步虛詞)」란 제목으로 한편의 시를 짓는다.

옥동진인(玉洞真人) 뵈고 나서 학을 타고 돌아오니,

海戍' 바닷가에 한해 수자리를 산다는 뜻으로 제주도를 가리킴.

맑은 구름 나직하여 자연의(紫烟衣)를 적시누나.

「보허사」라는 시제부터 신선들의 표묘(縹渺)한 자태를 표현한 노래임을 알게 한다. 선경에서 노닐며 선흥에 몰입한 모습이다. 하지만 선경에 입문한 것이었고 또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했다. 다음 날인 12일부터 14일까지 3박 3일을 안개와 비로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이다. 12일에는 그래도 여흥이 있어서 유선의 정서를 담은 시를 짓는다. 다음 날은 진종일 껌작 못하고 있던 끝에 등불을 돋우고 오롯이 앉아 「발운가」라는 일편의 장시를 지어 읊는다. 천지신명께 구름이 흩어져서 밝은 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원이었다. 『남명소승』에 실린 많은 시편들에서 가장 장시이고 혼신의 정성이 담긴 작품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만력 육년 봄 이월에
하계의 어리석은 자가 소원이 있삽기로
바다 가운데 산 위에서 사흘을 재숙(齋宿)한 다음
심향(心香) 한 가지 꽃아놓고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위로 더없이 높으신
옥황상제께 감히 비옵나니
아래로 운사(雲師) 풍백(風伯) 산신령님들까지
다들 굽어 살펴주옵소서.

(...중간 23구 생략...)

저는 바라옵나니
바람 맑고 구름 걷히고
바다 푸르고 하늘 열려
망망한 대천세계를
저로 하여금 상상두에 올라 마음껏 둘러보고
가슴속에 막힌 찌꺼기
한꺼번에 씻어내게 해주옵소서.

16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중간 2구 생략...)

내일 아침이면 보겠지요.
밝은 해 솟아오르는 것을,

『남명소승』 전체의 클라이맥스다. 작품은 선계의 중심, 즉 한라산의 정상을 밟기 직전의 단계에다가 구성상의 위기를 설정한 것이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발운가」가 지어졌다. 다음 14일에도 비는 주룩주룩 내렸다. 오후에 빗줄기가 그치고 안개가 그친다. 이에 간밤에 지은 「발운가」를 읊어보니 호방한 흥취가 절로 솟구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러자 어디서 구름이 몰려들어 비가 내리는 것이었다. “사나이로 태어나 초목과 다름없단 말인가? 신명을 감동시키지 못하다니. 내일도 역시 쾌청하지 않는다면 채찍을 휘둘러 제주성으로 돌아가리라.” 이렇듯 절망의 극한에 도달하고 있다.

존자암에서 한라산 정상까지가 작품구성상에서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정상에 이르기 직전의 단계에 작품 구성상의 위기를 설정한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남명소승』 전체에서 장편 걸작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라산가」와 「발운가」가 지어지기도 했다.

한라산의 최정상

2월 15일 아침, 이제 포기하고 하산하느냐, 정상을 오르느냐는 갈림길이었다. “아침 해가 창문을 환히 비추고 바람이 산들산들 새가 지저귀었다.” 드디어 정상으로 향한 발걸음이 가볍게 옮겨질 수 있었다.

이 대목에서 청순의 존재에 대해 짚어 보자. 전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청순을 존자암에서 재회하여 선산의 제일 안내자가 되었다. 정상에 오르는 도중에서도 영지(靈芝) 몇 뿌리를 캐서 건네며 “어젯밤 꿈에 어떤 사람이 영지를 족하에게 줍디다. 깨고 나서 마음에 몹시 이상히 여겼는데 지금 이걸 은근히 드리게 되니 꿈과 부합합니다.”고 말한다. 영지는 복용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신비로운 약재이다. 청순은 작중에

서 백호와 선연을 가진 인물로서 존재감이 뚜렷하다.

『남명소승』에는 기록자를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밖에 많은 조역들이 등장하는 셈이다. 그런 중에 비중이 있는 인물로는 금반(琴伴)으로 일컬어진 유정걸(柳廷傑)이 있다. 그리고 역관으로 귀양 와 있는 신장령이 한라산행에 합류해서, 유정걸과 신장령이 바둑판을 가끔 벌이고 앉아 주인공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역을 담당하곤 한다. 그리고 산척이 정상 등반길에 잠깐 출연하지만 계수나무 찍는 장면을 보여서 주인공이 “너 역시 계수나무를 찍는 사람이냐?”는 인상적인 발언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여러 보조역들 가운데서 청순이 제일 돋보이는 존재이다.

존자암에서 정상에 오르는 도정은 그야말로 선유처럼 그려지고 있다. 방금 지적했던 ‘계수나무 찍기’나 ‘영지 채취’도 그때 일어난 일이었다. 한라산을 선계로 미화했던 만큼 마지막 경관을 절묘하게 그려서 선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이 물론이다. 중간도정의 묘사 부분은 생략하는 대신, 최정상에 도착해서 경관과 심회를 표현한 장면을 소개한다. 이에 대한 논평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둔다. (백록담이란 지칭은 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이 명사가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⁴⁾)

최정상에 당도하자 그곳은 움푹 파여 못을 이루고 있다. 석봉(石峰)이 둘러싸서 주위가 7, 8리나 되어 보였다. 바위에 기대어 굽어보니 물은 유리알같이 맑아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못 주위로 흰 모래가 깔리고 향기로운 덩굴이 뻗어 구질구질한 것이라고는 한 점도 눈에 띄이지 않았다. 인간세계의 바람과 3천리나 떨어져 있으니 난소(鸞簫)가 들리는 성싶고 황홀히 지거(芝車)가 보이는 듯하다. (...중략...) 산 위의 돌은 다 적흑색으로 물에 들어가면 뚱뚱 뜨니 또한 진기한 일이다. 눈앞에 펼쳐진 것으로 말한다면 해와 달이 비치는 데 따라 배와 수레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두루 미칠 수 있겠으나 나의 시력의 한계로 단지 하늘과 물 사이에 그칠 따름이다. 역시 한스러운 노릇이다.

4) 白鹿潭의 지명전설로, 金斗奉이 지은 『耽羅誌』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諺傳, 群仙飲白鹿於此, 故名.” (『耽羅誌 · 形勝條 · 白鹿潭』 1933년 유인본)

3. 백호문학에서 유선적 이미지와 유선시

이상에서 백호의 제주도 유기 - 『남명소승』이 현실과 상상의 교직으로 어울린 글임에 주목을 해서 읽었다. 양자를 구분지어 보긴 했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혼연일체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상상의 영역’이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한 형국이였다. 낭만적 경향성을 띤 작품이라고 규정지어도 무방할 것이다.

『남명소승』은 유선적 이미지가 핵심이다. 해서 유선시의 범주에 속하는 시편들이 적지 않게 들어 있게 되었다. 유선적 이미지와 함께 유선시는 백호문학의 세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서 한문학을 비롯해 우리문학 전반에 걸쳐 한번쯤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도 싶다.

이 두 사안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낯선 주제이다. 지금은 본격적인 논의를 펼 자리가 아니지만, 『남명소승』 읽기의 연장으로서 간략히 언급해 보려고 한다.

『남명소승』에서 유선시, 선계로 기운 심리적 동기

『남명소승』에서 유선시의 전형으로 생각되는 작품 한편을 예시한다. 시제가 「고풍(古風)」인데 적선체(謫仙體)를 본떠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적선체’란 이백(李白)의 독특한 시형식을 가리킨다. 이백은 시선(詩仙)으로 일컬음을 받듯, 유선시로서 걸출한 시인이기도 하다. 백호가 이 「고풍」을 지은 뜻은 이백의 시정신과 소통하는데 있었다.

선랑(仙郎)이 흰사슴 타고
높은 대(臺)에 올라서 휘파람 분다.

머리 돌려 우주를 둘러보니
영웅은 과연 어디 있느냐?

자부(紫府)에 앉아 계시는 진관(眞官)님들

나더러 재주 많다 어여삐 여겨

여러 옥녀(玉女)를 아래로 내려보내
유하주(流霞酒) 잔에 따라 권하는구나.
유하주 마시자 골격이 바뀌는지
문득 봉래산을 향해 날아가고 싶어라.

학 타고 가면 멀지 않으리니
운거(雲車)는 어느 날 돌아오려나.

동방의 땅덩이를 내려다보니
아득히 먼지만 자욱하여라.

* 자부(紫府)는 옥황상제가 있는 선계. 진관(眞官)은 선계의 관인, 즉 신선.
** 옥녀(玉女)는 선녀. 유하주(流霞酒)는 선계의 술.

위 시는 선어(仙語)로 점철되어 있어서 의미맥락이 쉽게 잡히지를 않는다. 우선 시를 읊는 현장을 복원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11월 20일인데 제주도 일주 유람을 떠나기 이틀 전이다. 그날 바다와 하늘이 유난히 파래서 혼자 말을 타고 동망봉에 올라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때 마침 목관(牧官, 판관)이 술과 기생을 보내준다. 이 정경이 서장의 “선랑이 흰사슴 타고 높은 대에 올라서 휘파람 분다”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기생이 따르는 술은 옥녀의 유하주로 바뀌었다. 이처럼 시적 미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다른 어디가 아니고 유선의 이미지가 시인의 뇌리에 입력된데 있다. 그리하여 ‘유하주’를 마심에, “문득 봉래산을 향해 날아가고 싶어라”고 시적 상상력이 비상하게 된 것이다. 서장의 흰사슴은 곧 백록이다. 백록을 지금은 실체를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는 상상의 동물이었다. 신선의 수레인 자하거(紫霞車)를 끈다고 생각하였다.

존자암에서 비에 갇혀 있을 적에도 청순 스님에게 백록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산속 백발의 늙은이 백록을 타고 노을을 마신다네.”(「驥白鹿仙翁」)라고 신선의 백록

을 노래했다. 하산한 다음 날에는 다시 백록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아쉬움을 시를 지어 표현하고 있다. “한라산은 선계인지라 선록(仙鹿)이 무리지어 논다네.” 이처럼 무리지어 노는 백록을 전혀 볼 수 없었던 데는 까닭이 있었다. 전에 지방 장관이 한 마리를 사냥하게 해서 죽인 때문이었다고 한다.

너 어찌 자신을 돌보질 았다가
 사냥꾼의 손에 잡혔단 말가.
 해월(海月)은 찬 산에 떠서 시름겨운데
 숲속의 동무들 슬피 부르누나.

숲속에 몸을 숨긴 백록들이 죽은 친구를 생각해서 애달프게 부르고 있다는 의미다. 백록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 속에는 세속 권력의 폭력적 작동에 의해 선경이 망가지는 사태가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지나쳐 온 의문점이 있다. 『남명소승』의 기록주체가 선계를 동경해 하지 않았던 심리적 동기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동방의 땅덩이를 내려다보니 아득히 먼지만 자욱하여라.” 위에서 유선시의 전형으로 예시한 시편의 종장이다. ‘동방의 땅덩이’는 물론 한반도를 가리킨다. 이 현실공간이 세속의 진애로 휩싸인 상태로 치부하고 있다. 자신이 밭을 딛고 있는 세상을 회의적으로 인식한 때문이리라. 자기 시대와 타협하지 못한, 방달불기(放達不羈)의 자유인이라는 것이 백호에 대한 인물평이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6세기 후반의 조선조는 고질적인 당쟁이 발발한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날로 오탁(汚濁)해 지는데 따라 비분과 환멸의 감정이 증대되었다. 예전 문인들은 세상을 진애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투적이었지만 백호의 경우 실로 심각한 비판정신에서 표면화된 것이었다.

백호시에서 유선적 이미지

『남명소승』 뿐 아니라 백호시 전반에서 유선시 내지 유선적 이미지를 만날 수 있

다. 백호문학의 세계에 있어서 개성적 일면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후인의 과제로 미뤄두고 여기서는 한두 편 언급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무제(無題)」라고 되어 있는 시 한편을 들어보자.

미운 님 그리는 마음이사 다만지 칼의 눈동자
요지(瑤池)에서 돌아오던 처음 일이 유유합니다.

월궁(月宮)의 독수공방 살아도 낙이 없고
거울 앞의 외로운 울음, 춤이 곧 시름이라.

몇 밤이나 신녀(神女)의 비, 밤 꿈만 차옴고,
5년을 물가의 아가씨 이 봄도 늦어 가는데.

하늘 길 머나멀어 파랑새 보이질 않는구나.
끊어진 애간장 다시 이을 수 있으려나.⁵⁾

* ‘거울 앞의 외로운 울음’은 원문이 菱鏡孤鳴이다. 난(鸞)이란 새가 외로워 보여 거울을 비춰주자 제 짝인 줄 알고 울다가 죽었다 한다. ‘춤이 곧 시름’이란 반가워 춘 춤이 슬픔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 ‘파랑새’는 그리운 님에게 소식을 전해 준다는 새. 원문은 三靑鳥인데李白의 시에 “願因三靑鳥, 更報長相思.”(「相逢行」)의 구가 있다.

위 시는 제목마저 「무제」여서 의미파악이 쉽지 않다. 대단히 특이한 느낌을 주면서 난해하다. 역시 시적 상황을 유추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작중의 서정자아는 고독녀다. 님과 이별하고 그리움이 쌓여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어 첫 구절에서 ‘칼의 눈동자’ [劍眸]라고 오싹한 감을 일으키게 만든다. 님과 함께 있었던 곳은 요지였고, 지금 여자 홀로 외롭게 있는 곳도 ‘월궁’ [桂宮]으로 되어 있다. 모두 선계이다. 서정자아는 곧 여선(女仙)이다. 앞서 인용했던 유선시에서도 여선을 보았다. 백호시에 여선이 종

5) “商略冤家祇劍眸, 瑤池初返事悠悠. 桂宮孀宿生非樂, 菱鏡孤鳴舞是愁. 幾夜夢寒神女雨, 五年春晚小姑洲. 天長不見三靑鳥, 才斷心腸續得不.”(『신편 백호전집』상 585면)

22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종 어린거린다. 한국 한시사에서는 특이하고 신비감을 주는 이미지다.

이어서 「금선요(金仙謠)」 한 편을 더 들어보자.⁶⁾ 장편의 노래 형식이다. ‘금선’은 석가여래를 지칭한다지만 어감부터 신선이 떠오른다. 시는 “**태백산 우뚝 솟아 아스라이, 아득히 옛 신선 살던 곳, 그윽한 연무(煙霧)의 굴**”로 시작이 된다. 여기서 태백산은 지금의 태백산이 아니고 금강산으로 여겨진다.⁷⁾ 그곳을 선계로 상정하여 유선굴(遊仙窟)의 의미를 띠게 하였다. 따라서 「금선요」는 유선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되었다. 마지막에 서정 주체가 속세로 나오는 경계에 서서 선경의 소식을 전한다는 구절로 전편을 끝맺는다. 중간의 4구를 절취해서 제시해 본다.

자양진인(紫陽真人) 학을 타고 이 사이에서 노니시니
속객의 발길 닿질 않아 풍진(風塵)이 끊겼어라.
이 가운데 금선 법왕(法王)의 별세계
푸른 절벽에 매달린 다래넝쿨 몇 천 척일런고?

위의 시적 경지는 아주 세상과 단절된 별천지로 그려져 있다. 『남명소승』에서 읽었던 선계보다 훨씬 더 비경이다. ‘금선 법왕’은 석가모니에 대한 지고의 존칭이지만 선계의 존재로서 변상(變相)을 시켜놓은 모습이다.

유선적 이미지의 맥락

유선시나 유선적 이미지는 한자권에서 일종의 문화현상이었다. 한자권에서도 중국과 한국에만 존속했던바 존재 양상은 서로 많이 달랐던 것 같다. 그렇게 될 밖에 없었던 것은 그 문화현상의 현실기반이 같지 않은 데 요인이 있었다. 이쪽에는 저쪽과 달리 도교가 종교로서 수용되지 못하고 오직 사상으로서 도입되었다. 유선은 다분히 지식인들의 정신적 취향이었다. 한국 선도(仙道)의 계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

6) 『신편 백호전집』하 239~244면.

7) 배경으로 잡은 공간을 묘사하는데 8만 봉이 빼어나고 3백 사찰이 아름다우며, 인호대(引虎臺) 비로봉 같은 지명이 나온다. 처음부터 가상의 공간이라면 말할 것 없지만 어디를 상징한 것이라면 금강산으로 간주해야 할 듯하다.

는 김시습의 경우도 그가 현실권을 이탈할 때 선도로 가고 싶었으나 그 길은 현실적 방도가 부재했기 때문에 부득이 중의 복색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 자신이 고백했던 바다.⁸⁾

임백호는 현실권을 등지고 나가지 않았다. 다만 정신 자세로서 유선적 취향으로 경도해 있었다. 하여 그가 성취한 문학이 방외인문학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금선요」에서 부처님이 선계의 존재로 변상이 된 것 또한 조선적 문맥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이 된다. 임백호와 동시대에 취향이 통했던 시인으로 정지승(鄭之升, 1550~1589, 호 天游自)이 있었다.

한편으로 유선적 이미지는 확산이 되면서 유흥으로 흐르기도 하고 부귀한 자들의 꿈으로 바뀌기도 했다. 앞의 사례로는 「관동별곡」, 뒤의 사례로는 『구운몽』을 손꼽을 수 있다.

맺는 말

『남명소승』의 평가문제에 관해서 필자의 소견을 간단히 밝히는 것으로 본고의 맺음 말을 삼아 둔다. 제주도의 여행기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행기 일반의 차원에서 논지를 잡아 본다.

제주도의 여행기는 『남명소승』 다음으로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0)의 『남사록(南槎錄)』이 있다. 『남사록』은 『남명소승』의 24년 후에 나온 것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직후의 뒤숭숭한 지점에서 길운절(吉雲節)이란 자가 제주로 잡입, 선동을 하였다. 반란은 곧 수습되었으나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서 김상헌이 국왕의 특명으로 제주도에 내려갔다. 어사로서 공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자유로웠던 임백호와와는 입장이 달랐다.

『남명소승』과 『남사록』은 기록주체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남명소승』에서 중요한 ‘상상의 영역’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송시열(宋時烈)은 책 서문에서 “기록이 상제

8) 「宕遊關西錄後志」, 『金時習全集, 詩四遊錄』

24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한 바가 본도의 풍토 물산에 있었고 공물(貢物)에 더욱 자세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기록 내용이 대단히 풍부하게 되어, 이 측면이 『남사록』이 구비한 장점이다. 제주도 관련 기록 자료들을 두루 수집, 서술과정에 적절히 배치해 놓은 것이다. 『남명소승』 소재의 글들도 거기에 대폭으로 수용되었다. 김상헌이 제주도로 떠날 임시에 『남명소승』을 구해 휴대했다는 말이 전하고 있다. 『남명소승』과 『남사록』은 제주도 여행기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수 있다.

『열하일기』는 전체로서 위대한 문학작품이라고 나는 주장해 왔다. 여기서는 『남명소승』과 대비해서 몇 마디 붙여두기로 한다. 양자는 일기체로 쓴 기행문학이라는 공통점을 빼고 보면 다른 것이다. 『남명소승』은 족적이 국내에 한정된 데 비해 『열하일기』는 당시 세계의 중심부인 중국을 견문하고 분석한 보고서다. 작중에서 『남명소승』은 시의 비중이 압도적임에 대해 『열하일기』는 시가 드물고 전편에 걸쳐서 의론성이 주도하고 있다. 양자는 2백년의 시차가 있는데 문학적인 주의(主義) 또한 같지 않다. 서로 다르다는 전제하에, 우리 문학사에서 기행문학의 대표작으로 『남명소승』과 『열하일기』를 평가할 수 있다. 『남명소승』이 낭만주의적인 것이라면 『열하일기』는 현실주의적인 것이다.

제주 신화 「원천강본풀이」에 담긴 삶의 철학

허 남 춘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서
2. 원천강
 - 1) 원천강으로 가는 길
 - 2) 걱정과 성취
 - 3) 원천에서 돌아오는 길
3. 사계절
 - 1) 시간관
 - 2) 대등한 관계
4. 결

1. 서

오늘이 이야기는 특별하다. 인간과 동식물과 선녀를 만나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거기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모든 존재의 운명을 바꾸어 준다. 오늘이의 부모가 있는 원천강은 사계절이 함께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었다. 시간이 멈춘 곳이던가. 이런 특이한 이야기는 1930년대 일본인에 의해 제주도에서 채록되었다. 무속의 신화인데 무당이 부른 노래여서 서사무가라 한다. 그런데 이 <원천강본풀이>가 지금은 제주도 어디에서도 불리지 않는다. 미미하게 전승되다가 사라진 것이다. 일반신 열두 본풀이에서 탈락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타진해 본다.

진성기 선생은 이 <원천강본풀이>를 특수본풀이라 분류한 바 있다. 특수본풀이 속에 12편을 수록해 놓았지만 같은 속성의 본풀이는 <원천강본풀이>를 비롯하여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 <삼두구미본풀이> 4편이 있는데, 죽음의 세계 혹은 이계 여행과 연관된 것들이다. 이 본풀이들은 민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천강본풀이>도 제주에만 남은 독특한 신화이지만 우리나라 전역의 민담, 특히 <구복여행> 민

26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담과 유사성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오늘이의 이야기는 <구복여행>의 석승이야기와 유사하되, 제주 무속적 요소를 지닌다고 해석하였다. <원천강본풀이>가 민담을 수용하였을 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층위의 존재가 지닌 상징성이라 하겠다.¹⁾ 최근에 나온 박사학위논문은 <구복여행> 민담과 비교를 세심하게 하면서도, 특수본풀이의 용어를 바로잡아 ‘특수신본풀이’라 명명하면서 <원천강본풀이>가 지닌 독자적 영역의 특성을 ‘이곳과 저곳의 경계 넘어서기’로 구체화한 바 있다.²⁾

<원천강본풀이>에서 주인공 오늘이가 들판에서 솟아났는데 부모가 있다는 것은 2중 출생담이라 하면서, 본디 자연에서의 출생담이 있었는데 구복여행담이 덧붙은 것이라 한 경우도 있다. 아울러 땅 중심 사고방식에 후에 하늘 중심 사고가 개입되었다고 한다.³⁾ 오늘이는 주변 사람들의 묻는 말에 “나는 강님드름에서 소사났습니다.”⁴⁾라고 말한다. 제주 영웅신화의 보편적 탄생과정은 바로 땅에서 솟아나기이다.

을축 삼월 열사흘날 모흥굴로 즈시에 고이왕이 솟아나고 축시에 양이생이 솟아났수다 인시에 부이민이 솟아났수다. (신연봉본)

반고씨가 해음엇이 솟아진다 ... 천왕씨가 열두양반 솟아지고 ... 단군님이 단군날로 솟아지연 ... 고량부(高良夫) 삼성왕(三姓王)이 무운굴(毛興穴)로 솟아지연 (강태옥본)

동방으로 청의동즈 반고씨가 솟아나니 ... 대뺨왕 솟아나고 소뺨왕이 솟아나고 ... (고창학본)⁵⁾

1) 민담 수용 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 속성이며, 신화적 상징으로 가득한 원형적 화소를 탐구하고, 인간 동식물 옥황시녀 등 여러 층위의 존재를 포괄적으로 표상하는 바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2014, 69~70쪽) 강권용은 특수본풀이에 대해 일찍 석사학위논문을 쓴 바 있는데, 거기서 민담 속성 이외에 군문열림과 ‘연유담음’ 요소 등 제주 무속적 요소가 가미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 고은영, 제주도 특수신본풀이의 성격과 의미,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58~64쪽.

3) 권복순,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배달말』 56집, 배달말연구회, 2015, 179~187쪽.

4) 아키바·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상』, 대관옥호서점, 1938. 이하 <원천강본풀이>의 원문은 이 자료에서 인용한다.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는다.

제주도 <탐라국 건국신화>에서 3신인이 땅에서 솟아난 사정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헌신화의 근원이라 할 구비신화 속에는 많은 신이 땅에서 솟아난다. 고양부 3성이 땅에서 솟아난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시조인 단군도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고, 중국 창세신화의 주인공인 반고씨도 땅에서 솟아났다고 할 정도로 관용적 표현이 되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천지왕과 총명부인 사이에서 난 쌍둥이인데도 ‘솟아났다’고 구연된다. 제주의 중요한 신들은 땅에서 솟아난다. 그러니 인간과 동식물과 선녀를 만나 길을 찾는 여정이 모두 민담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제주적 독자성도 있고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은 것도 인정된다. 식물이 땅에서 솟아나듯 인간의 탄생이 땅에 기원을 둔다는 원시적 사고는 인류 보편적인 것이었다가 제주도에만 많이 남아 있다.

제주신화가 땅에서 솟아난 화소가 중심을 이룬다고 해도, 땅에서 솟아난 신의 배우자는 대개 바다 저 멀리에서 도래(渡來)하는 신격들이다. 제주 당신본풀이의 대표격인 <송당본풀이>에서 소천국은 땅에서 솟아나지만 백주또는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난 후 바다를 건너온다. 제주 건국신화에서도 3여신이 벽랑국에서 제주로 배를 타고 온다. 오늘이의 여정은 긴 수평적 이동이고, 이무기의 도움으로 청수바당을 건너기도 한다. 이런 수평적 이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신화에서 천지왕과 명진국 따님아기 등 술한 신들이 천상에서 하강한다. 오늘이가 선녀를 돕고 선녀가 보답으로 원천강을 안내하는데, ‘지상에서 천상으로 수직적 이동을 위한 계기’⁶⁾를 마련했다고 보았듯이 오늘이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선계 혹은 천상계로 가는 중간 정도의 이계로 이동한다. <원천강본풀이>에는 땅에서 솟아나는 이동 이외에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두루 나타난다. 제주적 신화소와 남방적 북방적 신화소가 복합되어 <원천강본풀이>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이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원천강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운명의 변곡점인 ‘원천강’의 의미일 것이다. 원천강을 찾아가는 오늘이를 돕는 존재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청한다. 장상이는 옥황님의 분부 대로 언제든 글

5)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371쪽, 656~665쪽.

6) 유정월, <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 연구. 『한국고전연구』 4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52쪽.

을 읽어야 하는 운명인데, 왜 밤낮으로 글만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 달라고 한다. 연꽃은 봄이 되면 상가지에만 꽃이 피는데 이런 자신의 ‘팔자’를 알아봐 달라고 한다. 이무기(천하대사)는 용이 되어 승천하는 ‘방법’(어쩌면 좋겠는가)을 물어봐 달라고 청한다. 매일이는 글만 읽고 있는 자신의 ‘팔자’를 물어봐 달라고 한다. 그 청의 내용이 ‘팔자’와 ‘이유’와 ‘방법’이다. 대부분 운명에 대해 알고자 한다. 그래서 원천강을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들의 공간’⁷⁾으로 정리하였다. 그간의 많은 학자들이 이 ‘원천강’의 정체를 밝히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장주근, 이수자, 강권용 등 초기 원천강 연구자들이 논한 바를 김혜정이 정리하였고, 부모국으로서의 공간, 점서(占書)인 책, 사람이름 점쟁이(무당) 이렇게 세 가지로 보았다.⁸⁾ 점서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는데, 원천강은 ‘하늘이 정한 운명을 알 수 있는 곳’ 혹은 ‘이미 결정된 운명이 있는 곳’⁹⁾이라고 단정하는 데까지 이른다. 운명은 정해져 있더라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운명의 코드’를 알게 된 사정이 소중하다. 이 운명의 코드에 집중하자.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까지도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는 전제를 너무 신봉한 것은 아닐까. 여기 이야기 속에서도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 운명의 받은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받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제주신화의 사유를 읽어야 한다. <삼공본풀이>에서 인간은 좋은 전상과 나쁜 전상(혹은 상소록과 하소록)이 있는데, 머리가 좋은 것은 상소록이고 술을 잘 먹는 것은 하소록이라 하면서, 상소록을 잘 살리고 하소록은 털어내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고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운명은 정해진 바도 있지만 바꿀 수 있다는 능동적 힘을 이 <원천강본풀이>가 일깨워 준다고 본다. 그래서 이 논문은 오늘이를 중심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바꾸는 능동적인 힘을 찾아 나선다. 그래서 원천강으로 가는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거시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원천강이라는 장소성과 사계절이 모두 있

7) 조현설, 『신화의 언어』, 한겨레출판, 2020, 105쪽.

8)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257~262쪽. 여기서 원천강이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여 있다는 것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이고, 운명을 주재하는 능력과 연관된다고 했다.

9) 유정월, 위의 논문, 258~259쪽.

는 시간성이 무엇을 환기하는지 신화 원형을 토대로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과 우주를 대등하게 바라보는 신화적 세계관을 중시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필자의 경험담을 섞어 쓰면서 우리 시대의 파탄 난 삶을 돌아보는 자세로 글에 임한다. 그리고 신화가 탈근대 패러다임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여 인간과 자연을 구원하길 기대한다.

2. 원천강

1) 원천강 가는 길

어느 날 강님들에서 옥같은 여자아이가 솟아났다. 학이 날아와 한 날개로 깔고 다른 날개로 덮고 그 여자아이를 키웠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자 ‘오날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오날이가 백씨 부인을 만나 부모가 원천강에 있음을 알고 부모를 찾아 길을 떠났다. 오날이는 도중에 장상이를 만나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자, 장상은 서천강 가의 성 안에서 글만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연꽃을 찾아가 보라고 일러 준다. 오날이가 연꽃을 만나 길을 묻자, 연꽃은 제일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무기(천하대사)를 츠자아가 보라고 일러 준다. 또 이무기를 만나 길을 묻자, 이무기는 야광주를 세 개나 갖고 있는데도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청수바당을 헤엄쳐 오늘이를 건네주고 매일이에게 가 보도록 원한다. 매일이를 만나 길을 묻자, 매일이는 자신이 항상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선녀에게 가 볼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옥황의 세 시녀를 만나 길을 묻자, 바가지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을 퍼낼 수가 없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오날이는 정당풀과 송진으로 바가지의 구멍을 막고 물을 대신 퍼 주었다. 시녀들은 크게 기뻐하며 오날이에게 백배 사례하고는 원천강까지 동행하며 길을 인도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오날이는 원천강에 도착하지만, 문지기가 오날이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오날이가 서럽게 울자 냉정하던 문지기가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오날이의 부모에게 가서 고하였다. 오날이를 만난 부모는 옥황상제로부터 원천강을 지키라는 명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된 연유와 멀리서 지켜 본 사정을 말한다. 오늘이는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두 존재하는 원천강의 성 안을 둘러 본 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오는 도중에 부탁받은 것들을 부모에게 물었다. 부모는 장상과 매일이는 부부가 된다면 만년 영화를 누릴 것이고, 연꽃은 윗가지의 꽃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만발할 것이며, 이무기는 야광주 두 개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그 야광주와 연꽃을 받으면 신녀가 되리라고 알려 주었다. 되돌아오는 도중에 부탁받은 일을 모두 마친 오늘이는 백씨 부인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보답으로 야광주 하나를 선사한 후에 옥황의 신녀가 되어 승천하였다. 승천한 오늘이는 옥황의 명을 받들어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원천강’이라는 책을 등사하게 되었다.¹⁰⁾

오늘이는 혼자였는데 백씨부인을 만나 원천강의 부모 사연을 듣고 부모를 찾아 떠난다. 별층당의 푸른 옷을 입은 장상도령을 만나 다음 행로를 알게 되고, 대신 매일 책만 읽는 사연이 무엇인지 어떻게 난국을 헤쳐가야 하는지 알아주기로 하고 떠난다. 연화못 연꽃을 만나 다음 행로를 알게 되고, 대신 한 가지에만 꽃이 피는 사연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지가지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알아주기로 하고 떠난다. 청수바다 천하대사(大蛇)를 만나 다음 행로를 알게 되고, 대신 여의주가 셋이나 있는데 용이 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지 알아주기로 하고 떠난다. 글 읽는 여자아이 매일이를 만나 다음 행로를 알게 되고, 대신 매일 책만 읽는 사연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명에서 벗어나는지 알아주기로 하고 떠난다. 옥황 시녀를 만나 물 푸는 일을 돕고 드디어 시녀의 도움으로 원천강에 다다른다. 반복적인 행로가 이어지는데 사연은 제각각이다.

주인공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정이 특별하다. 누구든 최종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다음 목적지만 알고 있다. 단박에 목적지를 알고 떠나는 것이면 좋겠는

10)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원천강본풀이.(박봉춘 본) 번다한 말을 빼고 긴요한 말을 덧붙혔다.

데 그런 일이 쉽지 않음을 일깨워 준다. 다음 목적지를 알려 줄 수는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그들도 모른다.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일러 준다.

인생에서 목표를 한 번에 찾아 도달하는 경우는 없다. 단번에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직행 이동방법이 인생에는 없다. 단계 단계를 밟아야 하고, 과정을 차분히 거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인생 담론을 담고 있다. 심방의 목소리는 신앙민에게 향하고 그 메시지는 가족들에게 상기되었을 것이고,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환기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제주도 전체 민중의 생활철학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단계별 성장과정을 다음처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초등학교에서는 몸에 대해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정신에 대해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교양을 배우고, 대학교에서는 전문지식에 대해 배우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세상의 진리에 다다르게 된다. 지속적으로 마음 수양을 해야 세상의 진리에 가까워진다. 좋은 대학에 갔다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또 탐구해야 한다. 좋은 직장에 갔다고 그것이 종착지는 아니다. 거기서 또 자신의 삶을 모색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작은 조각이 단박에 최종 결론을 줄 수 없다. 작은 지식이 모이고 쌓여 점점 진리의 세계에 접근하게 됨을 상징한다. 그런 지식의 조각을 모아 엮어야 최종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각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묻고 답을 구해야 한다. 묻고 답하는 것이 학문(學問)이다.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두루 물어야 길이 있음을 알게 된다. 아랫사람에게도 물어야 하고, 동식물에게도 물어야 한다. 그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만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 신화는 말하고 있다. 인생의 묘리가 오늘이의 여정 속에 있다.

여럿의 도움으로 길을 가지만 그 도움을 주는 등장인물들도 모두 결핍을 지닌 존재다. 오늘이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연꽃은 적화(摘花, 꽃 수아내기)를 몰라 결핍을 지닌 존재이고, 이무기는 욕심이 지나쳐 오히려 결핍을 지닌 존재고, 선녀는 구멍 뚫린 바가지 하나 고치지 못하는 존재다.¹¹⁾ 매일이와 장상이는 별층당에 눌러앉아 홀로

11) 조현설, 『신화의 언어』, 106쪽.

해결책을 찾기 위해 궁리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을 가두어버린 사람들 내면의 감옥’¹²⁾을 의미한다. 인생의 풀리지 않는 숙제를 마냥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인생의 답도 되지 않는 공부에 매달린 듯도 하다.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으로 환원한다면 암기식 교육에만 매달리고 본의를 아랑곳하지 않는 입시생 공부나, 공무원 시험에 매몰되어 인생의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세대의 무모한 공부에 비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들의 고민을 쉬운 문제이고 쉬운 해답이라고 단정하여, ‘왜 그리 쉬운 것도 모를까.’ 반문해서는 안 된다. 하늘나라 옥황의 시녀들은 뚫어진 바가지로 하염없이 물을 푸고 있다. 오늘이의 눈에도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다. 천상계는 모두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곳에도 분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랑과 반목이 있다. 천상계 출신이라고 모든 것을 잘 알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계의 존재들은 천상계의 방식을 모른다. 살아온 세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면 모를 수도 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동물계의 대표인 이무기가 여의주 세 개를 가지고도 승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식물계의 대표인 연꽃이 가지마다 꽃을 피울 수 없는 사연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별층당의 매일이와 장상이가 하염없이 공부만 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한다. 무언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부모의 과도한 욕심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도 살아온 세상이 다르고 사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이쪽이 저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다. 유럽이 아랍계를 잘 알 수 없다. 유럽이 아시아를 아는 척하지만 오해 투성이다. 왕이 백성의 사정을 잘 알 수 없다. 남녀가 서로의 처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부부의 처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정도 그러하다. 그러니 쉬운 문제를 모른다고 타박해서 안 되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옳다. 그 다음 그 한계를 넘어설 방법을 알려주면 된다. 우리 인생의 묘리가 오늘이의 여정 속에서 빛난다. 제주 신화에는 간결하면서도 필수적인 인생철학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

12)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집, 남도민속학회, 2011, 421쪽.

2) 걱정과 성취

어렵게 원천강에 다다른 오늘이는 문지기의 벽을 만난다.

문지의 거절은 넘우나 냉정하얏고
 가련헌 오날이에게는 최후의 절망인 것갓치 하야
 하날이 문허지는 것 갓텃다.
 (울음, 눈물) 여기서 죽자 (흐느낌)
 그 비명허는 소래는 부모에게까지 흘러갓든 것이다.

문지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오늘이의 걱정은 길게 부연되는데 줄이고 일부 상황은 괄호 안에 넣었다. 오랜 과정을 견디며 차분히 단계를 밟아 원천강까지 오긴 했지만, 문지기가 막아섰다. 상황은 냉정함과 절망이 쌓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오늘이는 울음과 눈물과 흐느낌으로 죽음을 다짐하는 지경에 이르자 문제가 해결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보여주어야 경계를 나누는 문이 열린다는 것’¹³⁾을 의미하고, ‘울음의 공감력’¹⁴⁾이 있어 천지신명을 움직이게 되었다.

<원천강본풀이>는 서사무가다. 이야기를 지닌 무당의 노래여서 단순히 이야기를 구성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노래에 걸맞는 감성을 발휘한다.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하는 오늘이와 매일리와 장삼이가 한데 어울리는 노래가 덕담창에 있다. “오늘 오늘 오늘이여 날도 조아 오늘이여. 들(月)도 조아 이 오늘이로구나. 이 오늘로 놀자흐니 성도 언만 조을선가. 송도리도 내 츠지라. 오늘 가져 널 가져 성도 언만 가실서나.”¹⁵⁾로 이어지는데, 오늘이 날이 좋은데 오늘처럼 잘 놀면 마음인들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다. ‘오늘’은 주인공 오늘이와 금일(今日)이 2중적으로 쓰였다. 이

13) 고은영, 제주도 특수신본풀이의 성격과 의미, 28쪽.

14) 신동훈, 서사무가 속의 울음에 깃든 공감과 치유의 미학, 『한국무속학』 32집, 한국무속학회, 2016, 41쪽.

15)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80쪽. 이 노래의 다른 유형을 소개한다. “이제 오닐은 오닐이라 / 날도 좋구나 오늘이라 / 들도 좋다 오늘이라 / 내일 장삼은 오늘이면 / 보름 산도 놀고 가자”(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택 시왕 맞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194쪽.) 오늘과 내일과 장삼이 등장한다. ‘매일’ 대신에 ‘내일’이 구연되기도 한다.

34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노래는 석살림 중 ‘놀판’에서 신앙민이 인정을 걸고(돈을 내고) 춤을 추는 과정과 연관되는데, 인정을 거는 행위는 자비와 적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원천강본풀이>의 주제와도 상통한다.¹⁶⁾ 석살림의 신명과 노래와 원천강본풀이의 주제의식이 연관되어 있다. 자비와 적선의 주제인 <세민황제본풀이>는 오늘이와 매일 장상이 서두에 나온다.

오늘 오늘 오늘이라 들도 좋아 오늘이여.

오늘 오늘 오늘이라 날도 좋아 오늘이여.

매일 장삼 오늘이면 성도 언말 가실서냐.

오늘 날은 날이 좋아 들 중에도 상들이여 날 중에도 상날이여¹⁷⁾

“오늘 오늘 오늘이라” 노래가 불린 바로 뒤에 “매일이는 하늘 사람 장삼이는 지하 사람 매일이는 남자이고 장삼이는 여자우다”라는 주인공 이름이 나열된다.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장삼이가 남자이고 매일이가 여자인데, 여기서는 매일이가 남자이고 장삼이가 여자이다. 그러니 주인공 이름으로서의 ‘매일(每日)’ ‘장삼(長常)’이 순간순간의 시간과 오랜 시간의 시간 관념과 중첩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세민황제본풀이>는 세민황제가 죽어 저승에 갔는데 공간이 비어 저승의 매일이와 장삼이의 공간 곡식을 꾸어 쓰고, 다시 이승에 잠시 돌아와 그 빛을 갠고자 하였지만 매일이와 장삼이가 재물 축적보다 베푸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자비와 적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이승과 저승을 오간다는 측면이 ‘현실계와 원천강이라는 이계’를 오가는 <원천강본풀이>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오늘 오늘 오늘이여”라는 노래가 불리는 놀판은 석살림의 제차에서 ‘신메움-놀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석살림 제차 연행은 다음과 같다. 초감제의 신청괘에서 군웅일월을 청하여 놀릴 때 ‘신청괘 - 젃다리 얹혀 살려움’ 제차에서 조상신이나 군웅일월신을 놀리는 경우에 연행할 수 있다. 둘째, 초감제와 맞이곳 사이에서 독립제차로 연

16) 고은영, 위의 논문, 96~97쪽.

17)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611쪽.

행되는데 독립제차로 ‘신메움-놀판’을 여러 번 연행할 수 있다. 셋째, 맞이곳의 마지막 제차로 연행되는데 불도맛이, 일월맛이, 초공맛이, 이공맛이 등 ‘메어들어 석살림’ 제차에서 연행할 수 있다. 놀판에서는 덕담, 서우제소리, 담불소리 등이 연행된다.¹⁸⁾ 그러니 신곳의 천신일월맛이 과정에서 매일·장삼의 노래가 불려지니 <원천강본풀이>는 심방의 신곳에서 불려졌을 가능성을 타진¹⁹⁾한 것은 협소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근거로 <원천강본풀이>가 신곳의 비밀스런 의례에서 불린 노래²⁰⁾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노래는 석살림 ‘놀판’의 신명난 자리에서 주로 불렸다.

“오느리 오느리나 밭일에 오느리나 / 점드디도 새디도 오느리 / 새리나 밭일 당상의 오느리 오쇼서”(〈금합자보〉)라는 노래가 가곡창 시조로 등장하는데, 진본 <청구영언>에는 1번 노래로 등장하고, <양금신보>에 ‘심방곡(心方曲)’으로 알려져 있다. 심방은 제주의 무당을 이르는 말로써, 심방곡은 무가와 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7세기 초반, 가곡창 중대엽의 ‘오느리’ 시조에 심방곡이라는 명칭이 부기된 것은 이 노래가 무가계 노래에서 전승된 사정을 반영한다.²¹⁾ 이것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곳의 흥겨운 제차에서 불린 때문일 것이다. ‘오늘·매일·장상’ 노래와 셋의 연관성이 제주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알려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도 곳의 제차에 대해 길게 부연한 것은 덕담창과 본풀이와의 연관성 때문이었다. 오늘이와 매일 장상이의 관계가 흥겹게 결말지어지는 장면과 흥겨운 덕담창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성취에 앞서 고난의 절정이 전개되고 있으니, 오늘이가 원천강에 도착하여 겪는 비애감은 아주 슬픈 노래로 이어진다. 고난의 격정적 외침 뒤에 성취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원천강에 도착하여 겪는 오늘이의 슬픔을 주목한다.

18) 송정희, 제주도 곳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15, 25~40쪽.

19)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민속학연구』 12집, 국립민속박물관, 2003, 18쪽.

20) 조현설, 『신화의 언어』, 107쪽.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이야기, 혹은 오늘이라는 심방의 저승 탐방과 연관시켜 상상하면 ‘시왕맛이’ 제차에서 <원천강본풀이>가 불릴 수는 있겠으나, 그 흔적을 큰곳 제차에서 찾을 수 없다. 특수신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는 <차사본풀이>와의 연관성을 통해 시왕맛이 제차에서 불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 강경호, ‘오느리’ 노래의 무가적 전통과 「심방곡」과의 관련 양상, 『영주어문』 제 17집, 2009, 29~33쪽.

제주도의 무속 제차에는 ‘영계올림’이 있다. 죽은 영혼의 이야기를 심방이 대신 서럽게 울면서 말하기 때문에 영계올림이라 한다. ‘영계’는 영혼의 뜻이고 ‘올림’은 울음의 뜻이다.²²⁾ 오늘이가 심방처럼 이계를 만나 서럽게 울면서 말하는 대목이 마치 영계올림의 비애처럼 느껴진다. 본풀이 속에는 이처럼 굿의 제차 ‘영계올림’과 같은 격정적인 감성이 표출되고, 영혼의 울음을 통해 해원(解冤)이 이루어지듯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죽은자의 목소리를 빌려 산자에게 말을 건네기 때문에 산자는 죽은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반대로 죽은자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산자가 죽은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굿의 효용성은 이처럼 산자의 심리를 위무하는 데 있다. 여기 <원천강본풀이>에서도 긴 울음 뒤에 부모에게 진심이 전달되고 화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니,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제주도 무가의 본질은 ‘이야기하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성으로 노래하기’가 결합되어 극적 분위기를 배가함을 알 수 있다.

3) 원천강에서 돌아오는 길

원천강에서 부모를 만나고 잠시 머무른 후 오늘이는 본디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문지기에게 가로막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도 “팔자 부탁 어찌 할이 / 모든 은혜 었디 할이”라고 걱정한 것을 보면 부모를 만난 후,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 부탁한 바의 운명에 대한 해답을 위해 다시 인간계로 돌아가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잠깐의 원천강 체류 후 부모에게 팔자를 바꾸고 은혜를 갚을 해답을 얻는다.

앞의 요약에도 제시한 바처럼, 오늘이의 부모는 장상과 매일이가 부부가 된다면 만년 영화를 누릴 것이고, 연꽃은 윗가지의 꽃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만발할 것이며, 큰 뱀은 야광주 두 개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남여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음양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무기의 여의주 세 개는 탐욕을 경계하게 한다. 하나씩 얻은

22)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767쪽.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두세 개를 얻은 과거가 있다. 이것은 일확천금의 욕심을 질타하는 것이고, 그 교훈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연꽃이 상가지에만 꽃을 피우고 나머지 가지에는 꽃을 피우지 못한 것에도 의혹이 있다. 너무 하나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가지를 등한시했던 것 같다. 연꽃 스스로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큰아들만 위하다가 나머지 자식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쪽의 개화에만 신경을 쓰다가 아래쪽의 문제에는 소홀한 것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상부 지향 이데올로기를 가진 결합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결합을 돌아보게 만든다.

욕심을 버려야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해답은 잘 알지만 정작 실천은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이다. 술잔을 채우게 되면 잔은 그 양만큼만 받고 가진 것을 덜어 내는데, 우리 인간은 무한정 욕망을 채우다가 결국 과도함 때문에 망하고 만다. 필요 이상 갖고도 그 나머지를 남에게 베풀거나 비울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세상을 경계하고 있다. 상가지의 것을 남에게 주었더니 가지가지 꽃피었다고 한다.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다고 여기는 것을 남에게 주면 그 이상의 엄청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내 전 재산을 내어주는 결단을 내렸을 때 상대를 감동시키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신뢰를 모두 쏟아 누군가를 밀었을 때 그 보답은 상상 이상인 경우가 있다. 혹은 상가지에 치우친 사랑과 편견을 없애자 연꽃의 몸과 마음이 치유된 것일 수도 있다. 비워야 채워지고, 한쪽을 버려야 다른 쪽이 채워진다는 인생철학을 알려 주고 있다.

오늘이든 도움을 받았던 상대에게 다시 은혜를 돌려준다. 그래서 인생살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제안하는 ‘도움과 나눔의 서사’²³⁾가 이루어지고, 이타적 전환²⁴⁾과 상생 원리가 전개된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베풀고 보답하는’ 원리라 정의한다.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1차 형이상학의 혁명이 신화의 탄생이라면 2차 형이상학의 혁명은 종교의 출현이라 한다. 신화가 지닌 관념을 종교가 상당 부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은 바로 자비와 이타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축의 시대>의 가장

23) 고은임, 원천강본풀이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 35집, 서울대 국문학과, 2010, 213쪽.

24) 박명숙, 한중 구복여행 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371~407쪽.

큰 미덕이라 할 자비와 공감의 철학²⁵⁾을 신화가 간직하고 있다면, 무속도 축의 시대 종교와 철학을 만나면서 진화한 흔적일 것이다.

원시 고대 신화는 잔인하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중세 종교가 보여준 잔혹의 역사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다. 근대의 명료한 과학정신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은 고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인간의 심장을 내서 제물로 바치던 잔인함을 들추며 그들의 신앙과 신화를 비난하는데, 정말 맞는 말일까. 그들은 경쟁에서 이긴 명예로운 대표가 자기들의 생존을 도와준 자연의 신, 특히 태양의 신에게 가장 귀한 영광을 바치고자 스스로 자청하여 죽고 그 심장을 바친 것이다.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읽으면 그 죽음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다. 무모한 전쟁으로 수천 만 명을 죽이고, 구제역으로 수 억 마리의 소와 돼지를 죽이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현대인의 삶이 과연 온전한 것이던가.

베풀고 보답하는 은혜의 연결고리가 사람끼리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동물계와 식물계에까지 미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폭넓은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그 호혜성과 이타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의 지혜가 가장 밝았던 축의 시대에 마련된 ‘자비와 공감’의 정신이 신화에도 영향을 주고, 현대 인간들에게도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인간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예전 제주 사람들은 곳에서 불리는 신화 본풀이를 통해 위대한 인간 정신을 터득해 왔다. 그러나 그 전통은 서서히 소멸해 간다. <원천강본풀이>는 20세기 초반까지 남아 채록되었지만, 지금 곳에서는 잊혀졌다. 그러나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로 살아남아 애니메이션(이성강, 2003)이 되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행운을 얻었다. 오늘이가 다양한 존재들과 호혜성의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²⁶⁾임을 강조하여 콘텐츠적 활용도가 높아졌다.

오늘이가 부모를 만나고 다시 길을 떠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철학을 만나게 된다. 혼자였던 오늘이는 부모님의 존재를 알고 부모를 만나러 간다. 그런데 부

25) 카렌 암스트롱, 『축의 시대』, 교양인, 2010, 670~673쪽.

26) 정제호, <원천강본풀이>의 문화콘텐츠화 요인 분석, 『동양고전연구』 77집, 동양고전연구회, 2019, 137~138쪽.

모를 만나 거기 머물지 않고 다시 인간세상으로 돌아온다. 홀로 살아온 주인공 오늘이의 형상이 “거친 세상에 훌쩍 던져져 한 몸으로 존재를 감당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²⁷⁾이라고 했다. 그리고 부모를 잠시 만나 수만 리 길을 다시 돌아온 것은 ‘나’라는 존재가 홀로가 아님을 확인하는 여행이었고, 불행한 여러 존재도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²⁸⁾고 했다. 그렇게 오늘이는 주변 존재들과 ‘베풀고 보답하는’ 관계성을 회복하고 세상과 화합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혼자였던 오늘이가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은 ‘부모에게 의존하기’의 시간이다. 다시 부모를 떠나 혼자의 길을 가는 것은 ‘부모에서 벗어나기’의 과정이다. 나이 어린 오늘이는 부모의 존재를 알고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다. 당연한 행로다. 몇 단계의 행로를 거치면서 오늘이는 성숙하여 간다. 하지만 부모가 있는 원천강으로 가는 역정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자기정체성의 확인²⁹⁾ 절차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동식물과 선녀를 만나고 인생 학습이 쌓여가면서 부모를 만나는 시점에서는 훌쩍 성장한 오늘이를 만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부모의 품에서 응석을 부리고 누구의 도움만 받는 처지가 아니다. 이제 그를 구원했던 존재들을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 20세가 넘으면 부모의 곁을 떠나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가라던 선배들의 조언이 이 신화 속에 녹아 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부모를 찾을지언정 20세 어간의 청년이 되면 길을 떠나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생생하다. 요즘 21세기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사물인터넷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젊은이들은 부모의 곁을 지키며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 안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토리(得道)세대를 탄생시켰다. 개척정신도 창조정신도 없는 어두운 삶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때, <원천강본풀이>는 ‘부모에서 벗어나기’를 이야기하면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라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신화의 화두에 귀 기울여야 한다.

27)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2014, 69쪽.

28) 신동훈, 위의 책, 72쪽.

29) 고은임, 위의 논문, 206쪽.

3. 사계절

1) 시간관

오늘이, 그가 다다른 원천강은 어떤 곳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함께 있는 신비한 곳이다.

만리장성 둘러싸흔 곳에
곳곳마다 문을 열어 보았다.
보니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다 잇는 것이었다.
구경을 쫓치고 오날이가
쫓다시 온 길을 돌아갈여 할 쎄

텍스트에는 사계절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곳곳마다 문을 열어보았다고만 했다. 그런데 원문이 너무 간결한 탓에 “첫째 문을 여니 따듯한 바람이 불고 온갖 꽃이 피어 있었다. 둘째 문을 여니 햇별이 따갑고 풀과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셋째 문을 여니 들판에 곡식들이 익어가고 온갖 열매들이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넷째 문을 여니 하얀 눈이 날리고 찬 바람이 불고 있었다.”³⁰⁾라고 멋지게 수식하여 부회한 바 있다. 사계절이 하나인 세상이다. 우리가 나뉘어 있다고 여기는 시간이 여기서 하나다. 계절은 순환되지만 원래 하나라는 것이다. 조금 덥다고 조금 춥다고 느낄 뿐이지 실은 시간은 하나의 방향으로 흐를 뿐이다. 우주는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임을 알려 준다.

이집트 스피르크스의 이야기가 환기시켜 주는 세상도 하나다. 스피르크스는 네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몸, 독수리의 날개, 뱀의 꼬리 -이는 하늘의 네 귀퉁이를 지키는 별자리를 상징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봄에는 사람, 여름에는 사자, 가을에는 독수리, 겨울에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는 하나의 우주를 표현한 다른 모습일 뿐이다.³¹⁾ 동서남북과 봄여름가을겨울 시공간

30) 아침나무, 『세계의 신화』, 삼양미디어, 2009.

이 하나임을 일깨워준다. 그런 세상이 과연 있을까. 우리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명료한 세상, 논리정연한 세상에는 없다.

사계절이 하나인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렇다고 그곳을 천상계나 이계(異界)라고 밀쳐둘 필요는 없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 현실 삶 속에는 끈과 줄이 많이 보인다. 빨래줄도 보이고 개줄도 보이고, 노끈과 포장 끈도 다양하다. 그런데 우정의 연줄이나 사랑의 끈은 보이지 않는다. 인연의 끈과 같은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소중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 감아야 보인다. 눈 감고 보이는 세상만이 참 세상이다. 오늘이든 그런 세상을 만나고 왔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가 풀고 난 후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에 나온다. 인간의 문제를 푼 오이디푸스는 오만했고 결국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된다. 슅핑크스가 지닌 신비한 문제는 아직 풀지 못 했다. 슅핑크스는 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주의 에너지여서 늘 겸허하게 대하여야 함을 일깨운다.³²⁾ 우리는 이런 그리스 철학은 아는데 제주 철학은 모른다. 우리는 오이디푸스의 오만처럼 신을 모두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비참한 운명을 자처하기도 한다. 제주 철학은 그리스 철학처럼 우주의 시간관을 제시하여 놓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도 훈계한다. 그리스에서는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인생을 그려졌지만, 제주에서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낙관적으로 그려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를 풀게 된다. 장상이와 매일이는 만나 부부가 되어 만년 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큰 뱀은 여의주 두 개를 포기하자 드디어 용이 되어 승천하고, 연꽃은 하나뿐인 꽃가지를 꺾어 주자 가지가지 꽃이 피어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물론 갖은 고난을 헤쳐 원천강에 도달하고도 거기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와 주변을 챙겨 준 오늘이도 결국은 천상의 옥황 시녀로 들어가 세상 사람 돕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분절된 시간 속에서는 시련과 불행이 지속되지만 시간을 통합하여 보면 세속적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

31) 김윤희, 『삶의 길목에서 만난 신화』, 서해문집, 2013, 20~21쪽.

32) 김윤희, 위의 책, 26~38쪽.

42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주 신화 속의 철학은 통합된 시간관을 제시한다. 여름에는 덥다고 푸념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투정하는 순간적 불화를 버리라고 하고, 여름에는 여름이니 덥다고 지나고 겨울은 겨울이니 춥다고 지나는 순환적 시간관을 긍정하고, 더 나아가 통합적 시간관을 내장하고 있다. 시간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불행을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다.

오늘은 시간의 상징이다. 매일이와 장상이도 ‘하루하루’와 ‘기나긴 시간’의 상징이고, 그 둘은 순간과 영원이 한쪽이 되었다 ‘오늘’이 개입하여 순간과 영원을 결합시켰다.³³⁾ 둘의 만남이 바로 ‘지금 여기’를 환기시킨다.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지금 여기에서 통합된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나는 미래 어느 순간 신호등이 바뀔 것을 알고서 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나는 일주일 전에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과란불을 더욱 주시한다. 느린 발걸음 탓에 신호가 바뀌는 순간 출발하기 위해서다. 오늘의 ‘어제’는 어제의 ‘오늘’이며, 오늘은 내일의 어제다. 시간은 전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다.³⁴⁾ 지금 여기의 내게 과거와 미래가 하나다. 봄이 오면 꽃 피어 돌아올 식물의 부활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 꽃도 우리를 알아본다.

인사했더니

꽃이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올 걸 어떻게 알고?

-제가 꽃피어 올 것을 당신도 아셨지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철수, <꽃과 만나서>)

순환적 시간을 알면 시간을 통합하여 인식할 수 있다. 봄이 아름답지만 열매 맺고 가을이 와 그것이 수천 개의 생명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가을이 가고 긴 휴식의 시간을 거쳐 또 우리 곁에 봄이 와야 한다. 어느 순간 머무를 수 없다. <산천도량>에서 ‘새푸른 새각시’가 퇴치되고 ‘붉은 선비’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봄과 여름의 신록

33)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74쪽.

34) 카렌 암스트롱, 『축의 시대』, 500쪽.

이 지나가야 산천에 붉은 단풍이 지는 계절이 오고, 열매를 맺고 결실의 시간을 획득하기 때문이 아닐까.³⁵⁾ 봄 속에 가을이 있고, 가을이 지나는 바람소리에 봄이 녹아 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오늘’에 대한 인식이다. 오늘 여기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이는 사계절이 하나인 세상을 만나 거기 머무르지 않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사계절이 하나인 깨달음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더 머물 필요는 없었으리라. 이제 자기가 살던 곳, 현실에서 오늘이는 사계절이 하나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오늘이의 각성은 길을 떠나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 속에 있다. 오늘이가 사계절이 하나인 세상을 만나고 온 것은 스프링크스의 신비를 만나고 온 것과 비견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이의 역정을 <연금술사>의 산티아고와 견준다. 피라미드를 향해 갔던 산티아고와 스프링크스의 사계절을 만나고 온 오늘이의 내력,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 보물을 발견하고 지금 여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 산티아고와 오늘이를 함께 바라보고 싶다.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에게 새로운 각성이 있다. 자신이 누구라는 것, 이 세계와 자신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자는 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과 들리지 않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찮고 비천한 일상을 황금과 같은 것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³⁶⁾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간 여정의 길을 떠났다 돌아온 자는 세상 모든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

우주 자연과 소통하게 된 오늘이를 더 알아 보자. 산티아고는 자연 속의 존재들과 들리지 않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데, 자연 속의 존재와 ‘들리는 말’을 주고받는 오늘이의 사연으로 가 보자.

2) 대등한 관계

신화를 보면 동물이 말을 하거나 인간이 자유롭게 동물과 결혼을 한다. 동아시아를

35) 김현선, 『함경도 망목국 산천도량 연구』, 2019, 141~170쪽. 최복녀 소장 <산천도량> 원문 참조.

36) 김윤희, 위의 책, 134쪽.

44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보면 자기 조상이 늑대라고 하면서 인간과 늑대의 결혼 뒤에 태어난 인물이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조상이 곰인 경우도 있고, 그때 부족의 시조는 인간과 곰의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다. 그런데 우리의 단군신화는 곰이 사람의 몸을 얻은 후 결혼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바뀐 문맥일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렇게 한 공간 속에 인간과 동물이 놓인 것을 의아해 한다.

인간과 동물의 교호라는 사고와 똑같은 유형의 사고를 ‘시간’의 축에 투영한 것이 불교적 윤회관이다. 인간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난다든가, 전생에 동물이었다가 현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불교적 윤회관은 앞의 신화의 축을 자연스럽게 바꾼 전말이 있다. “불교는 신화적 사고가 공간축에서 전개되는 사상을 시간축에 투영해 전개하는 사상”³⁷⁾인 셈이다. <원천강본풀이> 속의 인간과 동물은 현실계³⁸⁾의 동일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다. 그런데 초월계인 원천강에 사계절이 공존하고 있는데, 스프링크스의 몸을 빌려 말한다면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과 독수리의 날개와 뱀의 꼬리를 한 존재가 공유하고 있는 형상이다. 잉카 부족들은 콘도르의 날개와 퓨마의 몸과 뱀의 꼬리를 한 신을 모시고 있다.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지 않고 한 몸인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시간이 공간으로 표출되고, 공간이 시간으로 표출되는 신화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상대적인 것처럼, 공간도 상대적인 것이다.

<산해경>의 축음(燭陰)은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있다고 하여, <원천강본풀이>의 천하대사(뱀) 모습이 연상된다고 했다.³⁹⁾ 축음은 눈을 뜨면 낮이고, 감으면 밤이 된다. 거세계 숨을 내뿜으면 겨울이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면 여름이라 한다. 이 축음의 모습 속에 사계절이 합친 모습이 떠오르니 동양의 스프링크스라 할 만하다. <원

37) 나카자와 신이치, 『대칭성 인류학』, 동아시아, 2005, 170쪽.

38) 이 논문을 쓰면서 천상계에 대응하는 세계를 인간계로 상정해 왔는데, 이곳에는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못 생명이 두루 존재한다. 날짐승, 길짐승, 물짐승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나무와 풀도 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계 존재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인간 중심으로 ‘인간계’라 해서는 안 되고 현실계로 고쳐 써야 할 것이다.

39) 권복순, 서사부가 원천강본풀이의 인물기능과 우주인식, 『국제언어문학』 35집, 국제언어학회, 2016, 97쪽.

중기(元中記)에서는 축룡을 설명하는데, 왼 눈은 태양인데 열면 낮이고, 오른 눈은 달인데 열면 밤이 된다. 입을 벌리고 있을 때는 봄과 여름이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가을과 겨울이란다. 하나의 공간에 펼쳐지는 원천강의 사계절 풍경을 떠올린다. 이런 경우 봄과 가을이 순차적일 수 없고 시간과 계절의 구획이 무화된다. 다만 시간을 공간 감각으로 표출하였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사람의 얼굴과 뱀의 몸, 사람과 뱀이 하나의 공간 속에서 소통하고 있다.

오늘이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인간과 자연이 서로 말을 건네고 서로의 결핍을 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 현대 인간이야 삶의 중심에 그 잘난 인간을 두고 나머지 생명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 인간이 필요한 만큼만 자연에서 가져온다. 암컷과 새끼는 함부로 죽이지 않고, 알을 함부로 깨트리거나 먹지 않았다. 조기 한 마리가 2-3만 개의 알을 낳는데, 알이 딱 차 있을 때 먹어야 맛있다고 여겨 남획을 일삼다가 결국 조기는 우리의 밥상에서 사라졌다. 더 오만해지고 있는 우리의 식습관이 지구를 남김없이 파괴하고, 2050년에는 바닷속 물고기가 모두 사라진다고 하는 유엔 녹색성장보고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고 있다. 역사의 종언, 이제 이것은 위협적 언사가 아니다. 이 독선적인 근대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탈근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오래 된 과거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중세의 삶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자연을 배려하는 단계를 넘어, 자연이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과 자연의 구별이 무화된다. 인간이 동물에게 의존하고, 식물의 품에서 크다. 동물과 인간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말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서로의 부를 나누어 가지며 생활하던 사이였습니다.”⁴⁰⁾라고 하여 대등한 관계를 찾아 밝히고 있다. 동물이 자기 아내이거나 형제자매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엮어서,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포획이나 파괴를 억제하는 제어장치를 만들었다. 그래서 고대신화 속에는 자연에 대한 배려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하고, 인간이 지녀야 할 윤리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형성시켰다.⁴¹⁾

40) 나카자와 신이치, 위의 책, 168~169쪽.

46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대등한 관계는 얼마 후 동물이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깨지고 말았던 것 같다.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에 보면 대별왕과 소별왕이 해가 둘 나타난 변괴를 해결한 후에, 이승과 저승 차지 내기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인간세계의 존재들을 구분한다. 그때는 인간과 귀신이 함께 동거하였는데 저울을 가져다 백 근이 차는 것은 인간으로, 백 근이 못 차는 것은 귀신으로 구획했다고 한다. 아울러 인간과 새와 나무도 함께 말을 했는데 송피 닷 말 닷 되를 뿌려 인간만 말을 하고 모든 동식물의 말을 빼앗았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세계의 질서를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문명(文明)의 세상이 구축되어 가고 있었고 인간과 만물이 함께 소통하던 신명(神明)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⁴²⁾ <원천강본풀이>의 세상은 아직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신명 세상이다.

<원천강본풀이> 속 대등한 관계는 안과 밖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오늘이의 여정은 현실계에서 초월계로 향한다. 사계절이 있고 인간의 운명을 가늠해주는 공간인 것을 보면 인간세계와 구별되는 이계(異界)다. 오늘이의 부모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벼슬살이를 하는 것을 보면 선계(仙界)라 할 수도 있고 천상계라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이란 인간이 다다른 곳이어서 이쪽과 구분되는 저쪽이라 하자. 이쪽과 저쪽, 내부적 세계와 외부적 세계가 교호하고, 지상과 선계과 유대⁴³⁾를 맺어 상보성의 서사를 갖는다. 오늘이를 처음 보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나, 백씨부인도 그렇고, 매일이와 장상이도 함께 대등한 소통을 이루고 있다. 내외(內外)·인물(人物)의 대등한 관계가 이야기 속을 관통한다.

조동일은 “人으로써 物을 보면 人이 貴하고 物이 賤하며, 物으로써 人을 보면 物이 貴하고 人이 賤하다. 하늘에서 보면 人과 物이 均하다.”(홍대용, 의산문답)을 들면서 인물균론(人物均論)을 말하고 있다. 여래의 눈으로 보면 살아가는 우리 처지가 모두 같다는 말이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세상은 세상 만물의 차별을 벗어난 것만으로는

41) 나카자와 신이치, 위의 책, 171쪽.

42) 근대는 너무 인간 중심주의였다. 인간의 유익함을 위해 자연이 너무 희생되었다. 이제 인간과 자연이 대등해지는 세상이 필요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인간과 짐승과 새와 나무가 함께 말하면서 소통했던 그런 세상이 다시 요구된다.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232쪽.)

43) 고은임, 원천강본풀이 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210~212쪽.

안 되고, 인간세계의 차별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화이(華夷)·내외(內外)가 같다는 내외균론(內外均論)을 덧붙여 대등한 화합을 말하고 있다.⁴⁴⁾ 그런데 <원천강본풀이>의 ‘원천강’이 바로 인물균론(人物均論)과 내외균론(內外均論)이 모두 실현된 공간이다. 사람과 사람의 대등한 관계는 사람과 다른 생물의 대등한 관계를 근거로 함을 알 수 있다. 탈근대 패러다임이 저 먼 과거 이야기 속에 내장되어 있다. 오래된 미래다.

4. 결

오늘이가 만난 원천강의 사계절은 시간의 구분이 없는 곳이고, 모든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큰 시간의 틀로 보면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전생과 현생이 공존하는 것이다. 하나의 공간에 과거-현재-미래가 있다는 사고로 본다면, 삶과 죽음도 하나의 공간 속에 있다는 셈이다. 과거 고대인들의 공간관이 그러 한데, 하나의 공간 속에 삶과 죽음이 있다는 사유다. 죽음은 한 공간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변화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그러니 죽음은 슬퍼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막혀 이쪽에 인구가 과밀하여지고 온갖 오물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문을 터뜨려서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동하여 평화가 찾아왔다는 신화도 있다. 과거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아마 사계절이 구분되지 않는 원천강과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원천강을 찾아가는 오늘이의 여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누구에게나 묻고 또 다음 단계를 위해 누군가를 만나 묻는 연속이다. 우리 인생도 것처럼 단박에 찾아가는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닿는 직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계를 수없이 거쳐야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으니, 멈춰서지 말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

술한 존재들에게 신세를 지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이제 할 일은 거기 안주

44) 조동일, 『대등한 화합』, 지식산업사, 2020, 20~21쪽.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보답하는 길이 남았다. 베풀고 보답하는 삶이 거기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운명적인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고, 원하는 세상으로 가도록 돕기도 하고 원하는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삶이 거기 있었다. 그런데 제약된 운명을 바꾸는 데는 깨트려야 할 장벽이 있었으니, 협소한 자기 안위의 테두리를 깨거나 과도한 욕망을 버리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결혼해 행복해질 선택이 요구된다. 과도한 욕망은 자신을 망가트리는 독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욕망을 좇다가 패망하는 삶을 수없이 확인하지 않던가. 이기에 빠지지 말고 이타적 삶을 사는 것, 사랑과 공감과 자비라는 덕목은 ‘축의 시대’ 성인들이 남긴 소중한 말씀이고, 자본주의의에 의해 파괴해진 인간을 구원할 방식도 거기에 있다. 제주 서사무가는 축의 시대가 구축한 ‘공감과 자비’의 정신을 터득하고 있다.

원천강을 가고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오늘이의 여정은 묘하게도 부모에 의존하기의 전반부와 부모에서 벗어나기의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이는 긴 여정을 만나면서 성숙하게 되고 성년의 판단력과 깨달음이 있을 즈음,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삶을 향해 길을 떠난다. 우리 젊은이의 여정도 이처럼 어린 시절 부모에 의존해 성장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나 홀로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자기정체성을 찾고 인간답게 살게 될 것이다.

오늘이의 여정에서 함께 한 존재들은 인간과 동식물과 선계 선녀들인데,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존재를 망라하고 있고, 이 존재들이 서로 말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누군가가 위압적이지도 않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도 않다. 인간과 동식물이 대등하고, 인간세계 안쪽과 바깥쪽이 대등하게 교류하고 서로를 돕고 있다. 우리 현대문명은 지나치게 인간 위주로 흐르면서 자연의 생명들을 홀대하고 함부로 죽이고 파괴했다. 먹히는 것들에 대한 예의조차 가지 못한 문명 속에서 자만의 욕망만 부풀렸다. 숲이 파괴되어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 100년 전의 6%에 불과해지자, 바 이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간 숙주를 택해 도시로 나왔다. 그것이 작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생명체를 배려해야 하고, 그런 정신을 오래 된 신화로부터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 참고문헌

- 강경호, 「‘오느리’ 노래의 무가적 전통과 「심방곡」과의 관련 양상」, 『영주어문』 제 17집, 2009.
-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_____,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민속학연구』 12집, 국립민속박물관, 2003.
- 고은영, 「제주도 특수신본풀이의 성격과 의미」,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고은임, 「원천강본풀이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 35집, 서울대 국문학과, 2010.
- 권복순,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배달말』 56집, 배달말연구회, 2015.
- _____,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의 인물기능과 우주인식」, 『국제언어문학』 35집, 국제언어문학회, 2016.
- 김용희, 『삶의 길목에서 만난 신화』, 서해문집, 2013.
- 김헌선, 『한국무조신화연구』, 민속원, 2015.
- _____, 『함경도 망목굿 산천도량 연구』, 2019.
-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 나카자와 신이치, 『대칭성 인류학』, 동아시아, 2005.
- 박명숙, 「한중 구부여행 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송정희, 「제주도 굿 재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15.
-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2014.
- _____, 「서사무가 속의 울음에 깃든 공감과 치유의 미학」, 『한국무속학』 32집, 한국무속학회, 2016.
- 아침나무, 『세계의 신화』, 삼양미디어, 2009.
- 유정월, 「<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 연구」, 『한국고전연구』 4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 아키바·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상』, 대관옥호서점, 1938.
- 조동일, 『대등한 화합』, 지식산업사, 2020.
- 조현설, 『신화의 언어』, 한겨레출판, 2020.
-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집, 남도민속학회, 2011.
- 정제호, 「<원천강본풀이>의 문화콘텐츠화 요인 분석」, 『동양고전연구』 77집, 동양고전연구회, 2019.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 카렌 암스트롱, 『축의 시대』, 교양인, 2010.

50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1997.

허남춘, 『설문대 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제주 민요의 문화사적 가치

좌혜경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1. 서언
2. 제주민요에 대한 연구 경향
 - 1) 초기 민요 조사자들의 연구
 - 2) 민요학 측면의 김영돈의 연구
 - 3) 시학적 측면의 김대행의 연구
 - 4) 개별 요충 분석 연구
 - 5) 음악적 측면에서의 연구
3.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
 - 1) 제주의 지역성, 제주 섬 공동체의 삶이 잘 반영된 구술 전통을 지남
 - 2) 노래의 기능성에 의해 생산되며 원시성이 강함
 - 3) 다양한 창법과 높은 수준의 음악 형식으로 변화 발전
 - 4) 노래와 노동 에너지를 통해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카타르시스의 방식
 - 5) 역설의 방식으로 제주민의 염세적 삶의 철학 표출
4. 결어

1. 서언

- 제주민요의 구전 시기는 문헌상에서는 고려말 이제현(李齊賢)의 『익재난고(益齋亂藁)』 소악부(小樂府) 속의 「탐라요(耽羅謠)」와 「수정사(水精寺)」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고, 조선 시대를 거쳐서 기계문명이 발달되기 이전 1970년대 까지로 소급 가능함.
- 현대에 오면서 문명의 발달로 인해 노동이나 의식 등 노래 기능이 사라지고, 제주민요의 가창 기원의 소멸로 제주민의 정서가 담긴 제주민요 후대 전승이 불가한 실정임.
- 선행연구는 개별 주제에 따른 심층적 접근으로 말미암아 제주민요의 전반적인

가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속 보전을 위한 가치의 해명 등이 어려운 실정임.

- 제주민요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와 경향을 파악하여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일부 제안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예로 활용한 연구자료는 『한국민요대전』(제주문화방송, 제주도 편, 1991) 자료를 대상으로 함, 이 자료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장론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고, 제주민요 본연의 모습이 잘 남아 있음.

2. 제주민요에 대한 연구 경향

1) 초기 민요 조사자들의 연구

- 민요는 중국의 『시경(詩經)』이나 일본의 『만엽집(萬葉集)』과 같은 것으로, 제주도는 조선 민요의 보고(寶庫)이며 고대의 민요를 잘 간직하고 있음.¹⁾
- ‘맺돌·방아노래’ 중에서 그 뜻이 깊고 절창인 노래들을 감상하고 있는데, 특히 시집살이 중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을 그린 것과 첩에 관한 것과 같은 어두운 음(陰)의 노래와 양반 지향의 노래, 경성 지향의 노래,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양(陽)의 노래가 나타나 이중적임.²⁾
- 제주도 민요인 경우는 육지의 민요와 시형, 어휘, 어조, 정감 등이 다르고 지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아 따로 분류함.³⁾
- ‘맺돌노래’의 ‘이허도(離虛島)’의 후렴이 슬픔으로 상징되고, ‘잠수가(해녀노래)’에 나타나는 노동의 고달픔, ‘방아노래’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비애, ‘김

1) 高橋亨, 「朝鮮의 民謠」, 『朝鮮』, 통권 201호, 京城: 朝鮮總督府, 1932.

2) 高橋亨, 「民謠에 나타난 제주의 女」, 『朝鮮』 통권 202호, 12월호, 京城: 朝鮮總督府, 1932.

3) 金思燁의 공편, 『朝鮮民謠集成』, 서울: 정음사, 1948.

매는노래'의 노동 기능성이, '밭밟기노래'에서는 제주도만의 농사법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4·5조가 많은 것은 제주 부녀자들의 노동 박자와 일치하고 있음, 내용적으로는 부요의 질·양적인 우세, 노동요의 양적인 우세를 들고 있음.⁴⁾

- 부녀자들의 영탄하고 하소연하는 노래가 으뜸으로 많아서 낡은 사회제도에 얽매인 부녀자들의 쓰라림과 고뇌를 토로하여 표현한 민요는 생활고에 대한 신음이며, 스스로 달래고 힘을 돋우는 구슬픈 노력의 결정이며 처절한 애원이 가득한 정조임.

2) 민요학 측면의 김영돈의 연구

- 민요연구는 주로 가사(사설) 중심의 문학적 연구, 선율, 박자 분석의 음악적 연구, 민요의 가창 기연이나, 기능 등의 민속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김영돈은 문학과 민속학적인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민요분석을 시도하고, 민요가 단일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민요학의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음.
- 귀족문학이 따를 수 없는 수사적인 기교와 장치를 지님, 은유는 물론 강의적 직유는 구어 특히 속어의 방언 중에서 끌어오는데, 어휘들은 생활 주변에서 끌어왔으며, 천체, 자연, 동식물 및 일용품들이며 서민들 주위에 흩어진 가시물(可視物)이거나 일상적인 것들이 주종.⁵⁾
- 땅은 거칠고 백성들은 가난하다는 지척민빈(地瘠民貧)의 땅으로서 노동은 삶의 근본이고, 이와 더불어 부르는 노동요가 많은데, 특히 여성요가 흔함, 사설 내용은 외세의 침략, 양반들의 횡포에서 빚어진 비통성, 근면과 자주를 밀받침한 현실성을 지닌 각편⁶⁾이 대세임.

4) 姜時宅, 「濟州島 民謠의 特色」, 『濟大學報』 창간호, 제주: 제대학도호국단, 1957.

5) 김영돈, 「제주도 민요에 있어서 譬喩法修辭」, 『국어국문학』 22호, 서울: 국어국문학회, 1960.

6) 김영돈, 「제주도 민요의 특색」,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 연구실, 1964.

54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 제주도 민요는 시적 정신과 언어 구사가 우수한 데, ‘맷돌방아노래’의 경우는 그 착상이나 차사(措辭)의 면에서 더욱 그러하며, 이 노래의 노동 기능성은 장소가 고정되고, 밤에 한 두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균형이 잡힌 일이며, 제주 여성들 가정 내의 작업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맷돌방아노래’를 주제별로 대분하면 1)체념의 노래(생활고, 고독, 신세, 팔자)와 2)수분(守分)의 노래(자위, 자립), 3)꿈의 노래(이상, 사생관, 발산) 4)사랑의 노래(어머니에 대한 사모의 노래, 부모 효도) 5)미움의 노래(부부불화, 첩과 과부의 신세 한탄)로 구분.⁷⁾
- 사설 내용은 노동의 실태보다 민간생활 실태와 민간의 정의에 대부분 쏠리고, 자립·근면·시집살이·가사·가족·경제·신앙·풍토 등임.⁸⁾
- 제주도 민요는 노동요가 많고 자주·근면성과 불패의 신념·현실주의적 공리성과 직결됨.⁹⁾
- 여성노동요의 대표격인 ‘해녀노래’, ‘맷돌방아노래’를 중심으로 가창 배경·전승 양상·전승자·창법·기능·제재·내용·표현을 분석하고 민요에 나타나는 도민의 의식을 자강불식(自強不息)으로 정리함.¹⁰⁾
- ‘해녀노래’는 노를 저으면서 불러서 노래할 기회가 많으므로 빼어난 사설이 많고 고정적인 사설과 유동적인 사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며, 창법은 뜻있는 사설의 선소리와 무의미한 여음구인 후렴으로 부르는 선·후창과 앞소리와 같은 사설을 부르거나 다른 사설을 부르는 교창(교환창) 방식이 있음.
- ‘해녀노래’의 제재는 1)해녀작업 출발의 노래(배 타고 나감, 헤엄치는 기능),

7)김영돈, 「제주도민요(1)~(4), 맷돌방아노래 편」, 『현대문학』통권 84~87호, 서울: 현대문학사, 1961~62.

8)김영돈, 「제주도민요 맷돌·방아노래」, 『국어국문학』, 서울: 국어국문학회, 1980.

9)김영돈, 「제주 민요에서의 불패의 신념」, 『국어국문학』 27호, 서울: 국어국문학회, 1964.

10)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2.

2)해녀 작업(잠수 작업, 해산물 채취, 고역 토로, 탄로와 무상, 작업 목적) 3)출가과정(이향 출가, 노젓는 기백, 배와 뱃사공, 출가 뱃길, 출가 목적, 4)출가 생활, 5)애정(상사, 연모) 6)여정(신세 토로, 일상 정의)임.¹¹⁾

- 제주도 민요인 경우는 대부분 노동요이므로 제주도민의 생산구조 및 민요 구연 여부 등의 실태에 근거해서 분류하는데, 노동요는 농업요, 어업요, 제분요, 관망요, 벌채요, 잡역요로 구분하고, 의식요는 장례의식요인 ‘행상요’, ‘달구질소리’가 전해지며 육지부에서 전해지는 유희 기능을 가진 무용요는 전해지지 않고 있음.¹²⁾
- 한국 민요 속에서 제주민요의 모습을 조감하면 제주민요에는 지역적인 특이성이 강해 노동요의 종류가 흔하고, 제주에서만 전해지는 노래들이 상당수이며, 한 종의 노래에도 술한 사설이 전승되고 있는데 문학성이 우수함.¹³⁾
- 요종으로는 노동요가 많고 여성요가 압도적인데, 본토 민요와 유사한 노래가 드물고, 밝은 노래들이 드문 것은 숙명적인 여건과 특이한 생산구조에 그 원인이 있음, 현실주의적 성격은 불리한 지리적, 자연 환경에 연유하며 역사성과 사회성에서 찾을 수 있음, 시·공의 처절과 통분, 굳건한 자주 근면성과 불패의 신념, 주어진 상황을 투철하게 타개해나가는 현실주의적 생활관을 들 수 있음.¹⁴⁾
- 제주도의 노동요는 요종의 수가 다양하고(24종), 대부분 여요(女謠)이며 ‘맷돌방아노래’가 전승되는데 그 사설의 문학성이 우수함. 제주에 전해지는 특이한 요종으로는 ‘해녀노래’, ‘밭밟는노래’, ‘양태노래’, ‘탕건노래’, ‘망건노래’이며, 주제는 시공의 악조건으로 인해 비통감이 두드러지고 자주 근면성과 불패의 신념, 공리주의적인 현실성이 짙음.

11)김영돈, 「해녀노래의 기능과 사설 분석」, 『민속어문논총』, 대구:계명대출판부, 1983.
 12)김영돈, 「제주민요의 분류」, 『구비문학』 7,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4.
 13)김영돈, 「한국민요 속의 제주민요의 모습」, 『구비문학』 8,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4)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한국언어문학』 15호, 서울:한국언어학회, 1977.

- 속담은 민요와 자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속담이 민요에 들어있거나 민요가 속담화 되고 있음, 은유법이 주종이고 교훈성을 지니고 있으며, 민중들의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이용하는 사물이 제재로 동원되어 향토성을 반영함.¹⁵⁾

3) 시학적 측면의 김대행의 연구

- 제주도 민요의 ‘노래’에 대한 인식은 제주도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광폭성·통용성·고태성·보편성을 지니고 있음, 노래라는 것은 1)노동을 위한 조율적 기능(노동 촉진, 정신 분발, 질서 부여), 2)심리상태의 언어적 전환(갈등 표출, 대리성과, 갈등의 억압과 은폐, 언어적 반동)임, 창법 중 ‘각각하기’의 교환창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집단적 노래가 갖는 공동성을 보여줌.
- 특히 삶의 모습이 산과 물로 폐쇄된 공간에 서 있는 현실을 노래하는데, 폐쇄 공간은 괴로운 삶의 뒤편을 증명하고, 노래는 괴로운 삶의 정서에 함몰되지 않고 객관화하고 해학적인 태도로 임하는 모습이며 국문학의 보편적인 양상으로 우리 문학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님.¹⁶⁾
- 제주노동요의 창법의 특이성을 들 수 있는데, 교환창의 네 가지 창법은 노래의 의도가 구조화의 요소로 작용하며 ‘반복하기’는 동화의 원리, ‘이어받기’는 대화의 원리, ‘각각하기’에는 독백의 원리, ‘논평하기’에는 교감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
- ‘논평하기’의 교감의 원리는 독자의 교감과 더불어 판의 형성과 열린 무대의 극적 진행을 살필 수 있는데, 동질성의 추구는 구심적이면서 역동적인 긴장감을 형성하여 노래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민요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됨.¹⁷⁾
- ‘민요를 왜 부르는가’에 대한 공동의식과 표현 동기가 동질성의 추구와 이질성

15)김영돈, 「제주도의 노동요」, 『한국문화인류학』 8집, 서울:한국문화인류학회, 1976.

16)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濟州島言語民俗論叢』, 제주:제주문화, 1992.

17)김대행, 「제주 노동요의 문화론적 가치」, 『제주문화연구』, 제주:제주문화, 1993.

의 추구라는 두 방향으로 작용, 민요는 공리적 측면이 강하나, 이질성을 추구하는 경우는 판의 분열을 가져 올 수 있는데, 이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함.

- 이질성의 구조는 교환장에서 ‘각각하기’나 ‘논평하기’를 통한 차단구조(遮斷構造)를 형성하며¹⁸⁾, 이는 특이한 해학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또 논평하기는 갑과 을이 노래하면서 공감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뒤로 가면서는 앞 사람의 사실을 평가해 진행을 차단하거나 귀결점을 향한 방향의 노선에서 이탈을 보이며, 다시 구연자 중 한 사람이 맥락을 포기하면 ‘이어받기’ 혹은 ‘반복하기’로 되돌아오는 형태를 말함.

4) 개별 요종 분석 연구

- 성읍민요는 조선조 500년간의 현청 소재지였고, 산촌과 농촌의 이중적인 구조를 지닌 성읍에서 전해지는 것으로 본토의 창민요가 들어와 변이된 것들로, 경서도 민요의 영향 아래 구연되고 있는데 산타령계 민요의 영향이 큼, 또한 밭을 매면서 부르는 ‘아웨기’, ‘흥애기’ 노동요가 전승되고, 뭍방아를 굴러 쪼으면서 부르는 ‘연자매노래’로 ‘낭글세왕’이 특이함.¹⁹⁾
- ‘오돌또기’는 신재효본 판소리 ‘흥부가’나 ‘가루지기타령’에서도 제주도 오돌또기에 들어있는 비슷한 사설 내용이 전해지고, 김복수라는 제주 사람이 안남국의 임춘향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전설이 있음, 음악적으로는 ‘레’ 종지 5음계로 이루어지며, 자유스러운 선율의 다양한 변화, 균형 잡힌 형식 등으로 제주도 민요 중 가장 세련된 형식임.²⁰⁾
- ‘서우젯소리’는 무의식에서 부르는 놀이무가로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18) 김대행, 「제주민요의 차단구조와 그 문화적 의미」, 『민요론집』 제3호, 제주:민요학회, 1994.

19) 김영돈, 「성읍민요의 실상」,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0집(인문학편), 제주:제주대학교, 1985.

20) 김영돈, 「오돌또기」, 『한국민속학』 20호, 서울:한국민속학회, 1987.

‘석살림’ 과정에서 춤과 함께 불림, 특히 선율이 유연하고 경쾌하여 무가의 주술 종교적 기능을 상실하고 민요화 함, 전승되는 노래의 유형으로는 1)조상굿이나 영등굿에서 가창되는 무의형, 2)오락을 위한 유희형, 3)표선면 성읍(남원, 구좌, 성산의 중산간) 지역의 김매는노래 형, 사설 내용으로는 생활고·신세 한탄·향락·애정 등임.²¹⁾

- ‘김매는노래’는 밭매기 작업의 일종으로 ‘김매기소리’, ‘검질매는소리’라고 하며, ‘더럼소리’(남원읍 하례리), ‘사디’, ‘사데’라고도 하는데, 명칭은 노래의 후렴 “어기여랑 사대야”, “어기두리야 더럼마”라는 후렴에 힘입음, 주제는 작업실태를 노래하고, 일상생활에서 얻은 정서인 삶의 애환, 근면, 애정, 경세, 가족, 협동을 내용으로 함.²²⁾
- ‘멀치후리는노래’는 남녀 공동의 노동요로 ‘멜후림소리’, ‘멜후리는노래’, ‘닷댕기는소리’라고도 하는데, ‘해녀노래’, ‘땃목젓는노래’와 더불어 어업요로 전승되고 있는 지역은 함덕, 김녕, 신양, 신천 등임, 대부분 작업실태를 노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풍어를 기원함.²³⁾
- ‘상여노래’는 장례 의식 절차 중 운상이나 성분 과정에서 부르는데, 기능은 상여 운반, 정화의 기능, 구복적인 기능으로 나타남, 고정적인 사설로는 망자와의 이별을 다룬 이별형과 명산지와 산수 열거로 점철된 풍수지리형, 불교의 회심곡 사설로 이루어진 회심곡형으로 구분됨. 주제는 망자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거나 효를 권하고 망자 위로·인생무상·삶의 허무가 주를 이룸.²⁴⁾
- 시집살이를 제재로 한 민요는 ‘맷돌방아노래’나 ‘양태노래’처럼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또는 타령이나 잡가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사촌성님요’는 독창인 경우는 서정화 되고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 서사화되는데, 시집 식구와의 갈

21) 변성구, 「제주도 서우젓소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22) 강성균, 「제주도 김매는노래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23) 한기홍, 「멀치후리는 노래의 실상」, 『민요론집』 제1집, 제주:민요학회, 1988.

24) 강문유, 「제주도 상여노래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등보다는 첩과의 갈등을 노래하고 있는데, 현실을 체념하지 않고 부정과 대결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 인식을 강하게 반영함.²⁵⁾

- ‘김매는노래’의 분포양상을 보면 1)구좌 조천 어촌민요권의 진사데와 쫓른사데 구분이 없는 사데소리권, 2)제주 애월읍 진사데, 니굽이 식굽이 사데권, 3)서부, 제주민요권, 4)대정 민요권, 5)예래, 강정 민요권, 6)정의 민요권의 사데소리와 진아웨기권, 7)구좌 조천읍 중산촌 지역권으로 구분됨.²⁶⁾

5) 음악적 측면에서의 연구

- 제주도 노동요는 노동 양태에 따라 집단 혹은 개인 노동인가에 따라 구분되고, 노동 동작 구조는 단일 인가, 복합동작 인가, 그리고 노동 동작 속도에 따라 빠른 것과 느린 것에 따라 선율 등의 음악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감정 기원적인 선율을 지니고 선율의 운곽은 노동 양태와 관련되고 있는데, 제주도 노동요가 단순한 동일악구 반복 형식이 많은 것은 집단적 노동 성향과 음악 내적인 균형감의 충족에 대한 욕구가 작용한 것임.²⁷⁾
- 성읍의 창민요를 육지부의 민요와 비교하면 경서도 민요(경기, 황해, 평안)로 육지부의 산타 령계의 민요와 관계가 깊은데, ‘계화타령’은 전북 남원의 계화타령, 함양의 양잠가와 비교되고, ‘산천초목’, ‘길군악’, ‘용천검’은 육지부의 사당패 소리와 사설이나 음악적인 면에서 일부분 유사하며, 특히 ‘용천검’은 진도 꽃방 아타령의 선율과 유사하고, 제주 ‘길군악’, 강릉 지방의 영산홍, 황해도 재령지방의 길군악은 행진곡으로 그 리듬 형태가 같은 느낌을 주며, 또 ‘동풍가’를 난봉가 류와 비교할 수 있으며, ‘신목사타령’은 경기 지역의 구조 풍년가(사철가)와 유사하고 ‘오돌또기’는 경기지방의 오돌독과 유사함.²⁸⁾

25)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 노래 연구」, 제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26)한승훈,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분포양상과 전승 실태」, 『민요론집』 제2호, 제주:민요학회 편, 1993.

27)조영배, 「제주도 노동요의 음악적 특성과 노동행위와의 관계」, 『민요론집』 제2호, 제주:민요학회 편, 1985.

3.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

1) 제주의 지역성, 제주 섬 공동체의 삶이 잘 반영된 구술 전통을 지님

- 제주 사람들의 삶, 특히 바다와 육지를 경작하는 섬 지역의 노동이라는 전근대적인 생산 경제를 바탕으로 생긴 구술이며 노동요가 대부분임.
- 여성공동체의 삶을 노래 형식으로 잘 전달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생활 문학으로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시적 수준이 높음, 특히 여성들이 부른 맺돌을 갈거나 방아를 찧으면서 부른 노래는 외부세계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자아 지향성이 강함.
- 제주 여성의 삶의 방식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래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
 - ▶ 어업노동요로 ‘해녀노래’(해녀노젓는소리), ‘떨치후리는노래’, 농업노동요로는 ‘밭밟는노래’(밭블리는소리), ‘김매는노래’(검질매는소리)와 관망(冠網)노동요로 ‘양태가’와 ‘망건가’, ‘탕건가’, 제분노동요로 ‘맺돌방아노래’, 그외 자장가(아기재우는 소리)를 들 수 있음.
- 남성인 경우는 땅의 흙을 일구는 ‘따비질소리’(일명 더럽소리), 임업노동요로 나무를 벨 때 부르는 ‘대툭질소리’, ‘낭깍는소리’(자귀질소리), 풀을 베면서 부르는 ‘출흥아기 그 외 ’연자맺돌끌어오는소리‘ 등이 있음.
- 의식요는 장례의식요로 상여를 이동하면서 부르는 ‘상여소리’(행상소리), 봉분에 쌀을 흙을 파면서 부르는 ‘진토굿소리’(흙파는소리), 봉분의 흙을 다지는 ‘달구질소리가 있음.
- 물이나 산으로 둘러싸인 삶의 공간에 대한 폐쇄성 인식으로, 늘 넘어서려고 하나 넘지 못해 되돌아오는 섬이라는 공간 인식을 반영함.

28)황혜령, 「민요 선율의 변이양상에 대한 일고찰-제주 성읍 민요와 육지부 민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2) 노래의 기능성에 의해 생산되며 원시성이 강함

- 일반적인 토속민요적 성격이 강한 편이나, ‘노래’라는 민요 양식을 기본으로 사람과 자연, 신, 동물들과도 소통하는 원시 문화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에니미즘이나 토테미즘, 정령신앙과 같은 원시적 사고가 노래 속에 반영되며, 노동요에서는 삼라만상에 대해서 혹은 신에 대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해산물을 많이 따달라고 용왕신에 기원하는 사설이 많음, ‘해녀노래’, ‘자장가’, ‘밭밧는노래’ 등에서 강하게 나타남.
- ‘해녀노래’
 - ▶ 칠성판을 등에다 지고 혼백상지(魂帛箱子)를 머리에 이어, 시퍼렁 흰 저 바다를 건너야 가실 적에, 어느 누구가 나를 도와나 주실거나, 일월(조상신) 같은 서낭님이 앞을 삼아 가는구나
치를 잡아가실 적에, 서낭 일월이 앞을 삼아, 고기 좋은 여(바위)꿇달로 구물(그물)가게만 흐여줍서²⁹⁾
- ‘자장가’
 - ▶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재와도라, 놈의 아긴 자는 소리 윙이자랑, 아니 재와 주당, 질긴 질긴 총배로 걸려다근, 지끈지끈(깊고깊은) 천지소에 들이쳤닥 내쳤닥, 앞밭 더레 흔 가닥, 뒷밭 더레 흔 가닥 데껴볼민(던지면), 앞집 강생이(강아지)도 박박 튕나, 뒷집 강생이도 박박 튕나³⁰⁾
-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밧을 갈거나 밧을 밧을 때 부르는 노래는 동물들과 동반해서 일을 진행하기 위한 신호 역할을 하고 노래는 사람과 짐승 간의 교감이 잘 나타남.
(‘밭가는 노래’, ‘밭밧는노래’, ‘보리걸름불리는소리’, ‘마당흙가는노래’, ‘설메 췌이끄는소리’, ‘소모는소리’, ‘연자맷돌질노래’)

29)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8, 서우젯소리

30)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6, 자장가

62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 [예요] ‘밭밟는노래’³¹⁾

A 요 뭉생이(망아지) 저 망아지덜 혼저 나글라, 어흐어 어러러러러러 어하 얼하
량

B 세상천지 요 뭉생이 덜아 네 밭 요동치멍 불르라 어러러 러러러러러

A 한라산에 비구름 사면은 사흘 내에 비가 온다 어흐어 어흐어어
허허허 어흐어 오로로로로 얼하량

B 요 뭉생이 빨라빨리 저레 가라 어러러 러러러 러러러 옆멍애멍 혼저라도 어러
러 어러러러러

A 간디가곡 온디온다 요 망아지덜 어흐어 허어어 어허 허어어허 어허어 오로로
로 와 얼하량

B 눈까릴(눈방울을) 셋별 끝이 브르뜨멍(부릅뜨고) 그레저레 잘 불리라, 요 뭉
생이덜아 오로로 로로 로로로

A 날로 자게 몰라 요 노새 놈아 혼저나 몰라, 어흐어어 어흐어어 허어 오로로로
얼하량 하량

3) 다양한 창법과 높은 수준의 음악 형식으로 변화 발전

● 동일 기능에 따른 구연일지라도 노동상황이나 가창자 음악 형식의 변화와 창법이 창안됨.

● 예를 들면 ‘김매는노래’인 경우 유형이 다양하고 음악적 분화, 소리 권역의 구분되고 있음.

- ▶ 노래 유형이 다양, ‘사대’(사디, 중간사대, 막바지사대, 찌른사대, 진사대), ‘홍애기’, ‘아웨기’, ‘담벌소리’, ‘상사디야요’, ‘용천검’ 등
- ▶ 낮의 시간인 경우는 노동에 지치지 않고 시간에 구애 없이 부를 수 있는 보통 속도의 ‘찌른(짧은) 사대’를 부르고,
- ▶ 계속 일을 하면서 지겨움을 더하고 추임새로 흥을 돋우면서 중간 정도 늘려서 부르는 것을 ‘중간사대’라고 하고,
- ▶ 또 날이 저물어서 일을 마무리할 때는 빠르게 노래하는 ‘죇인사대’(빠른 사

31)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6, 밟밟는노래

대), ‘막바지사대’를 부름

- ▶ 아주 길게 음악적 선율과 박자 진(진)사대의 리듬을 늘린 여러 구비의 사대 (네구비사대, 다섯구비) 등 다양한 음악적 형식으로 발전함
 - ▶ 무가의 ‘담벌소리’, ‘서우제소리’의 차용(‘아왜기’), 창민요 ‘용천검’이 김매는소리에서 차용.
 - ▶ 김매는 소리 분포양상이 구분되고 있는데, 특히 애월읍의 진사대는 음악성이 높음.³²⁾
- 두 사람 이상 메기고받기 형태의 가창 방식에서 선소리와 후렴 혹은 사설을 다양하게 받는 받음 소리가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고 있음, 특히 해녀들의 ‘노젓는소리’는 가창 집단의 공유화된 노래 양식을 활용하면서도 개별 각편은 다양한 음악적 효과를 가져옴.

- [예요]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8, 노젓는소리

- ▶ ‘노젓는소리’를 3중창으로 리드미컬하게 입체적으로 부름, 선소리꾼 A가 리드하고 그에 따라 B와 C가 그대로 받는소리 또는 후렴 형태, 다른 사설로 노래함, 지칠 줄 모르고 부르는 해녀들의 노동에 대한 사설 전개가 단연 압권임.

4) 노래와 노동 에너지를 통해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카타르시스의 방식

- 소리나 노래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노래가 지닌 잠재적인 에너지를 인식, 특히 ‘맷돌방아노래’나 ‘김매는노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원인은 온종일 장시간의 작업이며 큰 힘이 필요하지 않고 여유로운 가운데 노래하므로 노래의 본질적인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예요]

- ▶ 일천 간장 멍친 시름, 사대소리로 다 풀렁 가자³³⁾
- ▶ 검질 짓고 골 너른 밧 디, 소리로나 메어나 보자, 앞멍에야 들어나오라, 뒷멍

32) 한승훈, 앞의 글.

33)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3, 밧매는노래(진사대)

64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에랑 나고나가라, 검질 짓고 골 너른 밧 디, 검질 줌이랑 즈직즈직(빠른 속도로), 날도 덥고 더운 날에, 소리로나 매어나 보자³⁴⁾

- ▶ 담별 불렁 저 머리 가자, 선소리랑 궂이나 망정, 훗소리랑 서랑서랑, 먼 딛(먼 곳) 사름 듣기나 좋게, 즈께(가까운데) 사름 구경 좋게, 흐당 말면 놈(남)이나 웃나³⁵⁾
- ▶ 요 술기소리에, 돌오름 푹 넘어오는 술기소리는 들크렁 들각 들크렁 들각 잘 도나 넘어가는구나, 요 소리에 실은 동산으로 검은 들켁이레 들려오는, 요 술기소리에 어흐어 어허 어흐어야³⁶⁾
- ▶ 나 놀레랑 산 넘어가라, 산 넘은 텐 어명도 산다, 어명 신디 날 가렝 흐민(가라고 하면), 왕대죽대 엇베인 그루에 신도 벗엉, 새 놀듯(새 날듯) 흐다³⁷⁾
- ▶ 가민 어명 브리어마는(보겠지마는), 이어도 그레어 이어도 흐랑, 아니 가난 그리멍 산다(그리면서 산다), 아니 가민 놀레로(노래로) 버짜(바짜)³⁸⁾

- 김대행은 노래방식 중 ‘각각하기’와 ‘차단하기’에서 보여주는 해학, 나와 너는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는 거리두기 방식으로 독자적인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삶의 탈출구를 찾는다고 주장함.

- ▶ 예를 들면 창자 A와 B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각각하기’ 창법으로 부르다가, 노래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 같이 각자가 자신의 사설을 이끌어가다가 관련 내용에 대해 앞 사람의 노래를 평가하면서 차단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 노래 진행 중에 B가 “우리 어명 날 나실 적에 요일 흐렌 날 나실까” 하자 A가 “어명 불렁 난 날 흐영, 문(이미) 늙은 데 그 말 흐영 뵈 흐젠(무엇 하려고)”하면서 앞 사설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김매기를 일상으로 하는 자신의 생에 대해 비관하는 내용을 차단하고 다른 내용으로 변환하면서 일하는 현실로 돌아와 진행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기 창법의 특이성에서 그 의미를

34)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5, 밭매는노래(아웨기)

35)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3, 밭매는소리(담별소리)

36)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7, 나무내리는노래

37)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8, 멧돌질노래

38)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10, 멧돌노래

찾고 있음.³⁹⁾

- 차단구조는 텍스트가 지닌 화제의 일관성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집중보다는 이탈을, 동화(同化)보다는 이화(異化)를 추구하는데, ‘각각하기’는 ‘거리두기’의 심리적 기제이고, ‘논평하기’는 ‘바라보기’의 심리적 기제로, 이는 우월성에 기반한 심리상태가 차별성으로 나타난다고 봄.
- 이화에 의한 차단구조는 해학적 효과를 가져오고, ‘바라보기’가 지닌 차별성의 인식 요소가 희극적 기능과 같은 웃음을 형성, 삶에 리듬을 부여하여 긴장과 이완, 몰입과 해방을 통해 삶의 고통에서 해방을 가져온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음.
- [예요] 각각하기
 - A 이연이연 어허어 이어동허라
 - B 이어허난 어허어 눈물이 난다
 - A 이어렛 말 말아니 허라
 - B 말앙 가민 놈(남)이나 웃나
 - A 말앙 가민 놈(남)이나 웃나
 - B 어멍 시민 웃반반 입나
 - A 모른 질랑 모르헿 허멍
 - B 아방 시민 신반반 신나
 - A 모른 질은 어허어 물으멍 가라
 - B 다슴어멍(계모) 개년의 딸년
 - A 가건 가렌 에헤에 보내여두언
 - B 나 눈물은 나반반이여
 - A 올 만허난 지드리더라⁴⁰⁾
- [예요] 보리훅는노래⁴¹⁾
 - A 보릿 덴 보난 모디(마디)나 물러져

39)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9, 발매는노래(쯔른사대)

40)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4, 맺들질노래

41)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6, 보리훅는노래

B 좁아 농젠 흥난 드락드락 손이 흥게
 A 짓인 때 보린 묶은 보리어
 B 비 오람직 흥난에 즈꿏디로 묶엇주
 A 밍은 흥민 튼 내가 날로구나
 B 배 고프민 트고 아니 트고 먹나
 A 노리롱 꺾직 홀로구나
 B 시장에 반찬으로 먹어나진다
 A 요 내 인사 멏나일러렌(나이가 몇일런가)
 B 요 내 진정 버칠소나
 A 요 내 일사 버칠말가
 B 어허야 두리여 산이로고나
 A 나 소리랑 산 넘영 가라
 B 산도 물도 지 넘지 말앙
 A 산도 넘고 지 넘지 말앙
 B 요 집 올래 지 넘영들라
 A 즈께(가까운) 사름 듣기나 좋게
 B 어마 진정 버칠말가
 A 먼 데 사름 듣기도 좋다
 B 보리 꺾도 안아나 불라
 A 즈께 사름 구경도 좋다

- ‘바라보기’에 의한 차단구조의 문화적 의미는 우리 삶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압축하는 언어형식으로, 이러한 차단 효과는 고된 노동에서 민요를 노래하는 힘이 되어, 그 구조는 큰 힘을 가진 문화적 양식으로 발달.⁴²⁾
- 김영돈은 노동의 에너지를 통한 삶의 고통과 극복을 강조하고, 스스로 절대 까무러치거나 꺼지지 않는 불굴의 정신인 자강불패(自彊不敗)를 강조함.

42) 김대행, 「제주민요의 차단구조와 그 문화적 의미」, 『민요론집』 제3호, 제주:민요학회, 1994.

- 조영배는 제주도 민속음악의 마적기능을 강조하며, 신접의 기능, 신비력의 기능, 치병제의 기능, 정화의 기능을 들고 있음, 특히 ‘홍생이소리’, ‘망건소리’, ‘팔자노래’에는 정화의 기능이 강하고, 감정 환기의 분위기를 창출하여 심적인 정화를 얻는다고 봄.⁴³⁾

5) 역설의 방식으로 제주민의 염세적 삶의 철학 표출

- 민간의 공동 정서가 구전되면서 개인의 서정적 자아를 표출함, 특히 제주민의 염세적 삶의 정서는 구체적인 가시화를 통해 표출되고, 한편 역설적으로 의미를 강화하고 노래로 극복하는 방식을 취함.(‘맷돌방아노래’, ‘김매는노래’)
- [예요] ‘김매는노래’
 - ▶ 나 소리랑 산 넘어 가라, 나 소리랑 물 넘어 가라, 물도 산도 지 넘지 말앙, 요 집 올레 지 넘어 가라⁴⁴⁾
- [예요] ‘맷돌·방아노래’
 - ▶ 이어방애 그들베지영(부지런히 짚어서) 즈낙(저녁)이나 붉은(밝은) 제(때) 흐저, 본데(본래) 즈낙 어둑는(어두운) 집에, 오늘이엿(오늘이라고) 붉어나(밝았는가) 훗다, 집 세거리 이신(있는) 놈은 사랑 깐(칸)이나 잇건마는, 각시 세 개 헤인(한) 놈은 아적(아침) 조반도 굶아사(굶어야) 훗다⁴⁵⁾
 - ▶ 간간(간간이) 놀젠(놀려고) 놈의 첩 드난 소린 나곡(나도) 사를(살) 매(바) 엇나(없다), 강남 득(닭)은 목소리 좋앙 소남(소나무)에 앓앙, 조선국도 지울렘더라(기울이더라), 득은 울민 날이나 샌다, 내사(내야) 울영 어느 날 새리⁴⁶⁾
- 윤치부는 제주민요에 낙원 상실의 모티프가 반영되고 있다고 봄, 제주는 고려와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용해 당대의 통치 원리가 굴절, 확인되는 변방으로

43)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의 마적기능」, 『한국민속학』 제20호, 서울:민속학회, 1987.

44)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5, 밭매는노래(진사대)

45)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5, 방아짚는노래(남방에소리)

46) 한국민요대전 제주도편 7, 방아짚는노래

지배계급의 폭력, 처첩의 가족제도 및 조혼제도는 참혹한 생활을 파생함.

- 또한 자연 환경적으로 사나운 비바람이나 흉년, 운명적인 생활의 공간인 바다, 절해고도 변방이라는 정치, 사회적 의미로 낙원 상실의 지역이며, 또 당 오백 절 오백 임에도 종교적 윤리의 타락은 낙원 상실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봄.⁴⁷⁾

4. 결어

- 제주민요에는 제주섬의 자연 · 역사 · 사회의 산물로 구전 당시의 시대상이 잘 반영되고 있음.
- 그동안 진행된 선학들의 연구 및 본 연구에서 끌어낼 수 있던 관련 주제어 정리를 통해 문화사적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봄.
 - ▶ 환해천험(環海天險)의 섬, 지척민빈(地瘠民貧)의 삶,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유배지, 가렴주구(苛斂誅求),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업을 위한 노동, 여인들의 애환(哀歡)인 자탄(自嘆) 원망(怨望) 상사(想思) 연모(戀慕) 처첩 갈등, 자연합일(自然合一), 신앙(信仰), 육지동경(陸地憧憬), 인생무상(人生無常), 자강불패(自彊不敗) 자강불식(自彊不息), 근면(勤勉), 현실인식(現實認識), 자주(自主), 자립(自立), 수분(守分), 정화(靜和)
 - ▶ 전근대적 생산 경제, 노동요, 여성공동체, 폐쇄성(공간 인식), 염세적(낙원 상실), 서정성(자아 지향), 다양성(주제, 창법), 원시성(자연, 신, 동물과 소통), 카타르시스(역설, 해학, 해방)
- 사람이 살아가는 데 악조건인 자연환경, 불합리한 사회, 고난의 역사를 배경으로 노동하는 과정에서 부른 제주민요는 지극(至極)한 자강불식 의지로 지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이며, 또한 원시적 성격이 강하고 감정을 정화하는 효용성이 있음.

47) 윤치부, 「제주민요의 낙원 상실의 모티브」,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제주문화, 1992.

18세기 제주문인 정체성의 일단

: 장한철 『표해록』의 경우

정 환 국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1. 프롤로그: 제주 고전문학 연구의 視座
2. 18세기 제주문인 張漢喆과 『漂海錄』
3. 장한철의 표류 체험으로 구현된 제주/제주인과 외부세계
4. 제주지식인으로서의 면모와 그 정체성의 일단

1. 프롤로그: 제주 고전문학 연구의 視座

인조 효종 연간의 제주인 金福壽는 안남에 표착했다가 일본을 거쳐 생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 가운데 하나인 <오돌또기>는 그가 안남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로 전승되고 있다. 이런 그의 이야기는 제주 지역의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¹⁾ 이 전승담에는 김복수의 표류와 생환, 그리고 회한의 정서가 깊게 배어 있어, 과거 제주인의 현실을 응축한 사례 중에 하나라 하겠다. 睦萬中(1723~1810)도 그를 주목하여 「金福壽傳」(1793년경)을 지은 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주에서 전승되는 양상과는 판이하다. 표류인 김복수를 안남을 교화하고 서학을 배척한, 다시 말해 조선유교를 해외에 이식시킨 주체로 추켜 올린 것이다. 그 시선은 ‘저 바다 밖 변방의 표류자’가 조선 유교의 침병 역할을 했으며 기특해 한다. 필자는 이 사례를 두고 김복수의 실제적인 면모를 추인한 것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존재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운바 있다.²⁾ 요컨대 제주

1) 진성기 편저, 『남국의 전설』(「오돌또기와 김복수」, 일지사, 1968, 252~255면. 1956년 채록)과 이석범, 『제주전설집2』(「오돌또기」, 제주문화원, 2012, 269~277면) 등.

2) 정환국, 「조작되는 하위/하위주체들-황재 소재 표류서사의 변이양상과 하위주체의 성격」, 『민족문학사연구』 68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 152~156면.

에서 전승되는 김복수와 육지인, 특히 조선후기 사대부의 시선에 포착된 김복수는 전혀 별개의 인물이 되고 말았다.

물론 한 인물이 후대에 다양한 버전으로 확장되거나 활용되는 점 자체는 흥미로운 사안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에 벗어난 과도한 방향으로 변용되는 것은 자칫 그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사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런데 목만중이 김복수를 입전한 과정을 보면 다소 환기할 점도 없지 않다. 작품의 끝에 붙인 史評에, 처음 제주 출신의 장령 邊景祐(1745~1836)가 김복수 이야기를 姜浚欽(1768~1833)에게 들려주었고, 강준흠이 記로 남겨 보여준 것을 목만중은 다시 입전했다는 정보가 들어 있다.³⁾ 목만중과 강준흠은 同派로 서학을 배척하는 공서파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미 강준흠의 기문에서 이미 어느 정도 변형된 김복수를 재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⁴⁾

그렇다면 처음 변경우가 강준흠에게 김복수 사적을 어떻게 들려주었을까 하는 의문도 남는다. 참고로 실록의 의하면, 변경우는 1793년 장령에 제수되었고, 같은 해에 제주 백성의 고충과 폐단을 진언하는가 하면, 1795년에는 제주에 社倉을 설치하여 구휼할 것을 청하는 등 남다른 애향심을 보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김복수 이야기를 강준흠에게 들려줄 때 어느 정도 윤색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안남국을 유자의 나라로 재탄생시키고, 나가사키에서 서학 철폐를 고취하는 정도까지 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⁵⁾ 결과적으로 「김복수전」은 자신의 당파적 입장 같은 육지인의 일

3) 목만중, 「金福壽傳」(『餘窩集』 권16). “野史氏曰(…)姜君浚欽, 得其事於耽羅人掌令邊景祐, 記以示余, 余讀之而歎曰(…)遂就而略刪爲傳.” 참고로 이 점은 이미 안대회, 「여와 목만중의 표류인 전기 「김복수전」 연구」(『한국문화』 37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에서 언급된 바 있다.

4) 이 記는 따로 남아 있지 않다.

5) 참고로,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동경대 소장 『耽羅志』에는 제주 전설담에는 없는 화소인 구라과 사신을 만난 부분이 들어 있다. 하지만 견문과 체험의 요소이지 구라과나 서학에 대한 김복수의 반응은 드러나 있지 않다. “州人金福壽, 漂到安南國, 同船者皆死, 不能獨還, 居數年. 有琉球林女春香者漂來, 與之同居, 生三子三女. 後隨日本使行, 入大板(阪)城, 同館有仇羅(婆)國使者, 形貌極怪, 削鬚髮, 跣足露, 頭着氍毹周衣, 坐則下體盡露, 亦不爲恥. 有方書十二卷, 其俗不尚儒術, 別立門戶, 名之曰伎利, 又曰偈關. 關伯聞之, 遣使求其法, 故來聘云. 又逢琉球使者, 其中林春榮, 卽春香之弟也, 邂逅相逢, 得傳其妹消息. 竣事後發船, 復路出大洋, 遙見漢拏山, 遂出還鄉之計, 瞞告同船人曰: ‘故國尙遠, 甘水將竭, 今幸大陸在邇, 請汲水而來.’ 乘小艇, 脫身而歸至老死.”

방적인 시선에 의하여 상당 부분 조작된 사례일 터다.

이 「김복수전」을 장황하게 거론한 것은 모종의 중심이 제주, 또는 제주인을 표상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소한 18세기까지 제주와 제주인의 모습은 (육지의) 텍스트를 지배한 주체들에 의해 철저하게 대상화되어 왔다. 그 흔적을 고전문학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물론 그 시선은 마냥 일방향이지만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적지 않은 오해와 곡해가 점철되기 마련이다.⁶⁾

그러나 제주 자체로는 역사와 문화를 축적하며, 주체적인 삶의 자취를 따라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공유해 왔다. 이 명백한 결과물은 전설과 민담, 무가와 민요로 꾸준히 전승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제주 안팎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이 내부에서 생산된 작품들과 타자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작품들이 제주 고전문학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에 따른 연구도 자체의 독자성을 강조하거나 타자에 의해 조정된, '역외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이나 시각이 아직까지 교차되거나 정합된 사례도 없는 것 같다. 이것이 필자가 판단하는 제주 고전문학 연구에 있어서 현상이자 난제이다.

그런데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한국 고전문학에서 제주 고전문학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쪽은 독자성을, 또 한쪽은 역외성을 강조하다보니 제주 관련 고전문학은 별개의 것 인양 치부되고 있다. 당연히 제주 고전문학은 한국고전문학의 다양성(또는 다종성)과 입체성을 구현하는 중요 자료가 되어야 한다. 하나의 판 영역이 아닌 한국고전문학의 주요 범주로 상정되어 그 확장성에 관심이 두어져야겠다. 제주 고전문학이 한국고전문학의 교집합 안에서 정합적으로 작동된다면 양자는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 고전문학 연구에서 제주 고전문학은 중요하다. 어쩌면 이 분야 연구의 풍토를 근본적

不忘林女，有時登高號哭云。”(『耽羅志』·「邊情(戰守·異船·漂流)」조)

6) 첨언하자면 이는 고전문학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이자 위험성이라 하겠다. 텍스트 주체인 사대부 지식인들은 지역과 인물, 신분과 환경에 따라 이를 곧잘 자신들의 입장에서 재단함으로써 그 실상을 대상화하고 자기화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자칫 한국고전문학이 불공정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으로 고전문학 연구는 이런 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때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최근 제주 출신 문인들의 저작들이 소개되면서 제주민요나 무가 같은 집단적 창작물과는 결을 달리하는 의식세계의 일단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육지 문인들의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다뤄볼 여지가 생겼다. 제주와 의주에 특설했던 陞補試는 제주지식인들이 중앙과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였다. 급제자들은 出六을 하는 등 중앙정계와 지방관을 수행하면서 애향심을 드러내거나 제주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했다. 제주 출신이지만 일반 제주 백성과는 구별되고, 육지 지식인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던 이들 제주문인들의 의식세계는 그 자체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의식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집이나 관련 자료는 남아 있는 게 많지 않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에 문집을 남긴 문사로는 1790년대에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장령 등을 역임한 邊景鵬(?~?)이다.⁷⁾ 그 외에는 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까지 활약한 문인들의 문집이 대부분이다.

마침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張漢喆(1744~?)은 변경봉보다 10년 먼저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장한철은 따로 문집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그의 표류 체험을 『표해록』으로 남겼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다른 표해록과는 달리 그의 내면과 제주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대단히 풍부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8세기 후반 제주(문)인의 의식세계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2. 18세기 제주문인 張漢喆과 『漂海錄』

장한철은 1770년 가을 제주 향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뒤 마을 어른들의 주선과 세음의 관가에서 마련해준 여비로 곧장 회시를 치르기 위해 상경길에 나섰다. 그러나 그 길에 표류하여 생사를 넘나들다 생환한 끝에 남긴 기록물이 『표해록』이다. 이후

7) 김새미오, 「『일재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0집, 영주어문학회, 2010.

1774년 제주 승보시에 다시 합격하고 1775년 문과 별시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지금까지 확인된 그의 관력은 1775년 6월 假注書, 1777년 8월 성균관 學諭, 1779년 2월 學錄, 6월 學正, 7월 성균박사, 1780년 6월 典籍, 12월 이조의 假郎廳, 1781년 6월 상운찰방, 1783년 흡곡현감, 1787년 대정현감, 1792년 平市署主簿를 역임하였다. 특히 상운찰방으로 있을 때 驛弊를 진달하여 정조로부터 ‘먼 지방 출신으로 관의 일을 힘껏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치적으로 흡곡현감으로 승진된바 있으며,⁸⁾ 대정현감으로 있을 때는 당시 유배인 金宇鎭이 출륙한 것을 막지 못한 죄로 의금부에 압송되어 투옥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런데 약 3개월 만에 풀려나 平市署 주부로 서용된 사실이 확인되며,⁹⁾ 이후의 사적은 보이지 않는다.¹⁰⁾ 따라서 그의 만년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부침이 있었던 그의 관력이지만 조선시대 제주 출신 인사로는 그때까지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장한철의 정계 진출은 선도적인 의미가 있다.¹¹⁾ 공교롭게도 그를 이어 약 10년 뒤에 대정 출신으로 변경우와 변경봉이 연이어 과거에 합격하여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활약하게 된다. 특히 변경우는 1790년대에 사헌부 掌書 등을 지내 장한철보다 높은 품직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 변경우와 변경봉은 육촌간으로 대정의 유력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다.

이에 반해 장한철은 제주에서 그리 유망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다. 그의 6대조인 張一就가 入島祖인바 애월에 정착한 시점이 17세기 쯤인 데다 증조 揚蘇, 조부 善逸, 부친 次房 등은 과거에 입격한 예가 없다.¹²⁾ 더구나 부친 차방은 일찍 세상을 떠 장

8)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11월 10일조. “敎曰: 祥雲察訪張漢喆, 家在絕域, 視官如家, 事事殫竭, 聲績如許. 似此之人, 尤合獎勵, 今日政道內守令窠調用, 該察訪有關代, 各別擇差, 亦令待明朝辭朝.”

9) 이 시점이 1789년 6월경이다. 여기까지의 관력 사항은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 등을 참조했다.

10) 『표해록』을 한문단편으로 재구한 『기리총화』 제25화 「張漢喆漂海錄」의 제목 아래에 “漢喆濟州人, 官至高城郡守”라는 주가 달려 있다. 고성군수를 지냈다는 것인데, 실제 고성군수를 지냈는지 아니면 상운찰방이나 흡곡현감을 지낸 관력을 이렇게 잘못 표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장한철의 후손이 강원도에 살았다는 전언도 있고 보면 이 기록도 마냥 무시할 순 없어 보인다.

11) 같은 애월 출신으로 姜鳳瑞(1746~1823)도 장한철과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하여 1793년에는 장령을 지낸 바 있긴 하나, 장한철보다는 관력이 낮은 편이다.

74 제주 고전문학, 그 자료와 시각

한철은 仲父인 雙梧堂 張重房에게 양육되었다. 『표해록』에서 장한철은 이런 중부의 은혜에 보답할 길을 찾느라 밤늦도록 공부를 했다고 회고한다.¹³⁾ 그 결과로 1770년 가을 제주 향시에서 수석을 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쌍오당 밑에서 글공부를 한 것인데, 쌍오당도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주도의 양반제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달랐다고 한다. 즉 幼學이나 儒生 등 과업을 일삼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주로 평민층이 담당해 왔던 좌수나 별감, 훈장 등의 자리도 양반이 맡아왔기에 제주도는 두 층위의 양반이 있었다.¹⁴⁾ 그렇다면 장한철의 집안은 후자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다. 비슷한 시기 대정의 변경우, 변경봉 집안과는 제주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더구나 그는 부친도 일찍 작고한 터라 녹록한 상황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그가 『표해록』을 정리한 시점, 즉 그의 의식세계가 드러나는 텍스트를 구현한 것은 나이 26세 때였다. 이런 정황은 장한철의 제주문인으로서의 현실을 확인하는데 환기할 지점들이다.

한편 『표해록』은 1770년 12월 25일 출항한 당일에 표류를 시작하여 이듬해 1월 6일 청산도에 도착한 이후 5월 8일 제주로 귀향하기까지의 기록이다. 굳이 3월 3일 서울에 올라가 회시에 낙방한 일과 제주에 돌아온 뒤 불귀의 객이 된 이들을 일일이 찾아 조문하는 등 표류 이후의 행적까지 챙긴 셈이다. 그리고 그 달 하순에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¹⁵⁾ 표류 경험이 당장 정리된 사례다. 물론 그는 이미 虎山島에 1차 표착했을 때부터 자신의 표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셈이다.

실제 이 『표해록』은 그가 5년 뒤 정계에 진입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문필력을 과시하는 도구가 된 것으로 보인다. 1781년 그는 상운찰방으로 있을 때 조정에 입

12) 제주 과거 합격자를 기록한 『耽羅賓興錄』이나 『龍榜錄』은 물론, 제주 향시 합격자 기록인 『蓮榜錄』에도 이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장한철의 가계는 장한철 지음 김지홍 옮김, 『표해록』(지만지클래식, 2009)의 「해설」 부분을 일부 참조했다.

13) 『표해록』 12월 26일조. “(…)蓋雙梧仲父堂號也. 噫! 余幼而孤, 養於雙梧堂膝下, 鍾愛甚篤, 有鄧伯道存兄兒之風, 則余之所宜仰報者, 顧何如, 而至恩未報, 脩夜隔紙.” 자료는 친필본으로 알려진 국립제주박물관 소장본을 기준으로 한다.

14) 조성윤,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 『사회와 역사』 27집, 한국사회사학회, 1991, 185~195면.

15) 『표해록』 필사기. “歲舍辛卯之仲夏下澣, 鹿潭居士識.”

시하여 국왕을 접견할 기회가 있었다.

상운찰방 장한철이 임금을 알현하였다. 임금이 “도정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낭청으로 있었지.”라고 하자, 서명선이 아뢰었다. “이 사람은 제주에 살고 있는데 글을 잘 짓습니다. 그의 『표해록』을 보니 제법 볼만하였습니다.” 임금이 물었다. “어느 곳으로 표류를 했더냐?” 장한철이 아뢰었다. “표류하여 안남국이 이르렀는데 그 중에는 대명 유민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¹⁶⁾

임금은 그가 낭청으로 있을 때를 기억했고, 당시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던 영의정 徐命善(1728~1791)은 그가 제주 출신이며 글을 잘하는 인물로 평가하면서, 그의 『표해록』을 직접 읽은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국정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서명선이 이 책을 보았으니 다른 조정의 신료들도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것은 장한철은 서울에 올라올 때 이 『표해록』을 가지고 왔고, 이 책은 알게 모르게 자신을 피력하는 재료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어 정조는 장한철에게 어느 곳을 표류했는지 물었는데, 그 답이 좀 이상하다. 표류하여 안남국에 이르렀고, 거기에는 대명 유민도 있어서 조선 사람인 자기 일행을 잘 대접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차이가 있다. 아마도 베트남 국적의 상선에 구출된 정황을 이렇게 말한 것인데, 여기에 林遵 일행과의 조우를 대명 유민의 환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이 유자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한 점을 피알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

이 점과 연관된 제주 전승 이야기도 있다. 장한철이 과거를 보러 가서 이 표류기를 국왕에게 보이고, 국왕은 이를 가상히 여겨 대정현감에 제수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¹⁷⁾ 물론 실상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장한철과 『표해록』은 불가분의 관

16) 『승정원일기』 1781년 11월 5일(계묘)조. “祥雲察訪張漢喆進伏, 上曰: ‘都政時, 此人爲郎廳矣.’ 命善曰: ‘此人居在濟州, 能善文, 而見其漂海錄, 則頗有可觀矣.’ 上曰: ‘漂到何處乎?’ 漢喆曰: ‘漂至安南國, 而其中有大明遺民子孫, 聞朝鮮人來到, 皆欣迎矣.’”

17)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탐라문화연구소, 1985, 373~374면. “장한철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잇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우리국을 떠나려가서 자꾸 표류기를 일기를

계이며, 이 저작이 그의 관직 진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 있다 하겠다. 아무튼 이 『표해록』은 장한철의 역량을 과시하는데 직간접적인 효과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당시 육지 인사들에게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던지, 兪晩柱(1755~1788)는 앞서 서명선이 국왕에게 『표해록』의 존재를 보고한 그 해에 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일기 『欽英』 신축년(1781) 6월 초4일조에 “見耽羅張氏庚寅漂海錄(一冊)”이라 하고, 이어서 이 책을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좀 편안해졌다는 감회를 적고 있다.¹⁸⁾ 유만주는 이를 뒤에도 계속 읽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책에 나오는 다섯 가지 신기한 장관으로 신기루와 고래 및 용오름, 쌍진주와 林邊의 상선을 들고 있다.¹⁹⁾ 이처럼 한 서울 士人에게 이 책은 사생의 문제를 음미하고, 바다 위의 장관과 사건을 경험하게 한 흥미로운 텍스트로 수용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미 알려져 있듯이 『표해록』은 19세기 전반 李玄綺(1796~1846)의 『기리총화』와 『청구야담』 등에서 한문단편으로 각색되기에 이른다.²⁰⁾ 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듯이 한문단편 중에는 기존의 문집 등에서 전래된 이야기가 적지 않으나 이처럼 실기 한 편이 이른 시점에 전래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표해록』이 당대에 관심을 끈 데는 장한철의 표류 체험이 상당히 강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표류 기록과는 달리 그 소재와 구성 등에서 서사적인 흥미를 끌 만한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도 일부분 지적되었지만,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인이 표류한 기록은 많지만 제주인이 직접 경험한 표류기록을 작품으로 남긴 사례로는 이것이 유일하며, 따라서 육지인

죽었다고.(…)당도해서 이제 목숨을 살아서 그땀해 또 서월 과거를 보레 갓넨 말여. 대정현감을 벌레 가니까, 그 표류기를 베왔넨 말여 표류기를 배우니, 아 이왕께서 ‘아 직깎지는 우리나라에 이 표류기를 따까서 내안티 배와 본 백성은 허나도 읍다 허나도 읍는디 너 소원이 뭐냐?’ 하니 ‘내 대정현감 허나 소원입니다.’고.”

18) 유만주, 『欽英』 신축부(1781년) 6월 초4일조. “死生命也, 苟其命不宜死, 則雖萬難千危, 無一可生, 而終竟不死. 觀乎此, 則可以夷曠於死生之際矣.”

19) 유만주, 같은 책, 6월 초6일조. “漂海之錄, 環觀有五, 蜃樓也, 鯨魚也, 升龍也, 異珠也, 林舶也.”

20) 특히 처음 한문단편화 된 『기리총화』(임형택소장본)에는 제목이 ‘張漢詰漂海錄’이라고 하여 『표해록』을 그대로 가져와 재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청구야담』에는 3인칭으로 처리한 것에 반해 여기서는 1인칭 시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남긴 표해록과는 그 심상이 상당히 다르다. 둘째, 이 작품은 표류와 항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가 수렴되었다. 즉 뱃사람들의 습속, 신기루와 용오름, 해산물 횡재, 해적과의 조우, 무역선예의 구조 등등이 요소요소에 배합되어 흥미를 제고한다. 자칫 작위적이란 느낌이 들 만큼 번번하다. 셋째, 다른 표해록류에서 잘 볼 수 없는 저자의 내면심리와 승선한 이들과의 갈등 등 船内の 서사가 다채롭다. 넷째, 꿈이나 복선에 해당되는 소재를 적절히 배치하여 문학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 점은 이를 이야기화 한 『기리총화』와 『청구야담』의 작품과 비교되는 부분인데, 작자의 내면심리나 선상의 갈등, 그리고 상기한 문학적 요소들이 사건 위주로 구성되면서 대부분 탈락해 버렸다. 최근 연구에서 이 한문단편화를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였으나,²¹⁾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단순화시켜 그 진면목을 상실한 쪽이 한문단편이다. 단언하건대 이 『표해록』은 최부의 『표해록』의 전통을 이은 것이지만, 다른 표해록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18세기 한국 실기문학의 정수라 할 만하다. 그것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제주 문인의 의식세계로 구성되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3. 장한철의 표류 체험에 구현된 제주/제주인과 외부세계

장한철은 표류체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자의식의 심연을 극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확인된다. 표류하는 배 안에서 동승자들과의 갈등과 화해의 흥미로운 과정이 그 하나이다. 기실 표해록 중에 이 자료만큼 선상에서의 사건을 다룬 것도 없거니와, 그런 속에서 장한철의 내적 번민도 과감 없이 드러나 있다. 다른 하나는 배 밖, 즉 외부세계(또는 외부인)와의 조우이다. 안남 국적의 상선을 만나 1차 구출되고, 청산도에 표착함으로써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 다른 세계와 접촉하게 되면서 장한철의 대응의 면모와 자의식의 일단이 또다른 층위로 구현되어 있다.

21) 정술미, 「장한철 『표해록』의 야담적 전이 양상-『기리총화』와 『청구야담』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7호, 민족문화사학회, 2018.

1) 선상 갈등과 ‘제주사람들’

애초 장한철은 제주 출신임에도 항해의 경험이 전무 했던 것 같다. 그는 승선한 직후 지나치는 화탈도(관탈섬)를 보고 저곳에 사람이 사는지 제주와 육지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묻기 바쁘다. 그런데 이것부터가 화근이었다. 사공이 화난 것을 본 노잡이 高得成은 ‘배에서는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켜도, 바다 위에서는 길의 멀고 가까움을 물어서도 안 된다’는 뱃사람들의 俗忌를 알려준다.²²⁾ 장한철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이번에는 큰 고래가 나타나 배를 삼킬 듯 덤벼들었다.

뱃사람들은 모두 질린 낫빛으로 배 안에 엎드려 고래와 마주치지 않으려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외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윽고 고래가 지나가 이미 멀어지자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도 안정되었다. 나는 뱃사람들을 질책하였다. “소리 내거나 기척이지 않아 저것이 배가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게 옳지 관세음 소리는 무엇 하러 내는가? 저것이 도를 닦는 중도 아니거든, 어찌 관음불이 존귀함을 안다고? 설령 관세음의 남은 영혼이 있다하더라도 어찌 저것을 욕아매 우리 배를 지켜주겠는가? 자네들은 관음에게 비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뱃사람들은 그래도 내 말이 그렇지 않다 하며 저들끼리 속삭였다. “배안에서의 일은 당연히 뱃사람에게 맡겨 뉘야지 어찌 저이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저러지?”²³⁾

뱃사람들이 생사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외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아주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문화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관음신앙이다.²⁴⁾ 그런데 장한철은 이런 뱃사람들의 전통을 완전히 뒤집으려 한다. 관음에게

22) 『표해록』 12월 25일조. “余以手指點曰(…)沙工目余而不答, 如有所欲言而不發, 高得成在旁, 密謂曰: ‘舟中本不舉手指點, 海上不問前路遠近者, 俗忌卽然, 不可不知也.’”

23) 『표해록』 12월 25일조. “舟人皆失色, 俯伏於船中, 欲其不相見, 而猶誦觀音菩薩之聲, 不絕於口. 頃之, 鯨去已遠, 波靜舟平, 余責舟人曰: ‘屏息聲氣, 使彼物不知有舟船, 則可也, 而觀音之聲, 何爲而發也? 彼物非修道之僧, 豈知尊觀音之佛? 觀音之殘魂餘靈, 亦豈能鞶羈彼物擁護此船耶? 備於觀音, 抑何所祝?’ 舟人猶以余言爲不然, 而密相語曰: ‘船上之事, 固當付之於舟人, 何如彼自多知識耶?’” 이하 번역은 김지홍 옮김, 앞의 책을 참조했으되 필자가 대폭 조정하였다.

24) 그 사례가 초기 동아시아 표류담에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환국, 「동아시아 漂流敘事 서설」, 『대동문화연구』 100집, 대동문화원구원, 2017 참조.

빌어서 무슨 득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제주인 장한철이 뱃사람들의 습속을 아예 모르고 있었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유자로서의 의도적인 상황 논리이든 그렇지 않은 지금 그는 뱃사람들의 생리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말대로 뱃일은 뱃사람들에게 맡겨야 하지 지식분자가 나설 건 아니었다. 이런 싸늘한 갈등 국면엔 문인 장한철이 바다의 금기와 생리에 대한 도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항해 첫날 폭풍우에 휘말려 표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사실 선장격인 사공 李昌成을 비롯해 동선한 누구도 지금까지 표류를 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다. 당연히 뱃사람들은 표류가 되면 죽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여겼을 터다. 실제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장한철은 자신의 식견을 총동원하여 이들을 피기 시작한다. 바람과 방향에 따라 중국이나 유구 등 육지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 것이었다. 이런 생환의 기대로 뱃사람들은 점차 장한철을 의지하고 따르기 시작한다. 배에서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장한철은 둘러대는 것이었을 뿐 정작 자신도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과 이들 사이의 괴리가 엄연함을 실감해야 했다.²⁵⁾ 그러다보니 걸핏하면 뱃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²⁶⁾

표류가 지속되자 이들 사이의 갈등은 재현되곤 하였다. 이를테면 비바람이 몰아치자 물통에 물을 받는 일을 두고, 제주 상인 金才完은 ‘용궁에 샘물이 있을 텐데 꼭 빗물을 가져가야하나’ 하면서 악담을 하는 식이다. 그런 김재완을 두고 장한철은 사납고 흥포한 존재라며 아예 대화할 상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²⁷⁾ 더구나 이번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金瑞一마저도 악다구니를 펴 붙는다. 水疾에 쓰러져 있던 김서일은

25) 『표해록』 12월 26일조. “蓋余所以百道誘引，使自慰安者，欲使舟人宣力於卸水救船，而亦不欲見衆人哭泣之景色也。其爲苦心焦思，殫盡心力，則非衆人之所知也。衆人則見欺於余，而知有可生之路，故不甚用心，惟祝天而祈活性命，或誦觀音菩薩，以祈神佑。”

26) 『표해록』 12월 25일조. “(…)有此設詭而慰解之，然而隨風漂流之船，安知其必泊於外煙乎？且維楫盡失傾覆可慮，安得以涉萬里之海，泊中土之岸乎？舟人皆愚昧，見欺於我，船上執役，惟命是從。”

27) 『표해록』 12월 26일조. “余於昨夜風雨之時，問知水桶所儲不多，欲使舟人承雨，而貯之水桶，則金才素冥頑者也，乃曰：‘龍宮之廚，自有甘泉，何必賚雨而入去耶？’語道極凶，故不欲多提辭說(…)。”

자신에게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이었다.

“집사는 일찍이 ‘남아가 이 섬에 사는 건 가마솔의 물고기 신세와 다를 바 없으니, 어찌하면 태서인의 40리 길이의 종려선을 타고 사해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장관들을 볼 수 있을까. 내 평소 소원이 이러하네.’라고 하더니, 지금 다행히 일엽편주를 타서 만리창과에 떠다니니 흥취는 어떻고 원하는 바는 이미 퍼졌소?”(...)김생이 순간 나와 등을 지며 드러누워서는 “내 아들 손자들과 자네 아들 손자들과는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거야.”라고 하였다.²⁸⁾

언젠가 장한철은 김서일에게 솔에 들어있는 물고기 신세인 제주출신의 비애를 공유하며 서양의 종려선을 타고 세계를 주유할 꿈을 공유했던 모양이다. 잠깐이지만 호기로운 그의 모습이 김서일의 이 발화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김서일은 지금 이 작은 배 안에서 표류하고 있으니 지금 어떠냐며 비아냥거린다. 괜히 자신을 꼬드겨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달래보지만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서로 원수 집안이 될 것이라며 악담을 거두지 않는다. 이런 김서일에 대해 장한철은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데, 같은 유자이거나 지금 뱃사람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과 갈등 속에서 불안감을 숨기고 애쓰는 자신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저들과 한 통속이 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럼에도 그를 다독이려 애쓴다.²⁹⁾

실제 장한철은 누구보다도 이 표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비록 자신이 주도하는 표류항해가 이어지고는 있었으나, 호기롭게 출발할 때의 모습은 간데없이 불안과 수심이 교차하는 나약한 표류자의 심리를 작품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³⁰⁾ 심지어 살

28) 『표해록』 12월 26일조. “執事嘗自言, ‘男兒生此島中, 無異釜中之魚, 安得泰西人四十里棕欄船, 周遊四海壯觀天地間耶? 平日所願, 每如是矣.’ 今幸駕一葉之扁舟, 泛萬里之滄波, 興趣如何? 志願已伸乎?(...)金生忽背余而頽臥曰: ‘吾之子子孫孫, 當與君之子子孫孫, 結戴天之讎矣.’”

29) 『표해록』 12월 26일조. “余非木石, 非不摧肝裂腸, 情理罔極, 而所以矯情抑懷, 不示幾微色於人者, 莫非慰衆心而得死力之計也. 然則瑞一之責我無心者, 不知我者也. 余難於爲答, 但笑而答曰: “君不知我心, 自有穩紮心事之日矣.”

30) 그 한두 가지 사례다. “(...)余則明知有必死之理, 雖外作泰然之色, 以自寬抑, 而心地抑塞胸膈, 煩燥頻索水飲. 以至眼花赤如血.”(12월 26일조) “(...)余則高臥舷頭, 耿耿不寐, 撫躬自憐眇然天水間一隻影也. 仍自念命道之險巇, 身世之漂落, 不覺悲淚盈襟.”(12월 27

아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공부를 때려치우고 농사나 지며 가족을 건사하리라 마음먹기도 한다.³¹⁾ 또한 2차 표류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는 괴를 토하며 혼이 나가고 만다. 작년(1769)에 바다에 빠져 죽은 동향의 金振龍과 金萬石이 꿈에 나타나 저승길을 인도하는가 하면, 온갖 기괴한 도깨비들이 눈에 아른거리기도 한다.³²⁾ 완전히 정신을 놓은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 선비 장한철은 점점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게 되자 그 한계상황을 여실히 노출했고, 이를 가감 없이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점차 배 안은 장한철의 유인과 뱃사람들의 협력으로 점차 의기투합하게 된다. 갈등 국면의 조정을 통한 관계회복이라고 할까. 여기에는 장한철이 저들의 생리나 행위를 이해하고 용인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뱃사람들의 정성을 점차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³³⁾ 그 화해는 호산도에서 김재완이 속죄의 뜻을 내보이고,³⁴⁾ 다른 제주 상인 姜才裕는 큰 전복을 바치는 성의³⁵⁾도 한몫했다. 나중에는 김서일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다.³⁶⁾ 이런 조정 과정을 통해 장한철은 (제주)뱃사람들은 새롭게 이해하는 동시에 저들의 삶을 연민의 정을 담아 풀어낸다.

일조)

- 31) 『표해록』 12월 27일조. “(…)若得生還, 則必當拋擲書業, 擺脫外事, 躬耕數畝之山田, 孝養雙梧堂之餘齡, 又使老妻畫紙, 稚子敲針以終, 我一生如此而已. 天壤之間, 夫復何求? 如是思唯, 轉輾不寐, 萬事到心, 千愁滿腔, 自抑而難抑, 欲眠而不眠矣.”
- 32) 『표해록』 정월 6일조. “余聞此言, 驚魂飛越, 不能自定, 欲哭而聲不出, 仍嘔血數掬以昏仆不省, 已住冥途人矣. 濟州人金振龍·金萬石者, 余之同里閭, 而曾於己丑秋漂沒於海中者也. 今於昏倒中, 卽見兩人在前(…)其他魍魎之怪, 千態萬象, 而皆接于眼. 蓋是時神不守舍, 身在幽明間矣.”
- 33) 『표해록』 12월 26일조. “(…)蓋余所以百道誘引, 使自慰安者, 欲使舟人宣力於卸水救船, 而亦不欲見衆人哭泣之景色也. 其爲苦心焦思殫盡心力, 則非衆人之所知也, 衆人則見欺於余, 而知有可生之路, 故不甚用心, 惟祝天而祈活性命, 或誦觀音菩薩, 以祈神佑, 余則明知有必死之理, 雖外作泰然之色, 以自寬抑, 而心地抑塞, 胸膈煩燥, 頻索水飲, 以至眼花赤如血. 鄭寶成披包中, 饋余黃柑五枚, 其他或以橘柚, 或以酒脯, 爭先饋余, 衆人之至誠事我, 則有如是矣.”
- 34) 『표해록』 12월 28일조. “沙工曰: ‘島中若無甘泉, 則勢將坐而待死, 誰能行尋甘泉之所在乎?’ 金才完應聲而出曰: ‘頃於海上, 吾有妄發惡談之罪, 願辦尋泉之功, 以贖妄言之罪.’ 遂治履而將行…”
- 35) 『표해록』 12월 30일조. “(…)日晴, 諸人或往浦口而採鮓, 或登山頭而掘薯, 暮而諸人皆來會, 山菜滿楨, 海錯盈筐, 而姜才裕持大鮓來, 示余曰: ‘此鮓極大, 故欲作鱠以進, 別包持來矣.’”
- 36) 『표해록』 12월 28일조. “(…)而金瑞一亦笑而言曰: ‘吾之此行, 自有佞鬼, 非不欲疾怨於執事, 而每聞執事之言, 則不覺胸襟之開釋矣.’”

아! 뱃사람들의 인역이란 게 배와 노를 집삼아 오랫동안 바다 위에 있으니, 그 일이 지극히 고될 밖에. 하물며 아침에 배 한 척이 표류하면 뱃사람들이 다 죽고, 저녁에 배 한 척이 침몰하면 뱃사람들이 다 죽게 됴라! 이 때문에 뱃사람은 그 뼈를 고향 선선에 묻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탐라 사람들은 뱃일 피하기를 마치 함정과 덧 피하듯 한다. 죄를 지어 교화하기 힘든 백성이 있으면 으레 뱃사람 노역을 맡게 하는데, 이는 사지에 두는 것이라 모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품어 더욱 더 어질지 못한 술수를 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을 이들을 ‘죽일놈’으로 못 박고 만다. 허나 지금 저들의 행실을 보면 본래 그 성품이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화도에서 바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게 대부분 복종하지 않았던 것은 저들이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습속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배가 표류하여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는 성심으로 슬퍼한 것은 나를 따르고자 해서이지 나의 덕이 저들의 악함을 교화한 것이 아니다. 저들의 성품이 본래 착해서, 죽을 때 선한 말을 하는 것이리라. 내 이제 참으로 세상에는 본성이 악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겠다. 무릇 선하고 악한 차이가 있음은 말은 일에 따라 만들어지고 길들어진 차이일 뿐이다. 맹자의 성선설을 나는 여기서 그 실증을 얻었다.³⁷⁾

청산도 서덜에서 배가 난파되고 일부만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뱃사람들이 선비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장한철이 한 발화이다. 뱃일의 고됨과 죽음, 그것은 분명 육지인의 삶과는 다른 것이란 점,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뱃일을 피하려고 하는지, 그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 등을 제주 출신으로 잘 알고 있었던 터다. 그리고 착한 심성의 이들이 고된 뱃일을 통해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류를 통해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까지 끌어온 점이 좀 지나치기는 하지만, 이 뱃사람들에 대한 음미는 저들의 생리와 현실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한 부분이

37) 『표해록』 정월 6일조. “噫! 船人者人役也, 以舟楫爲家, 長在海上, 其爲役也至苦, 而況朝漂一船焉而船人死, 暮沒一船焉而船人死! 是故, 船人之瘞骨故山者, 鮮矣. 而耽羅之人, 避其役, 如避羿罟. 若有作罪犯科難化之民, 則必付役於船人, 置諸死地, 故皆懷必死之心, 益肆不仁之術, 人皆目之以可殺. 而今以此行觀之, 則其性之善, 固自如也. 鷺島逢風之前, 果多不服於余者, 非其心之惡也, 其習使然也. 漂船臨死之時, 則誠心惻怛, 惟余是從者, 非余之德能化其惡也, 以其人性本善, 將死善言而然也. 吾固知世無性惡之人, 而若夫有善有惡之不同, 職由所養所習之有異也. 孟夫子性善之說, 余於是得其實矣.”

라 하겠다. 처음 장한철에게 ‘어리석고 미련하며’ ‘어둡고 사나운 자’ 이던 뱃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연민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 순간 제주 문사 장한철과 제주 뱃사람들은 그 위계를 넘어 그야말로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되었다.³⁸⁾ 이는 다른 표해록에서는 결코 만나볼 수 없는, 오직 이 제주인이 기록한 『표해록』에서만 구현된 면모이다.

2) 외부세계와의 만남과 그 대응

장한철 일행은 유구의 虎山島라는 무인도에 표착하면서 본격적인 외부세계와 접촉하게 된다. 그런데 장한철은 南海의 세계, 다시 말해 한반도가 제외된 동서의 무역라인이 펼쳐진 남쪽 바다에 접어들면서 자신들이 탐라인임을 숨기려한다. 그것은 17세기 초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었다. 이른바 ‘유구세자 살해 사건’이다. 우선 장한철은 이 사건을 신해년(1611) 유구 태자가 제주에 표류해 왔는데 당시 목사가 이들을 모두 죽이고 보물을 탈취한 사건으로 이해한다. 이 때문에 유구와는 화친이 끊어졌고, 유구인은 제주 사람을 보면 복수하려한다는 것이다.³⁹⁾ 그러면서 유구에 표착하면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조선인, 다시 말해 육지인 행세를 해야 한다며 모두에게 호패를 바다에 던져버리도록 한다.⁴⁰⁾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하여 제주 뱃사람이면 대개 알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서는 이 사실을 장한철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설정되어 있다.

38) 이에 앞서 표류 중에 한라산을 발견한 이들이 ‘白鹿’과 ‘洗麻(선문할망)’을 외치면서 울며 환호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그 속에 장한철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주인으로서의 상징성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표해록』 정월 5일조. “平明, 見大山在東北, 乃漢拏山也.(…)漂人輩忽見漢拏之近前, 喜極而不覺放聲號哭曰: ‘哀我父母, 陟彼岵矣.’ ‘哀我妻子, 陟彼岡矣.’ 或起拜向漢拏而祝曰: ‘白鹿仙子, 活我活我! 洗麻仙婆, 活我活我!’ 蓋耽羅之人, 諺傳仙翁騎白鹿, 遊于漢拏之上, 又傳, 遂古之初, 有洗麻姑步涉西海而來, 遊漢拏云, 故今者, 所以祈活於洗麻·白鹿者, 無所控訴而然也. 余亦悲喜弭中, 無以爲喻.”

39) 『표해록』 12월 26일조. “余曰: “在昔琉球與我國通好, 而琉球使臣玉之, 泊舟昇平館, 乃全羅道順天府也. 海路隔遠, 雖不得頻通使价, 前後琉使之至者三, 其二忘其名也. 逮至光海朝辛亥年間, 琉球太子飄船到濟州, 其時牧使誣以寇邊, 火攻殺之, 奪其貨貝. 自此, 琉球絕和云矣. 彼見濟州人, 則豈無復讎之心乎?”

40) 『표해록』 12월 27일조. “(…)舟人所佩號牌, 皆令投之海中者, 到琉球後, 欲諱其耽羅蹤跡也.”

하지만 정작 호산도에 표착했을 때는 ‘南海佛’이라는 해적들에게 호되게 당한다. 장한철은 이 해적을 왜구라고 확정했는데, ‘남양 바다의 부치’라는 이 닉네임은 왜구만이 아니라 중국 남서 해안과 동남아 해양 지역을 통관하는 해적들이다. 대개 다국적, 또는 무국적의 해적집단으로 남양의 무역루트에 출몰하는 존재들이었다. 표류에서의 해적과의 조우는 최부의 『표해록』에서 확인되듯이 어쩌면 통과 의례 중에 하나였다. 다만 18세기에 남해를 주름잡았던 ‘남해불’이란 해적의 존재를 확인한 점은 당대의 표류 체험의 또 다른 국면이다.

그런데 장한철 일행은 이 해적에 이어서 당시 남해의 무역루트를 오가던 무역선과도 조우하게 된다. 이 무역선은 선원 구성과 선체의 규모에서 먼저 흥미를 끈다. 상선의 국적은 안남인데, 林邊 등 중국인도 승선하고 있었다. 즉 대명유민과 베트남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상선이었다. 여기 임준의 실체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자신을 안남에 넘어와 생활한 지 오래된 명나라 유민이라 소개한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과 베트남을 오가며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⁴¹⁾ 그러나 대명유인이라면 이미 선대에 안남으로 내려왔고 그의 집안은 안남에서 상행위를 하며 몇 대를 거쳤을 터 그는 영락없는 華僑인 셈이다. 이 시기 동남아 지역의 화교와 상업 활동의 정황을 이 임준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다만 그가 이 상선의 주인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장한철을 대하는 장면이나 안남 선원들과의 대치 장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상선의 실제적인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상선은 4층의 규모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대외 무역선이었다. 앞에서 장한철이 꿈꿨던 서양의 종려선과 진배없었다.⁴²⁾ 장한철 일행은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남해 바다에서의 무역과 무역선을 표류를 통해 만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중요한 체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앞서 장한철이 염려했던 상황이 난데없이 이 무역선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 구출된 장한철 일행이 일본을 향해 가다가 선상에서 한라산을 보고 환호작약한 게 화

41) 『표해록』 정월 2일조. “(…)答曰: ‘俺大明人, 遷居安南國, 在古矣. 今因販豆, 將往日本.’”

42) 해외 무역선의 규모와 제도를 기록한 것 중에 이렇게 상세하고 현실감 있는 사례도 따로 없다.

곤이었다. 이윽고 배 안에서는 생각지 못한 소요가 일어났다.

곤 임준이 저들과 말을 주고받는 게 보이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얼마 뒤 서로 크게 소리를 치며 싸우려 하였다. 두건을 쓴 임준 등 수십여 명이 한쪽에 둘러섰고, 머리를 깎은 80명도 갈라서서 다른 한쪽에 모여들었다. 저들은 험악하게 굴며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성난 눈으로 고향을 지르며 임준 일행과 한바탕 붙을 기세였다. 임준 일행은 얼굴빛을 누그러뜨리고 저들을 달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렇게 서로 버티는 가운데 정오가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통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저물녘에야 임준이 글을 써서 보여주었다. ‘옛날 탐라의 왕이 안남의 세자를 살해했기에 안남 사람들은 상공이 탐라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칼을 가지고 배를 갈라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었소. 우리가 극구 달래고 달래 겨우 저들 마음을 돌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원수들과는 한 배를 타고 갈 수 없다고 하는구려. 상공과는 여기서 길을 나누어야겠소.’ 세상에 전해지기로 옛날 제주목사가 유구 태자를 죽였다 했는데 그것이 유구 세자가 아니고 안남 세자였단 말인가?⁴³⁾

이 선상에서 벌어진 임준 측과 베트남인들 사이의 살벌한 대치는 다름 아닌 구조한 일행이 탐라인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이 소요를 겪으면서 장한철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제주에서 살해된 이가 유구태자가 아니고 안남태자라는 점을 환인하게 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강제로 하선하여 다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광해군, 인조 시기에 정치적 사안으로 떠오를 만큼 유명했으며, 살해 당사자로 이 시기 제주목사를 지낸 李箕賓이 지목된 바 있다. 또한 후대 문헌에도 이를 두고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거나 조명되기도 했다. 그에 대한 진실 문제를 따지는 연구도 여러 편 제출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1610~1612년 사이 제주에 표착한 황

43) 『표해록』 정월 5일조. “(…)即見林遵與彼人輩, 有酬酢之語, 而不可曉也. 已而, 相與喧噪, 有爭鬪之狀, 而着巾者林遵輩數十餘人, 環立一邊, 削髮者八十人, 亦分倚聚立於一邊, 肆惡高聲, 怒目咆喝, 向林遵輩, 若將鬪鬪者然. 林遵輩則皆有緩頰相誘之色, 而如是相持, 日已過午, 莫知其故也. 至晚, 林遵書示曰: ‘昔耽羅王殺安南世子, 故安南人知相公爲耽羅人, 皆欲手刃其腹, 以報國讐. 俺等萬方勉諭, 僅回其心, 而猶以爲不可與讐人同舟而濟, 相公當自此而分路矣.’ 蓋世傳在昔濟州牧使, 殺琉球太子云者, 非琉球而乃安南世子耶?”

당선과 이를 공격한 두세 가지 사건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허구로 보고 있다.⁴⁴⁾ 이는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져 왔고, 비슷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전설’로 파악하고 있다.⁴⁵⁾ 특히 일본쪽에서는 사츠마에서 베트남 사이의 교린과 상업 활동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문제는 살해된 주체가 태자가 아니었을 뿐이지 이 사건은 분명 일어났다는 점에서 단순한 허구나 전설로만 치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유구 상선이었던 안남, 또는 사츠마 상선이었던 표착한 상선은 제주목사의 명령에 의해 재물을 약탈당하고 살해까지 됨 점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한철이 안남 상선에서 겪은 이 경험은 이 사건을 새롭게 환기시켜 준다. 당시 제주에 표착한 상선에는 유구나 베트남 선원들이 모두 승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시켜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역 세계에서는 유구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 모두 자신들의 상선이 제주에서 피해를 입었고, 선원들은 살해됐다는 식으로 퍼져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를 애꿎게도 무고한 제주민이 뒤집어 쓴 모양새다. 아직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금 남해 공간에서 17세기 이후 제주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었는지는 이렇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는 해금으로 일관했던 조선사회가 해양에 대해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했는지를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어쨌든 장한철이 안남 상선에서 대명 유민 임준을 만난 것도 전혀 뜻밖이었다. 더구나 얼마 전 해적과의 조우에서 기사회생한 터라 그는 은인 중에 은인이었다. 여기 대명유민을 대하는 장한철의 태도가 눈을 끈다.

나는 그가 명나라 사람임을 알고는 절로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써서 말했다. “(...) 이제 만 리 떠도는 물결 위에서 다행히 상공을 만났으니, 이는 사해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일가의 신자(臣子)와 같답니다. 만일 구조해 주어 살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의 일생은 황명의 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을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44) 홍진옥, 「‘유구 세자 살해설’과 김려의 <유구왕세자외전>」, 『대동한문학』 47집, 대동한문학회, 2016.

45) 후지타 아키요시(藤田 明良), 「17世紀初頭の濟州島地方官による「荒唐船」攻撃事件と島津氏の安南通交-『増補耽羅誌』にみる琉球王子殺害事件の實相」(천리대 조선학회 2019년 발표집).

곧 두건을 쓴 그를 보니, 나의 글을 읽으면서 슬퍼 오열하는 뜻이 말과 얼굴빛에 넘쳐났다. 붓을 잡아 점을 찍더니, 또 읽고 그때마다 점을 찍었다.⁴⁶⁾

비록 필담으로 진행된 이들의 대화였지만, 장한철은 표류하는 바다 위에서 대국의 은인을 사해의 동포이자 한 나라의 신자라며 감격한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살아 돌아갈 수 있다면 거듭 再造之恩을 입은 격이라며 애원한다. 임준도 장한철의 정성스런 글을 보고 감격하거니와, 지금 고향을 떠나 바다 위에 난민이 된 장한철과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는 임준은 영락없는 형제이다. 이는 장한철 일행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선에 승선한 뒤에도 이들의 대화는 이어졌는데, 주로 조선의 상황을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었다. 장한철은 유교국가로서의 조선의 면모를 임준에게 각인시켜 주었고, 그 효과는 적지 않았다. 어느 덧 ‘貴國’이니 ‘相公’이니 하며 서로 존대하게 되자, 장한철은 남쪽 바다 오랑캐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감격하기도 한다.⁴⁷⁾ 무질서가 판을 치는 바다 위 선상에서 유교질서가 구현되고 있으며, 섬 지역 한미한 출신의 문사가 일약 예의지방 조선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상하는 순간이다.

이런 장한철의 외부세계와의 대응과 분투는 2차 표착지인 청산도에선 위계가 바뀐 상황으로 전개된다. 청산도에선 반대로 예기치 않은 호의와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島民들의 호의는 말할 것도 없고, 趙氏女와의 하룻밤은 뜻밖에 이루어진 성사였다. 그것은 양반인 장한철에 대한 특전이자 수혜였는데, 뿐만 아니라 제주와 남도의 섬 사이의 모종의 위계를 상정케 한다. 이는 장한철의 시선을 통해 잘 드러나기도 한다. 그는 청산도민이 직면한 현실, 즉 육지인의 횡포와 수탈을 목격하고⁴⁸⁾ 이 고통에 누구

46) 『표해록』 정월 2일조. “余知其人之爲明人也, 不覺涕泣而書曰: ‘(…)今於萬里萍水, 幸逢相公, 非徒四海之兄弟, 同是一家之臣子, 若蒙拯活生還故國, 則惟我一生, 無非皇明之賜也. 不知何處是我死所?’ 卽見着巾者, 讀我書而悲咽之意, 溢於辭色, 援筆點之, 且讀且點.”

47) 『표해록』 정월 4일조. “自此, 彼人之問我文字間, 不曰僑國, 而必稱‘貴國’; 不曰僑們, 而必稱‘相公’. 噫! 我東以禮爲邦, 天下慕之, 雖以余之鄙夷, 猶見敬於蠻貊. 書不云乎, ‘民之秉彝, 好是懿德.’ 信乎! 斯言之不我欺也.”

48) 『표해록』 정월 10일조. “暮時, 忽聞喧闐之聲在街上, 問其故, 主人答曰: “海島遐遠, 王化不霑, 北陸之人入島作弊者, 多矣(…)”

보다도 공명한다. 또한 관리가 이를 직시하고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 보인다.⁴⁹⁾ 그렇지만 제법 분위기가 있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그려낸 조씨녀와의 하룻밤이나 청산도 문사 丁載運과의 만남을 통해 벽지인 저들의 무식함과 문사들의 고루함을 확인하는 장면⁵⁰⁾은 적잖은 불편함을 불러일으킨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현실에 공명하면서도 또 다른 하위를 바라보는 장한철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처음 청산도를 스케치했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와의 거리를 상정하고, 저들의 생활과 시스템을 짚은 것⁵¹⁾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위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투과된 케이스라 하겠다.

이처럼 장한철은 외부세계와 접촉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출신을 숨겨야 했고, 때로는 조선을 대표하거나 또 때로는 다른 하위와의 위계를 구성하는 등 매우 복잡한 발화와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 제주지식인으로서의 면모와 그 정체성의 일단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표해록』의 특징은 표류 과정에서 항해의 경험이 전혀 없는 선비 장한철이 선상을 주도하게 된다는 점이다. 뱃사람들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고, 바다와 지리에 대한 그의 지식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 과정은 사실 매우 낮은 풍경이다. 그는 과거를 치르기 위해 상경하는 일개 선비였다. 더구나 이 배에서 관원 같은 지위도 있지 않았다. 그런데 표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는 이 배의 선장이 되어 갔다.⁵²⁾ 이 어색한 구도가 실상이었는지 하는 여부를 떠나 장한철의 지

49) 『표해록』 정월 10일조. “今此島人，寧失所重之牛，而含憤忍性，不敢與千吏李弁相訟者，可知積威之所約，而可哀者非島人耶？爲邊海守宰者，當譏察諸島，使無是弊也。”

50) 『표해록』 정월 11일조. “有丁載運者，携酒來慰，坐語良久，余問其所業何事，載運曰：‘粗攻翰墨，將欲觀科矣。’然而言語之間，多愚懵之說.(…)蓋島人無識，只知道抄家禮中所載之祝文，而不復知有弔祭文字，故有是問也。自處以文士者，其無知識如此，則它尙何論？”

51) 『표해록』 정월 8일조. “本島在海中，而隸新智島鎮，北距本鎮水路爲百餘里，南距耽羅七百里。島之幅員三十里，居民累百家，山楮而無獸，野清而無雉。水田最沃，海錯亦饒，富兼農利，貧賴海採，地產草席甚美。民俗等級不明，草屋櫛比，男少而女多，漁艇絡繹，朝出而夕返。有屯長一人，檢察一人，主管本島，而規模如鄉里間風憲·約正矣。”

식을 전면에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해록』을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봐 온 소재가 있는가 하면, 작자의 해양과 관련한 지식을 과시함으로써 서적이나 지도 등 다양한 자료가 거론되어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하여 최근 이 저작이 다양한 문헌의 활용과 여러 해양 이미지를 수용하여 성립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⁵³⁾ 확실히 신기루나 고래, 용오름 현상 같은 소재가 불과 10여 일 사이에 다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바다에서의 기이한 현상은 다 배치되었으며, 다른 만남 등도 상당히 극적으로 비춰진다. 이런 점에서 모종의 작위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러 서적과 지도를 활용한 점은 특별히 주목해 볼 사안이다. 후대 표류 서사를 견인한, 고려시대 탐라인 貞一 일행의 표류 사적과 최부의 『표해록』을 인용한 것이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각종 야사나 제주 및 해양과 관련된 지적 도구들은 저자 장한철의 역량을 판단하는데 요긴하다. 무엇보다 이런 그의 해양 관계 지식은 뱃사람들의 생리와 습속들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더 흥미를 끈다.

먼저 장한철은 달의 원리(12월 25일조)나 지남철로 방위를 측정하는 법(12월 26일조 등), 무인도의 생리(12월 28일조),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법(12월 28일조) 등 적지 않은 실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개 바다와 섬에 관련한 것들로, 그가 제주 출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또한 士人이면 으레 하는 점복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루를 점치거나 앞날을 예측하곤 한다. 이는 일반 양반들의 행태이기도 하다. 이 저작에서 다양한 경전(『맹자』, 『장자』, 『시경』 등)과 사서(『사기』, 『고려사』 등)가 활용되고 있음은 꽤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일반 표해록에서는 거의 수용되지 않은 문체, 이를테면 청산도에서 조씨녀와 하룻밤 에피소드에는 傳奇서사의 문체가 농후하며,⁵⁴⁾ 죽은 뱃사람들을 위해 지은 祭文도 수용되어 문학적인 요

52) 『표해록』 12월 26일조. “(…)自此, 舟人皆俯首從命, 凡係指揮, 惟余是望, 卓然作一船中篙師焉.”

53) 강문중, 「장한철 <표해록>의 텍스트 형성 동인 연구」,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3집,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54)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해록』 정월 11일조. “是夜, 余至堂村, 投入女家, 見窓外短牆下, 有一樹梅花, 山月已斜, 花影婆娑, 竚立花下, 以待梅月之出來. 是時, 夜已深,

소가 배가되었다. 이는 장한철의 필력을 확인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렇긴 하나 뱃사람들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이 선상을 주도하게 된 계기는 그의 남다른 서적과 지도를 통한 지식이었다. 처음 노화도 앞바다에서 표류가 시작된 후 배는 남쪽으로 하염없이 떠내려갔고, 어느 순간 망망대해에 접어들었다. 이때부터 장한철은 지도와 野話들을 동원하여 뱃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유인하는 방책으로 삼는다. ‘일찍이 지도를 보니’,⁵⁵⁾ ‘야화로 앞사람들이 적어놓은 책에 들어있다’⁵⁶⁾ 같은 멘트가 25일, 26일조에 빈번하다. 그는 또한 유구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는데, 뱃사람들이 유구를 몇 번이나 다녀왔기에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묻자 자신은 책에서 보고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⁵⁷⁾ 더 놀라운 점은 자신이 직접 ‘南海諸國圖’란 지도를 제작한 사실이다.

나는 일찍이 여러 책을 널리 고구하여 ‘남해제국도’를 저작한 적이 있다. 대개 탐

群動寂然，而惟有短猿吠余。梅月聞犬吠，呀然開門而出，引余入室，澗月在窓，室中暎然，而見趙女擁衾在床，驚起而坐，始而嚴辭峻拒，若將不相容者。及聞余慇懃說話，眼波乍轉，話岸漸低，或含羞而露態，或佯怒而強罵，曰：‘可殺哉！梅月之賣我也。’及其昵枕頤頤，神魂蕩漾，而怒罵之聲已絕，繾綣之情難禁，陽臺雲雨之夢，不足以喻其樂矣。良久，女攬衣而起，手整雲鬢而笑，看余曰：‘可憐梅月在外凍甚，何不招入房內耶？’余呼梅月入室，而笑謂女曰：‘初何責其可殺，後何憐其凍甚？’女嬌羞而不答，顧謂梅月曰：‘強半此村人，皆我夫儻也。事若曠露，禍必立至，爲之奈何？’仍斂衽而向余曰：‘妾之情勢，郎何知之？妾本長興人也，母嫁于此島，只與(舉)一子一女而早寡，子卽此島人趙起白也，女卽妾也。妾亦命薄，年十七而嫁，嫁之翌年，良人見背，母憐我孀居，每欲更求賢婿而不得奪志者，久矣。今聞郎子之言前日夢裡之逢事，非偶然，今夜枕上之歡，天與其便，以前生未了之緣，辦今宵多情之會。從今以往，妾當矢死靡它，百年苦樂，惟郎子是仰，不知郎子將何以處之乎？’余曰：‘月老已結三生之緣，星期僅借一會之便，去天比翼，在地連理，豈非吾兩人之發願耶？然而一別之後，弱水便隔，千里之外，重逢無期，此當奈何？若欲馱爾而歸，則爾無捨母之理；若欲留我而居，則我有懷土之愁，此亦奈何？若蒙仁天俯佑，使我早年決科作官南中，則蓬島之約可踐，瀟上之逢可期矣。不然則隔鴛鴦於今世，豈不悲乎？會斗牛於來生，是所願也。’女掩泣而對曰：‘顧妾薄命，不如無生。妾之母尙，多在陸地，或爲長興府吏，或作碧沙驛人。妾當往托母尙，以待郎子之決科矣。顧此島中，人煙杳隔，魚鴈難憑，何可終老於此中乎？郎如不棄，可因南風時惠德音也。妾當以五年爲限而待之，郎若過限不來，則始可委質他門矣。’已而，水村鷄唱，東天向曙，握手相別，嗚咽不能語矣。

55) 『표해록』 12월 26일조. “余曰：‘嘗閱地圖，大小琉球，在南方之外，卽漢孳山之正南也。(…)’”

56) 『표해록』 12월 25일조. “(…)此皆拾得於野話，乃先人所紀之書也。”

57) 『표해록』 12월 26일조. “衆皆喜曰：‘幾度來往於琉球而諳得琉球事如是之詳耶？’余曰：‘見其書而知之矣。’”

라의 한라산이 큰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서 북쪽으로 조선과 연결돼 물길로 9백 80 십여 리이다. 동서남 삼면은 바다만 있고 육지는 없어 아득하니 끝이 없다. 일본의 대마도는 한라의 동북쪽에 있고, 일기도는 정동쪽에 있으며, 여인국은 동남쪽에 있다. 한라의 정남쪽은 바로 대유구와 소유구이며, 서남쪽으로는 안남과 태국, 참파와 말레이 등의 나라가 있다. 정서쪽은 옛날 민(閩)땅으로 지금의 북건설 가는 길이다. 북건설 북쪽은 바로 서주(徐州)와 양주(楊州) 지역이다. 옛날 송나라가 고려와 왕래할 때 명주(明州)에서 배를 띄워 항해하였으니, 이 명주는 곧 양자강 이남 땅이다. 청주(靑州)와 연주(兗州)는 한라의 서북쪽에 있다. 이상의 여러 나라는 탐라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거리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가장 먼 곳은 동해의 벽랑국으로 일본의 동쪽에 있고 거인국은 일기도의 동남쪽에 있는데, 사람의 발길이 통하지 않고 정교가 미치지 못하니 절로 격세의 별세계이다. 옛날 탐라에 인물이 없었을 때 삼을라가 처음 강림하였으나 아직 짝을 찾지 못하고 있자 벽랑국왕이 세 딸을 아내로 삼아 주었다. 이는 비록 황당한 설이지만 송나라 천성(天聖) 기사년(1029) 탐라 사람 정일(貞一) 등이 거인도에 표류했다가 그 섬사람들에게 겁박을 받으며 붙잡혀 있다가 탈출해 살아 돌아온 이는 겨우 일곱 명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동사(東史)에 실려 있다.⁵⁸⁾

여기 거론된 해양 지역과 나라들은 기실 이전의 자료에서 다양하게 언급돼 왔던 것들이라 그리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주목을 끄는 점은 이 동아시아 해양 권역의 지리가 탐라, 즉 한라산을 기준으로 비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육지인 조선도 대상 공간으로 자리한다. 확실히 장한철은 제주를 중심으로 한 해양 지역의 지도를 구성해 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다. 여러 도서들을 참고하여 제작했다고 하

58) 『표해록』 12월 26일조. “余嘗博攷群書，著南海諸國圖矣。蓋耽羅漢拏山在大海中，惟北通朝鮮，而水路爲九百八十餘里，東西南三面，則有海無地，浩茫無邊。日本之對馬島，在漢拏之東北，一岐島在正東，女人國在東南。漢拏之正南，卽大小琉球也。西南卽安南·暹羅·占城·滿刺加等國也。正西卽古閩中，今之福建路也。福建之北，卽徐楊州之域也。昔宋之交通高麗也，自明州發船浮海，明州卽大江以南之地也。靑州·兗州，在漢拏之西北。以上諸國，皆與耽羅隔海絕遠，不知其相距爲幾千萬里，而最遠者，東海之璧浪國，在日本之東，巨人島在一岐之東南，人跡不通，政教不及，自是隔世之別界也。在昔耽羅無人物，三乙始降，未有配耦，璧浪王妻之以三女云。是雖荒唐之說，昔在宋天聖己巳，耽羅人貞一等，漂到巨人島，爲島人所劫留，逃躲生還者，纔七人，此則在東史矣。”

니 그럴 만하다. 이를 제주를 중심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⁵⁹⁾ 그런데 주변 공간들을 자신이 제작한 지도로 설명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전설로만 알려져 있는 여인국이나 벽랑국, 거인도 등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을라와 벽랑국의 결연 전설도 소환하였다. 지식인 장한철은 이쪽에 대해서는 황당설로 보고는 있으나, 고려대에 탐라인 정일 일행이 대인국에서 생환한 사적을 끌어와 덧붙임으로써 유예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무튼 이 지도 자체가 조선후기 지도사에서 흥미로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제주 중심의 지리 인식은 사공 이창석과의 대화에서도 이어진다. 南洋으로 내려오자 바다도 잔잔하고 파도도 험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는 사공의 의문에 장한철은 이렇게 설명한다.

천하의 지형은 중국의 경우 평원과 광야가 많고, 그 변두리에 높은 산과 큰 못이 많다네. 우리나라 산천은 흐르고 솟음이 몹시 급하여 5리마다 산이 하나 있고, 10리마다 강이 있을 정도이지. 지맥은 백두산에서 흘러내려 조선의 땅을 형성하였는데, 그 여맥이 남으로 내려와 소안도, 추자도, 제주도 등이 되고, 동남의 한 갈래가 대마, 살마, 대관 등 일본 땅이 되었고, 동래에서 일본, 남해에서 탐라까지 수천리가 되고, 큰 바다가 가로 막고 있지만 바다 밑은 천봉만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네. 이 때문에 조선은 축급하고 뾰뾰한 산천이 된 것이고. 그러니 바다 위에 풍파가 일어 배를 운항하기가 극히 위험하게 되는 것은 물 흐름의 충격으로 바다 밑의 봉우리와 골짜기에 진동하여 부딪치기 때문이라네. 대저 한라산 이남은 바다 밑이 평평하고 넓어서 더 이상 해저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 인해 격렬한 물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물길이 위험하지 않은 것이라네.⁶⁰⁾

59) 참고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 중심의 지도는 17세기 무렵 처음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른바 셀던의 지도가 그것이다.(티모시 브룩 지음/조명현, 손고은 옮김, 『셀던의 중국지도』, 너머북스, 2018) 이 지도의 제작 주체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남양의 해역 무역 루트가 잘 제시되어 있는 데다 여기 장한철이 언급한 대상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

60) 『표해록』 12월 30일조. “天下之地形，中土則多平原曠野，四裔則多高山大澤，而其中我國，山川流峙促急，五里一山，十里一水地脈矣。自白頭山而關，爲朝鮮之地，朝鮮之餘脈，南下而爲所安·楸子·耽羅等諸島，東南一派，爲對馬·薩摩·大阪等日本之地，自東萊而距日本，自海南而距耽羅，其間雖隔之以數千里大海，海底之千峯萬壑，自是，朝鮮促密之山川。

요컨대 한반도의 산맥과 남쪽 바다 지역, 그에 따른 水勢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조선 땅의 남쪽 지역은 물론 일본 도서까지 포함하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리 감각을 보여준다. 비록 해류의 문제로 수렴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육지의 시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조망이다. 게다가 그 설명이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인다. 이 말을 들은 사공은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감탄하기까지 한다.⁶¹⁾ 하지만 현재의 해양지질학에서는 이 현상을 바닷물의 온도나 판구조론 등으로 설명되기에 이 논리가 과연 적실한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과거 남해안과 제주, 그리고 제주 남쪽의 해양지리에 대한 장한철의 이해는 분명 남다르다.

이런 그의 논리는 27일 밤에 남극노인성을 발견하고 그 이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더 확장된다.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다는 남극노인성 구경은 이전에도 널리 회자된 볼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에 장한철은 제주 남쪽 바다 위에서 이 별을 목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천체의 구조로 설파한다. 남극성은 남쪽에 위치한 별이기에 북쪽에서는 관찰할 수 없고 제주 아래에서만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⁶²⁾

그런데 이 남극성을 천체의 원리로 설명하는 이 부분에 이본인 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칠필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김서일이 천체는 기운이 쌓여 형성된 것이어서 높고 낮은 형체가 있을 수 있느냐고 따지자 장한철이 천체의 구조와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부분이다.⁶³⁾ 이 부분은 아마도 실제 장한철이 설명한 내용

故海上風波極其危險者，以其水勢之衝擊，震搏於海底之峯壑也。若夫漢拏以南，則海底平行，無高山深壑之激波揚濤，故水勢不甚危險也。”

61) 『표해록』 12월 30일조. “沙工曰：‘果然矣！聞此而吾亦有自覺者也。小的乘船，過耽羅海者多矣，自耽羅而發船，向北陸，舟到半洋，西指大小火脫之嶼，東望餘鼠·青山之島，則雖平風靜浪之時，水勢必洶湧滙濤，故過此者，皆危之。此則所謂水底峯壑激波之險也。今行過漢拏而南，則四望無一點島嶼，而水勢不甚險急，此則所謂水底平行，無激波峯壑之驗也。’”

62) 『표해록』 12월 27일조. “余曰：‘君之惑滋甚矣。衡山爲中原之南岳，漢拏在朝鮮之南海，衡漢之所以見此星者，以其山在極南而然也，非以山之獨高於天下也。若以獨高而見此星，則天下之山，莫高於崑崙·太白，而未聞有登覽老人星者。蓋天之體，北極高而南極下；地之形，西北高而東南下，以崑崙之高，又在西北地高之上，則雖以衡山之高，亦在崑崙之地下。是故，登崑崙而視之，則南極之天入地而不見，衡山·漢拏，則皆在南極之地，故得見南極之星，況此衡漢以南之海中眼界，尤近於南極者乎!’” 칠필본에는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그의 지식을 두고, “비단 강해의 근원을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체도 알고 있으니 평소 박식함을 알만 하다[非但知得江海根派，亦知天體，居常博涉，可知]”라고 감상평을 두주로 붙였다.

은 아니었던 듯싶다. 다른 누군가가 가필한 것으로 판단된다.⁶⁴⁾ 18세기 후반 조선사회에서 천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주를 중심으로 한 장한철의 해양과 지리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분명 제주지식인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이처럼 『표해록』은 젊은 제주문인 장한철의 지적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결과물이었다.

한편 『표해록』은 장한철의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의 의식의 저변을 확인할 수 있는 적실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이 점을 마지막으로 좀 더 따져보기로 한다. 우선 호산도에서 해적 및 안남 상선과 접촉했을 때,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林邊을 향해서는 ‘재조지은’의 은혜를 설과 하면서⁶⁵⁾ 중국과 조선의 선린우호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적개심에 불타오른다.

슬프다! 왜놈들은 우리의 원수다. 뜻으로 보면 가히 하늘을 같이 일 수 없다. ‘한강에 다다라 강 위를 보노라면, 두 능의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조차 나지 않았네.’라는 시를 읊조릴 때면 나는 절로 소리치고 피눈물을 흘렸다. 저 왜놈들! 목을 벨 수 있다면 천 번이라도 칼을 들 것이고, 활로 쏠 수 있다면 만 번이라도 활을 당기리라! 대개 하늘이 만물을 창조함에 모두 사람들에게 이로우미 있는 법이다. 비록 태

63) “瑞一曰：“吾聞天者積氣耳，蒼蒼非正色，則非天之有形也，而今言有高下之體，何也？”余曰：“南斗北斗，天之樞紐，而北斗出地三十六度，南斗入地三十六度，此所以爲天高下之形也。且夫氣者，未始有形而亦未始無形也。故山之氣，積而爲雲，火之氣，積而爲烟，見山之雲火之烟，而無其形，可乎哉？我且告子乎方圓之形，天包水，水包地，天則四極相距，各爲二億三萬三千五百里七十五步，而圓之形成焉；地則經短緯長，經爲二萬六千里，緯爲二萬八千里，而方之形成焉。由是觀之，地之浮於天水之間者，譬如彈丸黑子也。吾與子，蟬蛻彈丸之壤，浮沈天海之間，玩天地倚付之形，吸日日出納之光，所謂吞雲夢八九者，何足以喻其大也？”瑞一洒然稱服矣。”(국도본 『표해록』)

64) 참고로 이 본과 친필본과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작품의 첫머리와 이 부분을 포함한 한두 군데에서만 차이가 난다. 아래에서 다시 확인되겠지만 이 본은 후대 다른 사람이 가필한 것이다.

65) 『표해록』 정월 2일조. “余知其人之爲明人也，不覺涕泣而書曰：‘吾屬亦是皇明赤子也。壬辰倭寇，陷我朝鮮，魚肉我，塗炭我，其能拯我於水火之中，措我於衽席之上者，豈非我皇明再造藩邦之恩耶？噫嘻痛哉！甲申三月，天崩之變，尙忍言哉？以我東忠臣義士之心，孰欲戴一天而生也，孰不欲蹈東海而死也？然而父母之亡，孝子不能殉從者，以其天命不同，存亡有異也。’”

산 호랑이가 포악하나 그 가족을 깔고 자면 내 몸이 편안하고, 영주(永州)의 뱀이 독하나 약으로 쓰면 내 병이 나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오직 저 한 종자 왜놈은 사람들에게 할 올의 이로움도 없고, 해로움은 태산 호랑이와 영주 뱀보다 더 심하다. 하늘은 어찌 이놈들을 태어나게 했을까, 어찌 이놈들을 만들어냈을까. 당장이라도 천제에게 죄를 내리도록 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구나!⁶⁶⁾

『표해록』의 내용 중에 가장 격앙된 부분으로, 장한철에게 왜는 그야말로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원수다. 임진왜란을 떠올리며 치를 떠는가 하면, 尹安性(1542~1615)의 시구⁶⁷⁾를 인용하여 왜란 이후에도 저들이 우리를 기만한 것에 분개한다. 뿐이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태산의 호랑이와 영주의 뱀을 끌어와 ‘한 올도 이로움이 없는’ 이런 종자를 하늘은 왜 가만두지 않느냐면 한탄한다. 이 과도해 보이는 왜에 대한 적개심은 재조지은을 강조하며 감격하는 중국에 대한 이해와는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물론 여기에는 남해불에게 털리고 난 뒤의 발화인 만큼 일정한 상황논리가 개입되어 있을 터다. 또한 중국에 대한 태도는 임준 일행에게 구조되기를 바랐던 사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점을 환기해야 할 터나 그럼에도 장한철의 외부에 대한 의식세계를 짐작하기에 좋은 사례임은 분명하다.

이 외에도 장한철은 호산도에서 제주상인 강재유가 자신에게 바치려고 한 전복에서 나온 진주를 가지고 육지 상인 白士廉이 값을 흥정하는 것을 보고, 장사치들의 이꼴을 다루는 행위를 비판하는 점이나,⁶⁸⁾ 앞에서 언급한 청산도의 학자 정재운을 만나

66) 『표해록』 정월 1일조. “○噫! 倭奴我讐也, 義不可共戴天. 而每吟‘試到漢江上望, 二陵松柏不生枝’之詩, 不覺吼我膽而泣我血. 倭乎倭乎! 如可斬兮人千其劍, 如可射兮人萬其弩. 夫天之生物也, 俱有益於人, 雖以泰虎之惡焉, 而寢其皮, 則可以安吾軀; 永蛇之毒焉, 而用爲餌, 則可以已吾疾, 而惟彼一種倭奴, 則於人無一毛之利, 而其爲害也, 有其甚泰虎永蛇. 天胡生此? 天胡生此? 直欲罪眞宰, 而不可得也.”

67) 이 시구는 윤안성의 「聞回答使發行」(『冥觀遺稿集』 권1)의 3,4구이다. 1606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화해의 제스처로 사신을 조선에 보내면서 신경룡을 도굴한 범인을 압송해 왔는데, 이를 조정에서 받아들여 화답사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참고로 앞 1,2구는 다음과 같다. ‘使名回答向何之? 此日交鄰我未知.’

68) 『표해록』 12월 30일조. “(…)甚矣, 商人之重利也! 萬里風濤, 生還無期, 而猶汲汲於龍斷網利, 奚擇乎剖身之賈胡?” 한편 국도본에는 이 부분에 추가적인 내용이 더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다. “甚矣, 商人之重利也! 萬里風濤, 生還無期, 而猶且目語額瞬, 汲汲乎

저들의 부족한 식견을 얹잡아 보는 장면 등도 제주지식인 장한철이 보여준 의식의 일 단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장한철의 지적 역량과 그의 대내외적인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기는 하나, 다분히 의식적인 발화일 가능성도 높다. 특히 노골적인 중국과 일본에 대한 시선 등은 더 그렇게 보인다. 해당 사건들과 마주하면서 장한철은 어쩌면 자신의 의식세계를 구축해 가기도 했을 터다. 요컨대 『표해록』은 장한철을 드러내는 가장 유용한 도구였던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장한철의 『표해록』은 하위-벋사람들-와 외부세계를 통해 不可名의 상위에 대한 인정투쟁의 산물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18세기 후반 한 제주 문인의 현실, 그 고뇌와 願望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18세기 후반 제주지식인 가졌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싶다. 공교롭게도 육지인 누군가에 의해 전사된 것으로 판단되는 국도본 첫머리는 칠필본에 없는 제주와 제주 문사의 현실이 스케치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인용해두면서 향후 이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탐라의 한라산은 바로 아주 전겁의 영주이다. 그 웅장하고 기이한 경관은 세상 밖으로 높이 솟아 있다. 위로는 은하수를 잡을 수 있고, 아래로는 푸른 바다를 압도한다. 「우공(禹貢)」에도 올라있지 않고 진나라의 교화도 미치지 않았다. 삼성(三姓)이 나라를 열지 않았다면 어찌 일엽편주라라도 세상과 통했으랴! 어지러운 때는 세상의 병화를 피해 온 자들의 거처가 되었고, 다스려질 때는 천리 길 푸른 파도를 건너 육로로 9백 리를 달려 서울에서 벼슬자리를 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종 바다에 표류하거나 길에서 죽어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니 이곳은 바로 난리 때는 낙원이지만 치세 때는 모진 땅인 것이다. 나는 태평성대에 불행하게도 여기에서 태어나 뛰어나고 호방한 선비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고 었드린 채 뛰쳐나오지 못했다. 고기 잡고 땀나무하는 무리들 사이에 빠져서 마시며 즐기면서도 적이 오나라 계찰(季札)이 상국(노나라)의 소(韶)를 들은 일을 그리워한지 오래되었다. 나라에서 특별히 멀고 외진 사람이 과거보기가 어려움을 안타까워하여, 개성(開城)

龍斷網利，是奚異於剖身之賈胡？因此而又有可歎者也，人莫不以繡牛爲榮泥龜爲辱者，不知繡之近死泥之遠海也。都不滿達人之一哂。” 이 역시 가필된 흔적 가운데 하나이다.

의 예처럼 승보 초시를 배설해 주었다.⁶⁹⁾

69) 국도본 『표해록』 첫머리. “耽羅之漢擎山，卽前劫之瀛洲也。磅礴奇環，高出世外，上挹星漢，下壓滄溟。禹貢之所未奠，秦烟之所未通，如無三姓之開國，豈有一葦之通世？在亂時，則逃世避兵者之所盤旋；在治世，則涉滄波千里，陸走九百有餘里，以求科宦于京師，而往往有漂于海墜于道而不返者。是固亂時之樂土，治世之惡地也。余於治平聖代，不幸而生于茲，不能與賢豪之士，伏以不出者，酣嬉顛倒於漁樵之間，竊慕吳季子之聞韶上國者，厥惟久矣。國家特軫遠人赴試之難，設陞補初試於島中，如開城府之例。”

제주지리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소고

: 『이원진_탐라지』 이후 제주지리지를 중심으로

김새미오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 들어가며
2. 조선시대 『이원진_탐라지』 이후의 『탐라지』
3. 일제강점기 이후의 제주지리지
4. 제주지리지 『탐라지』의 의미
5. 나오며

□ 국문초록

본고는 『이원진_탐라지』 이후 확인되는 10여종의 제주지리지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규명한 글이다. 각각의 『탐라지』는 적지 않은 출입이 있지만, 모두 시대와 변화에 맞게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시대 『탐라지』는 『이원진_탐라지』에서 시작하여 『이원조_탐라지초본』에서 한 차례 크게 변화하였고, 조선의 마지막까지 작성되었다.

조선이 일제에 병탄된 후에는 공식적으로 『탐라지』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형태의 제주지리지가 출현하였다. 이 시기 제주지리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주를 재정리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각종조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정의현과 대정현은 사라졌고, ‘제주’라는 하나의 지역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이 시기 제주지리지는 상업적인 목적도 있었다. 전통의 『탐라지』를 계승하는 작업도 확인된다.

제주 지리지가 이렇게 많이 확인되는 이유는 제주를 다스리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고, 조선후기 서양세력이 東進으로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술시각의 전환도 주목된다. 조선시대 『탐라지』가 외부인의 시각으로 기술되었다면, 일제강점기 제주지리지에서는 제주사람들이 제주를 주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주지식인들이 주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제주지식인들의 성장과 함께 구한말 출륙금지령이 유야무야되면서 지리적 인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제주도에 관한 마을지리지는 물론 道誌등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제주지리지 인식의 기저에는 모두 『탐라지』의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

주제어 제주지리지, 탐라지, 증보탐라지, 남환박물, 대정군지, 신흥리지

1. 들어가며

본고는 『李元鎮_耽羅誌』¹⁾ 이후의 『耽羅誌』를 정리하고 그 의의와 가치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탐라지』는 제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지리서이며, 제주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탐라지』는 효종 때에 제주목사로 왔던 이원진이 처음 작성하였고, 이후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먼저 이원진에 대한 기존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李元鎮_耽羅誌』에 대해서는 1975년 제주도 교육위원회에서 1차 번역했고, 2002년에는 김찬흡 등이 중심이 되어 재 번역되었다. 이원진의 문집인 『太湖文集』이 번역되었고, 이에 관한 연구도 확인된다.²⁾ 이를 바탕으로 김새미오는 『이원진_탐라지』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한 바 있다.³⁾ 이 연구는 『이원진_탐라지』의 형성과정과 제 판본에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이후 많은 『탐라지』에 대한 소개와 언급은 없다.

이밖에 읍지와 사찬지리서에 대해서는 연구가 참조할 만하다.⁴⁾ 하지만 『탐라지』에 주목하여 정리한 글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차적으로 제주의 출판문화에 대해서 남권희, 김우리, 박철상, 윤봉택의 연구가 참조된다.⁵⁾

1) 『탐라지』는 여러 저자와 판본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저자_탐라지』 또는 『서지형태_탐라지』의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2) 김효정, 「太湖 李元鎮의 詩世界 考察」, 『한국민족문화』 73,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97~124면; 윤재환, 「新資料 『太湖詩藁』를 통해 본 李元鎮의 詩世界 -資料 소개와 詩世界の 概略을 中心으로-」, 『漢文學報』 18, 우리한문학회, 2008, 391~428면; 윤재환, 「少陵家の 使行 經驗과 詩의 形象化 -少陵 李尙毅·太湖 李元鎮·梅山 李夏鎭을 中心으로-」, 『동양한문학회연구』 31, 동양한문학회, 2010, 197~232면.

3) 김새미오, 「『이원진_탐라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12, 대동문화연구소, 2020, 349-378면.

4) 사찬읍지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참고문헌에 병기하였다.

5) 윤봉택·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 『서지학연구』 34, 한국서지학회, 2006, 251~271면; 김우리, 「조선후기 제주지역 서적간행의 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23, 역사문화학회, 2020, 157~190면;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고인쇄문화』 8,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박철상, 「조선 최고의 병서 제주도판 『황석공소서』의 출현과 의미」, 『문헌과해석』 45, 문헌과해석사, 2008, 265~274면; 박철상, 「제주판 『삼국지연의』 간년 고증」, 『포럼 그림과 책 2011 논문집(1)』, 화봉문고, 2011; 윤봉택·노기춘, 「제주목에서 개간된 17세기 책판 연구」, 『서지학연구』 34, 서지학회, 2006, 251-271면;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2; 김민현, 「1411년 제주도 간본 『논어

『이원진_탐라지』는 제주를 본격적으로 알린 최초의 문헌이며, 제주학 연구에 있어 필수적으로 섭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서적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매우 많은 『탐라지』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 책들은 제주도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수용되고 확장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적들이다. 본고에서는 『탐라지』를 중심으로 한 제주지리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원진_탐라지』 이후에 10여종의 제주지리서가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리하고 소개한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많은 제주지리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할 단계이다. 지역에서 『탐라지』가 번역된 경우 그나마 간단하게나마 해제를 담고 있지만, 통시적인 관점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내용서술에 그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이원진_탐라지』 이후 확인되는 『탐라지』 및 제주지리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확인된 『탐라지』를 먼저 정리하고, 한국 고전종합목록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충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탐라지』라는 이름 외에도 제주도 지리지적 성격을 갖는 경우 역시 같이 서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 둘째, 확인되는 『탐라지』와 제주지리지가 서로 어떤 영향관계를 갖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원진_탐라지』 이후의 제주지리지는 기본적으로 수용과 반발의 형태로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이는 시대변화에 따른 정보를 기록한 것이었다. 이런 변화사항을 정리한다면, 제주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수용되고 확장하는지를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제반과정을 통해 제주지리지인 『탐라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제주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조선시대 『이원진_탐라지』 이후의 『탐라지』

『이원진_탐라지』는 1653년에 완성되었고, 이 해에 판각되어 초판본이 나왔다. 이

』의 서지학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4(제42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33~53면.

책을 만들 때에 高弘進과 같은 제주지식인이 교감에 참여하였다. 여러 차례 실화로 책판고가 불타면서 『탐라지』 책판도 함께 소실되었지만, 순조 때 제주목사 박장복이 중간한 것으로 판단된다.⁶⁾ 『이원진_탐라지』는 제주의 기준문헌으로 자리하고, 이를 따라 여러 종류의 『탐라지』와 제주지리지가 작성되었다. 조선시대로 한정했을 때 살펴볼 것은 『탐라지』와 『제주읍지』이다. 먼저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탐라지』 및 『제주읍지』>

	작성연대	명칭	형태	소장처	비고
0	효종4년(1653)	『李元鎭_耽羅誌』	필사본 목판_초간본,중간본	순조34년(1834)重刊	김찬홍 외 역
1	숙종30년(1704)	『李衡祥_南宦博物』	필사본	제주자연사박물관 문중소장	이상명 외 역
2	영조 41년(1765)	『尹蒼東_增補耽羅誌』	필사본	천리대학교	김영길 역
3	헌종7년(1841)	『李源祚_耽羅誌草本』	필사본	탐라문화총서 4	제주교육 박물관 역
4	헌종14년(1848)	『張寅植_耽羅誌』	필사본	탐라문화총서 5	
5	고종10년(1873)경	『崔永學_耽羅誌』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6	광무6년(1902)	『작자미상_耽羅誌』	필사본	탐라문화총서 5	
7	융희3년(1909)	『耽羅事實』	필사본	서울대, 고려대	
8	정조16년(1792)	『濟州邑誌』	필사본	규장각 상백 古 915. 149-J389	
9	1785년 이후	『濟州邑誌』	필사본	규장각 10796	
10	고종36년(1899)경	『濟州邑誌』	필사본	규장각 12181	

먼저 표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일단 본고에서의 직접적인 연구대상은 『탐라지』이고, 『제주읍지』는 부차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위에 기술된 『탐라지』는 기본적으로 『이원진_탐라지』의 성격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제주읍지』 역시 그 형식은 『탐라지』와 유사하다.

6) 김새미오, 「『이원진_탐라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12, 대동문화연구소, 2020, 349-378면.

1 『李衡祥_南宦博物』

『이형상_남환박물』은 『이원조_탐라지』 이후 처음으로 확인되는 제주지리지이다. 이 책은 2종의 필사본이 전한다. 한 부는 문중에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 한 부는 제주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먼저 이 책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이원조_탐라지』와 『南宦博物』의 구성
『이원조_탐라지』 濟州	建置沿革-鎭管-官員-邑名-姓氏-風俗-形勝-山川-橋梁-土產-田結-城郭-防護所-水戰所-烽燧-宮室-樓亭-倉庫-學校-鄉約-祠廟-佛宇-將官-軍兵-工匠-奴婢-果園-牧養-醫藥-貢獻-古跡-名宦-人物-孝子-烈女-題詠
『이형상_남환박물』	誌邑號-誌路程-誌海-誌島-誌候-誌勝-誌蹟-誌姓-誌人-誌俗-誌文-誌武-誌田-誌産-誌禽-誌獸-誌草-誌木-誌果-誌馬牛-誌魚-誌藥-誌貢-誌賦役-誌祠-誌關防-誌烽-誌倉-誌廩-誌兵-誌工-誌奴婢-誌吏-誌行-誌古-誌名宦-荒腹願戴歌

먼저 『이원조_탐라지』와 『이형상_남환박물』의 큰 차이는 형식에 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형상_남환박물』의 주요 인용서목은 『輿地誌』, 『地誌』, 『南溟小乘』, 『南槎錄』이다. 『輿地誌』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말하고, 『地誌』는 『이원진_탐라지』를 말한다.⁷⁾ 『南溟小乘』, 『南槎錄』는 『이원진_탐라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⁸⁾ 「誌俗」의 항목에서는 『이원진_탐라지』가 많이 인용되었다. 하지만 『이원진_탐라지』에 있는 많은 문학작품들은 배제되었고, 핵심만을 기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형상_남환박물』은 이원진의 것을 수정 보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형상_남환박물』의 핵심은 「誌俗」와 「誌祠」에 있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이는 병와 자신이 음사철폐로 대변되는 풍속에 있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저술의 직접적인 이유는尹斗緒가 탐라고적에 대해 물어,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짓게

7) 『地誌』가 『이원진_탐라지』라는 것은 「誌俗」을 기록하면서 인용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8) 김새미오, 「『이원진_탐라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12, 대동문화연구소, 2020, 349-378면.
 9) 김새미오, 「병와 이형상의 제주지방 의례정비와 음사철폐에 대한 소고」, 『대동한문학』 63, 대동한문학회, 2020, 103-140면.

되었다.¹⁰⁾ 이면에는 『이원진_탐라지』이 발간된 지 51년의 시간이 흘렀고, 1677년 제주향교의 책판이 화재로 소실된 것¹¹⁾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저술관점은 매우 실증적이다. 백록담에 대한 전설 등의 기록에 대해 ‘과장이다.’ ‘잘못 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¹²⁾

『이형상_남한박물』은 『이원진_탐라지』 이후 처음으로 확인되는 제주지리지이다. 이 형상은 분명 『이원진_탐라지』를 보았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따라 간 것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파격적인 변화를 주었고, 내용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형상_남한박물』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으로 평가했을 때는 매우 미약하다. 우선 이 책은 이형상이 제주목사에 파직된 후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제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혹 제주에서 봤다고 해도 그의 조치에 대한 일반민중들의 내면적인 반발이 있어 그 영향은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지리지의 중심은 여전히 『이원진_탐라지』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② 『尹蓍東_增補耽羅誌』

이 책은 『이원진_탐라지』이후 “탐라지”의 이름으로 처음 확인된다. 일본 천리대학교 이마니시 류[今西龍]컬렉션 소장이며, ‘乾·坤’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에는 ‘西春秋文庫, 天理圖書館印, 今西龍, 今西文庫, 尹蓍東伯常印’의 인장이 있다. 이를 통해 처음 소유자는 윤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윤시동은 제주목사를 역임한 인물이며, 영조 41년(1765) 8월에 도임하여 다음해 6월에 체임되었다.

이 책의 倉庫 항목에는 “童蒙先習, 甲申牧使李明運新刊”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운은 윤시동의 전임목사였다. 다른 항목에서도 “今乙酉”, “補乙酉” 등의 문구가 있는데, 모두 윤시동 목사가 역임했던 영조41년(1765)때이다. 건치연혁은 숙종 대까지

10) 『南宦博物』. “孝彥書問 耽羅古蹟 且曰 將以廣異聞 作南宦博物 一萬三千八百五十餘言 書贈 甲申初秋題于永陽之浩然亭”

11) 『南槎日錄』. “公廨. 冊版庫, 丁巳, 失火時, 諸冊版, 盡燒云.”

12) 『南宦博物』. “地誌云, 深不可測, 人喧則風雨暴作者, 誤傳也 ; 『南宦博物』. 小乘所謂, 白髮翁騎白鹿嘯啼云者, 誇之也.”

정리되었다.¹³⁾ 먼저 이 책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윤시동_탐라지』 구성
濟州	建置沿革-鎭管-官員-邑名-姓氏-地形增-形勝-山川-道里增-橋梁-風俗-土產-面村增-戶口增-田結-城郭-防護所-水戰所-烽燧增煙臺-館宇-樓亭-倉庫-學校-鄉約-祠廟-佛宇-將官-軍兵-工匠-奴婢-果園-牧養-醫藥-貢獻-古跡-名宦-人物-孝子-忠臣增-烈女-題詠
旌義縣	建置沿革-官員-姓氏-山川-增道里-橋梁-風俗-土產-面村增-增戶口-增田結-城郭-防護所-水戰所-烽燧增煙臺-館宇-樓亭-倉庫-學校-鄉約-祠廟-佛宇-將官-軍兵-工匠增-奴婢-果園-牧養-貢獻-古跡-名宦-人物增-孝子增-烈女-題詠增
大靜縣	建置沿革-官員-姓氏-山川-增道里-橋梁-風俗增風俗-增土產-面村增-增戶口-增田結-城郭-防護所-水戰所-烽燧增煙臺-館宇-樓亭-倉庫-學校-鄉約-祠廟-佛宇-將官-軍兵-工匠增-奴婢-果園-牧養-貢獻-古跡-名宦增-孝子增-烈女增-題詠增
增補	권6 「九鎭」; 권7 「古今事蹟」; 권8 「列朝特典御使詢瘼」; 권9 「漂流異國問情」

이 책의 기본적으로 『이원진_탐라지』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增”, “補”의 형태를 통해 보충하고 있다. 증보에 이용되는 책은 『南溟小乘』, 『南槎錄』, 『隨錄』, 『續誌』, 『舊誌』이다. 이 책들은 『이원진_탐라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續誌』는 총 7차례 확인된다. 『續誌』의 내용에 1702년 李衡祥 목사가 오미자 등을 봉진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그 이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¹⁴⁾ 『隨錄』은 총 17차례 확인된다. 『隨錄』의 내용 중에는 이형상의 무속철폐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갑인년 鄭道元 목사를 언급하고 있다.¹⁵⁾ 정도원 목사가 있었던 갑인년은 1734년(영조10)이다. 따라서 『隨錄』은 이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隨錄』은 풍속 조에 대한 기록이 많다. 『舊誌』는 2차례 확인된다.¹⁶⁾ 하지만 그 내용은 이전 문헌에서 확

13) 『이원진_탐라지』의 건치연혁은 예종 대까지 되어 있다.

14) 『윤시동_탐라지』 土產1, 補, 續誌. “壬午 牧使李衡祥 五味子五斗別封進. 朝廷以爲別封不當更勿封進 云.”

15) 『윤시동_탐라지』 風俗, 隨錄. “肅廟壬午 牧使李衡祥痛其汚俗 三邑所在神堂一百二十九處 及私家禱神之物 路傍叢林之處 並與佛像 而一時燒燼, 巫現四百餘名 焚其案 使各歸農, 神位田並還本主. 其後 又有大靜廣庭堂神像 暗自改造 嚇人取財. 甲寅牧使鄭道元 火其神 治其巫 鍾鼓器皿沒入軍器. 而猶不懲畏 歲夕魅鬼七七祈禱 至今未息.”

16) 『윤시동_탐라지』. “右兩庫 舊誌其數甚多. 而廢不修補, 皆是虛簿. 故只以時在數載錄.”;

인되지 않는다.

『隨錄』, 『舊誌』, 『續誌』은 어떤 종류의 서적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舊誌』와 『續誌』는 『이원진_탐라지』와 『윤시동_탐라지』 사이에 또 다른 『탐라지』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윤시동_탐라지』의 증보는 대부분 『隨錄』, 『續誌』 등을 통한 증보이다.

항목으로 증보된 것은 「九鎮」, 「古今事蹟」, 「列朝特典御使詢瘼」, 「漂流異國問情」이다. 이 항목들은 윤시동이 핵심적으로 보충하려했던 사항이다. 「九鎮」, 제주 9진에 대해 ‘위치, 亭子, 煙臺, 軍器, 倉庫’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古今事蹟」은 제주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것이다. 이는 『이원진_탐라지』에서 「建置沿革」에 혼재되어 정리되어 있었다. 『윤시동_탐라지』에도 「建置沿革」이 있는데, 철저히 행정체제 변화만을 기록하였다. 「列朝特典御使詢瘼」 조선시대 제주에 어사로 왔던 인물들의 행적과 공적을 정리하였다. 「漂流異國問情」 제주도에 표류했던 외국선박에 대한 기록이다. 총 30건이 수록되어 있다.

『윤시동_탐라지』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이원진_탐라지』를 계승하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문학작품 등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이 책의 핵심 증보사항은 「九鎮」, 「古今事蹟」, 「列朝特典御使詢瘼」, 「漂流異國問情」이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더한 것도 있고, 변방의 자료를 정리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들 핵심사항은 『이원진_탐라지』에 없는 사항이고, 이후에도 『탐라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③ 『李源祚_耽羅誌草本』

『이원조_탐라지초본』는 『윤시동_탐라지』 이후로 확인되는 책이다. 이원조는 현종7년(1841) 윤 3월에 江陵府使에서 전보되어 도입하고, 그 후 2년이 지나서 계묘년 6월에 사직하고 떠났다. 이원조는 그의 문집인 『凝窩先生文集』이 전하고 있다. 이원조는 제주도에 와서도 매우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이원진_탐라지초본』 외에도 『

『윤시동_탐라지』. “舊誌所記刪去, 但以今會案數載錄. 他鎮同.”

『탐라록(耽羅錄)』·『탐라계록(耽羅啓錄)』·『탐라관보록(耽羅關報錄)』이 있다. 먼저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구성
濟州	建置沿革-邑號攷證-山川-島嶼各浦附-物産-土俗-官職-氏族-坊里-戶口-道路院站附-橋梁-城池-壇廟-學校-公廡-樓觀-鎮堡-烽燧煙臺附-牧養-果園-貢獻各司納附-田結-大同-俸廩-徭役-糶糴-倉庫-軍額-奴婢-工匠-人物[孝烈忠義]-形勝-題詠-古蹟-奇聞-邊情[戰守·異船·漂流]-舊例-恩恤[調賑·蠲蕩·恩典]-官案-判官
旌義縣	建置沿革-山川-島嶼各浦附-物産-土俗·氏族-坊里-戶口-道路院站附-橋梁-城池-壇廟-學校-公廡-樓觀-鎮堡-烽燧煙臺附-牧養-果園-貢獻各司納附-田結-大同-俸廩-徭役-糶糴-倉庫-軍額-奴婢-工匠-人物-科宦-形勝-古蹟-官案
大靜縣	建置沿革-山川-島嶼各浦附-物産-土俗·氏族-坊里-戶口-道路院站附-橋梁-城池-壇廟-學校-公廡-樓觀-鎮堡-烽燧煙臺附-牧養-果園-貢獻各司納附-田結-大同-俸廩-徭役-糶糴-倉庫-軍額-奴婢-工匠-人物-科宦-形勝-古蹟-官案

이원조는 이 책을 만들고, 수정할 때는 제주지식인들을 임명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이원조는 金英樂과 梁觀을 중심으로 姜齊鎮, 金龍徵, 姜錫瑚, 吳亨國를 선발하였다.¹⁷⁾ 이들은 당시 제주삼읍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었다. 이는 『이원조_탐라지』를 만들 때, 제주선비 고흥진을 참여시켰던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형식적인 특징은 2가지이다. 하나는 「읍호고증」이다. 「읍호고증」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에서 처음 보이고, 이후 『탐라지』에서 계속 확인된다. 두 번째는 「奇聞」, 「邊情」, 「舊例」, 「恩恤」의 4가지 항목이다. 4가지 항목에 대해 이원조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제주영에 부임한 지 반년 동안을 널리 찾아다녔어도 끝내 민간에서 흠어져 없어진 사적을 하나도 얻을 수 없었다. 다만 조정에 아뢰는 공문서와 이곳 관아에서 작성한 기록을 취하여 여기저기 헤어져 온전하지 못한 것을 모아서 거칠게 한 책을 만들었다. 내 뜻으로 별도로 추가해 넣은 것은 4가지 편목이다. 첫째는 진기한 이야

17) 『耽羅錄』, 12월2일조. “邑誌修正事差出, 任司都監金英樂·梁觀, 州有司姜齊鎮·金龍徵, 大靜錫瑚, 旌義吳亨國.”

기[奇聞]이다. 이 땅은 본래 신령한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 칭하였으니, 齊諧의 괴담이 다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예전부터 내려오는 舊例이다. 예전 도읍지의 남은 습속과 제주영을 설치한 뒤의 사례는 상고할 만한 것이 많은 편이다. 셋째, 변경의 정세[邊情]이다. 삼면이 이국의 땅으로 돛단배 한척이 이중삼중으로 통역하는 이유는 인명을 중시하고 바다를 방어하는 일을 엄히 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은 恩典과 救恤이다. 우리 성조께서 먼 곳에 사는 백성을 어루만져 달래는 은택이 전후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부분을 펴 보면 뒷사람 친애하는 마음을 펼쳐 일으킬 수 있다.¹⁸⁾

인용문은 『耽羅錄』 12월2일조에 있는 「新修耽羅誌跋」의 일부 있다. 「奇聞」에서는 제주도 설화 등 14편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백록에 관한 설화, 설문대 설화, 김치 판관과 강림이야기, 김만일 이야기, 어사 趙誠立 기문, 산방덕이 설화, 광양당, 영등신, 김녕사굴 전설, 광정당 설화, 한모살개 이야기, 제주토속, 해녀설화, 白鹿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은 제주도 설화를 모티브로 기록한 것이며, 현재 제주도설화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중요한 점은 이원조가 이런 이야기를 괴력난신으로 치부하지 않고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신당철폐를 하면서 급하게 유교화하려 했던 이형상 목사와는 분명 다른 방향이었다.

「邊情」은 戰守, 異船, 漂流의 세부항목으로 정리하였다. 戰守는 고려~조선명종에 이르기 까지 제주에 있었던 전투에 대한 기록이다. 異船은 총 11건의 사건을 기록하였는데, 외국선박이 표류했던 것과 정박했던 것에 관련한 것이다. 漂流는 제주 사람의 표류했던 4건의 사건을 기록했다. 「邊情」의 항목은 『윤시동_탐라지』의 것을 보다 세밀하며, 보완하는 성격은 아니다.

「舊例」에는 제주목사가 알고 있어야 할 일들과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都

18) 『耽羅錄』, 12월2일조, 「新修耽羅誌跋」. “莅營半載, 廣搜博訪, 而竟不得一逸史於壘. 祇取之公家啓牒, 館宇題識, 斷爛衰粹, 草成一本. 條列分合, 或仍或改, 而以己意添入別條者四. 曰奇聞. 此地素稱靈仙窟宅, 諧齊志怪, 不可全沒也. 曰舊例. 古都遺俗, 及設營後, 事例多有可攷也. 曰邊情. 三面異域, 一帆重譯, 所以重人命, 而嚴海防也. 終之以恩恤. 我聖朝懷柔之澤, 前後曠絕, 一開卷, 可以興起其親上之心也. 編既成, 并與新舊兩本, 而藏奉之. 不敢遽付之剞劂, 去取刪補, 更俟後人云.”

會官, 軍官, 徒配, 科試, 殿最, 發巡, 船禁, 老人宴, 押領, 譯學生, 醫局, 山獵, 木牛偶'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제주목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恩恤」은 賑賑, 蠲蕩, 恩典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었다.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제주에 베풀어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적었다. 주로 흉년 때에 곡식을 진휼했던 기록이다. 이 역시 『윤시동_탐라지』의 「列朝特典御使詢瘼」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원조는 조정의 조치를 통시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윤시동은 제주사람들이 어려워했던 몇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언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초본의 형태이기에 수정표시가 있다는 점이다. 수정표시는 차례를 정리한 경우, 첨가한 경우, 삭제한 경우가 있다. 이 중 삭제와 첨가한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원조_탐라지초본』 수정부분	
추가1	世宗朝, 遣曆官尹士雄崔天衡李茂林三人, 測極度於漢拏山. 事在雲觀志.
첨가2	以邑人高承祖, 爲三邑都知上鎮撫
삭제1	黃祐獻 運籌堂記 [전체삭제]
삭제2	大明初平雲南 徒梁王家屬于州.
삭제3	梁氏譜牒曰, 毛羅國主遣良宥夫繼良, 入朝新羅, 王嘉之, 以宥爲星主, 改賜姓梁, 以繼良爲王子. 其後, 高氏滅梁氏之國云. 未詳.

수정을 누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삭제와 첨가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고씨와 양씨에 관련한 사항이다. 삭제3의 내용은 양씨가 원래 제주성주였는데, 고씨가 양씨를 멸망시켰다는 것이다. 삭제2는 운남성에 있던 명나라 양왕이 제주로 와서 정착했다는 기록이다. 첨가2는 고승조의 벼슬에 관련한 사항인데, 이는 조선 초 좌우도지관으로 나눌 때의 기록이다.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대체로 고씨에 대한 기록이 다소 우호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¹⁹⁾ 黃祐獻의 기문은 모두 기록해 놓고, 삭제표시를

19) 고씨와 양씨에 관련한 사항은 제주지방에서 매우 큰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삼성사에서 모시고 신위의 차례도 ‘高梁夫’인지, ‘梁高夫’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權震應이 지은 「濟州三姓廟節目」에서는 양씨를 앞세우고 있지만, 역시 정확한 문헌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했다.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읍치연혁」은 정조2년(1778)까지 기록되어 있다. 「邑號考證」은 『탐라지』 중에서는 처음 확인되고 있다. 주요 문헌적 근거는 『舊誌』, 『南溟小乘』, 『南槎錄』이 확인된다. 『남사록』보다는 『남명소승』이 보다 인용빈도가 높다. 李元鎮의 시가 확인되는 것을 보면 『이원진_탐라지』를 참고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윤시동_탐라지』를 참고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관심을 끄는 것은 『윤시동_탐라지』에서도 보이는 『舊誌』의 존재이다. 明月鎭에 대한 설명에서 『윤시동_탐라지』와 『이원조_탐라지초본』에서는 공통적으로 『舊誌』를 인용하였다.²⁰⁾ 이 내용은 『이원진_탐라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舊誌』는 당시 제주 관아에 남아있던 기록으로 생각된다.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기존 기록의 것을 보충하여 당시의 변화사항을 담아내었다. 이 책에서 처음 나오는 「읍호고증」과 「奇聞」, 「邊情」, 「舊例」, 「恩恤」은 이원조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며, 이 역시 이후 『탐라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순조 때에는 『이원진_탐라지』가 重刊되기도 하였다. 이원조가 이렇게 제주지리지를 작성하게 된 것은 부족한 측면이 많이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의 제주지리지의 중심은 『이원조_탐라지초본』로 옮겨오게 된다.

4 『張寅植_耽羅誌』

이 책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서 발간된 탐라문화총서(5)에 『탐라지』의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2개의 『탐라지』가 소개되어 있다. 두 판본 모두 필사본이다. 서두에는 일본동양대학교 소장본과 『남만리_탐라지』이라고 하였다. 일본동양대학교 소장본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제주목에 관련한 내용만 전하며, 정의현과 대정현의 내용은 없다. 필자가 살펴본 결과 이는 『장인식_탐라지』임을

20) 『이원조_탐라지초본』. “舊誌, 又地誌, 三別抄據珍島, 先遣僞將李文京, 到泊于此. 又金方慶討三別抄, 左軍入飛揚島, 卽此浦也. 胡宗朝, 亦來泊于此. 又恭愍時, 元牧子等作亂, 遣崔瑩等, 諸元帥領兵來討, 牧子等拒戰于此浦, 大軍進擊破之云.”

알 수 있었다. 먼저 『장인식_탐라지』에 대해서는 심재 김석익이 적은 『담수계_증보탐라지』의 서문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이로부터 이어서 대대로 서술한 사람이 적지는 않았으니, 擬窩 李源朝·黠菴 張寅植과 같은 분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모두 세상에 간행되지는 못했다.²¹⁾

심재 김석익은 『이원진_탐라지』를 이야기 하면서 『이원조_탐라지초본』, 『장인식_탐라지』를 거론했다. 『윤시동_탐라지』는 심재가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인식은 헌종14년(1848)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2년간 근무하였다. 이는 이원조목사와는 5년의 시간차이다.

『장인식_탐라지』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책에는 장인식의 글이 다수 실려 있다. 여기에 「제주관풍안」에 제주목사는 李宜植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장인식 목사의 전임자이다. 판관은 卓宗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장인식 목사때 제주관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후의 『탐라지』에서 장인식의 글이 들어간 경우가 종종 확인되는데, 모두 이 책의 기록을 참조한 것이다. 이 책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	『장인식_탐라지』의 구성
濟州	建置沿革-鎭管-官員-邑名-邑號攷證-姓氏-風俗-形勝-山川-島嶼各浦附-橋梁-土產-田結-大同-俸廩-徭役-城郭-坊里-戶口-道路院站附-防護所-水戰所-烽燧煙臺附-宮室-公廨-樓亭-倉庫-糶糴-學校-鄉約-壇廟-佛宇-將官-軍兵-工匠-奴婢-果園-牧養-醫藥-貢獻-古蹟-先生案-科宦-人物(孝烈忠義)-奇聞-異見-邊情(異船漂流)-舊例-恩恤(賑賑蠲蕩恩典)
旌義縣	없음.
大靜縣	없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邑號攷證」에서는 ‘引用辛丑續誌’라는 소주가 있다. 이 책에는 종종 ‘辛丑續誌’ 또는 ‘續誌’라는 주석이 있는데, 모두 『이원조_탐라지초본』를 말하며, 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奇聞」, 「邊情」, 「舊例」, 「恩恤」

21) 『心齋集 1』, 「增補耽羅誌序」.

역시 모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건치연혁’ 역시 ‘正宗 2년’까지로 이 역시 『이원조_탐라지초본』과 일치한다.

『이원조_탐라지초본』과 차이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장인식_탐라지』에는 정의현과 대정현 자료가 없다는 것, 둘째, 장인식의 글이 추가되었다는 것, 셋째, ‘제주관 풍안’ 부분이 장인식 때까지 연장된 것이다. 정의현과 대정현의 자료가 없고, 장인식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이원조_탐라지초본』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장인식_탐라지』는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보충하여 완성한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원조_탐라지초본』에서 수정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우선 첨지형태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씨와 관련하여 삭제 표시 부분은 된 모두 삭제되었다. 삭제된 부분 중에 黃祐獻의 「運籌堂記」은 다시 수록되었다. 이외에 金英業(1784-1835)의 「橘林堂改建記」가 있는데, 이는 『장인식_탐라지』에서만 확인된다. 김영업은 제주출신으로 제주판관을 지낸 인물이다. 조선 전기의 인물로 高得宗 「弘化閣記」가 실린 적은 있지만, 조선후기 제주인물로는 처음 확인된다. 「水戰所」의 항목은 ‘今廢’라는 주석이 있다. 『장인식_탐라지』는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보충하며 완성한 형태로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보다 완성된 형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⑤ 『작자미상_탐라지』

이 책은 탐라문화연구총서(5)에 『장인식_탐라지』와 함께 실려있다. 해제에는 대정현감을 지낸 南萬里의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대정현감 선생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탐라지』는 대정현감이 만들 수 있는 책은 아니었다. 남만리는 1902년에 부임했는데, 그 즈음에 제주목사를 지냈던 인물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²²⁾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2) 이에 대해 필자는 洪鍾宇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902년 제주목에 부임한 관리는 ‘郡守 金昌洙-牧使兼判事 尹錫仁-郡守 宋錫珍’이 있고, 1903년에는 牧事兼判事 洪鍾宇가 부임하였다. 1902년 부임한 인물들은 재임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고, 홍종우는 2년 동안 제주도를 다스렸다. 홍종우인 경우 문집은 확인되지 않지만, 약간의 글이 산

지역	『작자미상_탐라지』의 구성
濟州	官員-邑名-姓氏-[金緻「漢拏山記」일부] 이하없음. 奇聞-異見-邊情(異船漂流)-舊例-恩恤(賙賑蠲蕩恩典)
旌義縣	建置沿革-官員-形勝-山川-島嶼各浦附-橋梁-大同-俸廩-徭役-城郭-坊里-戶口-防護所-水戰所-烽燧-宮室-公廡-樓亭-倉庫-糶糴-學校-壇廟-佛宇-將官-軍兵-工匠-奴婢-果園-牧養-貢獻-古蹟-先生案-科宦-人物
大靜縣	建置沿革-官員-姓氏-形勝-山川-田結-大同-俸廩-徭役-城郭-坊里-戶口-道路-防護所-水戰所-烽燧-宮室-公廡-樓亭-倉庫-糶糴-學校-壇廟-佛宇-將官-軍兵-工匠-奴婢-果園-牧養-醫藥-貢獻-古蹟-先生案
기타	瀛州十一景, 李禮延_耽羅八詠

이 책은 제주목에 관련해서는 1장 밖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정의현과 대정현의 기록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정의현과 대정현의 내용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제주목 부분의 「奇聞」 등의 항목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에 기초한 것이다. 기타 사항으로 「瀛州十一景」과 「耽羅八詠」이 있다. 「瀛州十一景」에는 기존 영주십경에서 龍淵夜泛을 추가했는데, 제목에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耽羅八詠」은 李禮延의 5언절구로 제주의 풍속을 읊고 기록한 것이다. 『탐라지』는 제주목에 관한 기록이 핵심이다. 이 책은 제주목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기 전에는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⑥ 『崔永學_耽羅誌』

이 책은 충청도 모덕사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勉庵 崔益鉉과 관련한 서적들이 많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면암 최익현 집안의 것으로 보면 된다. 주지하듯 면암 최익현은 1873년에 제주도에 유배를 왔었고, 조선말기 제주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면암 집안에 소장하고 있다는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발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최영학_탐라지』의 구성
濟州	建置沿革-鎭管-官員-邑名-邑號攷證-姓氏-風俗-形勝-山川-島嶼各浦附-橋梁-土産-田結-大同-俸廩-徭役-城郭-坊里-戶口-道路院站附-防護所-水戰所-烽燧煙臺附-宮室-公廨-樓亭-倉庫-糶糴-學校-壇廟-佛宇-將官-軍兵-工匠-奴婢-果園-牧養-醫藥-貢獻-古蹟-先生錄-科宦-人物
旌義縣	없음
大靜縣	없음

먼저 이 책에는 3개의 인장이 있다. “□□□藏” “緯堂” “崔永學章”이다. 면암 최익현은 4남1녀를 키웠는데, 아들은 “永祚, 虎吉, 永學(出), 永福”이다. 최영학은 면암의 형인 崔升鉉에게로 양자를 갔다. 위당은 최영학의 호이다. 최영학의 장남 崔勉植도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이 책은 “乾·坤”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이다. 중간에 필체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 2명이 나누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인용하는 주요문헌은 『舊誌』와 『續誌』이다. 이 책의 「建治沿革」에서는 『舊誌』에 대해서 ‘高弘進 『舊誌』’라고 표현하고, 『續誌』에는 ‘辛丑 牧使 李源祚 『續誌』’라고 표현하였다. 즉 『舊誌』는 『이원진_탐라지』이고, 『續誌』는 『이원조_탐라지초본』인 셈이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보자면 「건치연혁」은 정종 2년까지 정리되었는데, 이는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따랐다. 「읍명고증」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 「건치연혁」, 「성씨」, 「풍속」등에서는 『舊誌』와 『續誌』의 내용으로 첨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외의 대부분의 항목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따랐다. 「도서」, 「대동」, 「방리」등의 항목에는 “『속지』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는 주석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목할 내용이 있다. 바로 『장인식_탐라지』의 흔적이다. 『최영학_탐라지』에는 張寅植의 작품이 다수 소개되어 있고, 관풍안도 동일하다. 이는 편자가 『이원진_탐라지』, 『이원조_탐라지초본』, 『장인식_탐라지』의 내용을 모두 섭렵하고 정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燕巖集』의 李邦翼 표해록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연암집』의 기록이 수록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이 책은 우선 면암 집안의 소장본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이원진_탐라지』와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하나로 종합하여 정리하려고 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다. 이를 통해 『이원조_탐라지초본』이 조선후기 대표적인 제주지리지로 공인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원조_탐라지초본』의 핵심인 「奇聞」, 「邊情」, 「舊例」, 「恩恤」는 없다는 것과 정의현과 대정현의 기록의 부재는 아쉬울 수 밖에 없다.

⑦ 『耽羅事實』

『耽羅事實』은 현재 규장각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이다. 표지제목은 『耽羅事實』인데, 실제 내용은 『탐라지』이다. 이 책은 제주, 정의, 대정의 모든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과 동일한 필사본으로 고려대학교에 전해지는데, 여기에는 『耽羅誌』로 되어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耽羅事實』의 구성
濟州	建置沿革-鎭管-官員-邑名-新增(邑號攷證)-姓氏-風俗-形勝-山川-泉井池附-島嶼各浦附-橋梁-土產-田結-大同-俸廩-徭役-城郭-坊里-戶口-道路院站附-防護所-水戰所-烽燧煙臺附-宮室-公廡-樓亭-倉庫-糶糴-學校-壇廟-佛宇-將官-軍兵-工匠-奴婢-果園-牧養-醫藥-貢獻-古蹟-先生錄-科宦-孝子-孝婦-烈女-忠婢-瑣說-題詠-奇聞-異見-邊情(異船漂流)-舊例-恩恤(賙賑錫蕩恩典)
旌義縣	建置沿革-官員-姓氏-風俗-土產-形勝-山川-島嶼各浦附-橋梁-田結-大同-俸廩-徭役-城郭-坊里-戶口-防護所-水戰所-烽燧-宮室-公廡-樓亭-倉庫-糶糴-學校-壇廟-佛宇-將官-軍兵-工匠-奴婢-果園-牧養-貢獻-古蹟-先生案-科宦-孝子-孝婦-烈女-義士
大靜縣	建置沿革-官員-形勝-山川-島嶼各浦附-橋梁-田結-大同-俸廩-徭役-城郭-坊里-戶口-道路-防護所-水戰所-烽燧-宮室-公廡-樓亭-倉庫-糶糴-學校-壇廟-佛宇-將官-軍兵-工匠-奴婢-果園-牧養-醫藥-貢獻-古蹟-先生案-科宦-烈女-島擾

먼저 이 책의 「건치연혁」에는 “융희3년 기유년에 경찰서를 설치했다”는 기록으로 마무리된다. 융희3년 기유년은 1909년이다. 그렇다면 이 책은 조선시대에 정리한 마지막 제주의 기록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책의 선생안에는 제주군수 尹元求, 제주관관 洪鍾律까지 기록되어 있다. 1909년에는 제주군수 윤원구가 재임 중이었다. 다

음 제주군수는 徐丙業인데, 조선이 일본에 병탄된 1910년 10월에는 부임하였다. 서병업 군수 때에는 정의·대정 양군이 폐지되고 다시 합쳐 제주군이 되었다. 이 책에서 제주군수 윤원구, 정의·대정의 기록까지 있는 것을 보면, 윤원구가 중심이 되어 정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형식과 항목은 『이원조_탐라지초본』와 『장인식_탐라지』를 따르고 있다. 이 책에는 ‘泉井’의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장인식_탐라지』의 기록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 책에도 『續誌』가 나오는데, 역시 『이원조_탐라지초본』을 말한다.

이 책에서 추가된 부분은 ‘新增’으로 기록하였고, 표시없이 그냥 추가된 경우도 있다. 「풍속」의 항목에서 ‘女多男少’의 조목은 남자를 여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丁을 빼먹는다는 추가사항이 눈에 띈다. 이는 이 책에서만 보이는 관점이다. 이 밖에 楸子島, 斜鼠島에 대해 행정변화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였다. 「土産」에서는 濱珠, 玳瑁, 全鰓과 같은 해산물이 더해졌고, 「工匠」의 항목에도 鮑作이 추가되었다. 「古蹟」에서는 李基璠 舊居가 추가되었다. 「學校」에서는 啓聖祠가 추가되었다.

항목에는 당시 폐해진 부분들도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럴 경우는 항목의 주석으로 ‘今廢’라고 했다. 그런데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수정하면서 더한 것으로 보인다. ‘今廢’의 항목은 ‘大同, 俸廩, 徭役, 烽燧, 糶糴, 將官, 軍兵, 工匠, 奴婢, 醫藥’이다.

항목으로 추가된 것으로는 「瑣說」과 「島擾」가 있다. 「瑣說」은 다시 ‘三奇, 四絶, 五虎’로 세분되어 있는데, 제주의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三奇는 세 가지 기이한 일이란 의미로 ‘慧日, 萬德, 馬盧正’이고, 四絶은 ‘高弘進, 秦國泰, 梁有成, 文榮後’이며, 五虎는 ‘梁廷勳, 夫道一, 金用雨, 愼性欽, 李最榮’을 지칭한다. 「島擾」에서는 哲宗 壬戌擾(姜悌儉의 난), 當宁 庚寅擾(金智의 난), 建陽 丙申擾(宋啓弘, 姜瑜奭의 난), 光武 戊戌擾(房星七의 난), 辛丑擾(李在守의 난)을 기록하였다.

이 책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조의 마지막 『탐라지』이다. 『탐라지』의 전통이 조선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瑣說」과 「島擾」의 항목은 이 책에서만 확인된다. 셋째, ‘今廢’의 항목은 없어졌음에도 기록하였다. 『장인식_탐라지』에도 ‘今廢’는 있는데, 대체로 방어시설에 국한된다. 『탐라사실

』에서의 ‘今廢’는 갑오경장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사라진 사항들이다. 그렇다고 신증의 항목에서 새로운 행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것도 아니다. 이는 변화한 사항들에 대해 제대로 추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제강점기 이후의 제주 지리지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 이후로 제주에 관한 기록은 매우 드물다. 먼저 일제강점기 이후 확인되는 제주지리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이후의 제주지리지>

	작성연대	명칭	형태	소장처	비고
1	소화4년(1929)	『生活狀態調查』	인쇄본	국립중앙도서관	朝鮮總督府
2	소화5년(1930)	『濟州島便覽』	인쇄본	국립중앙도서관	[양산 고성주 서문
3	소화8년(1933)	『濟州島 實記』 = 『金斗奉_耽羅誌』	인쇄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4	소화14년(1939)	『濟州島勢要覽』	인쇄본	국립중앙도서관	濟州島廳
5		『金鍾鉉_耽羅誌』			담수계_증보탐라지 서
6		『金錫翼_耽羅誌』	필사본	국립제주박물관	
7	1953년	『淡水契_增補耽羅誌』	철필본	제주문화원 발간	제주문화원 역
8	1934년	『新興里誌』	인쇄본	제주문화원 발간	里誌
9	1950년 이후	『高炳五_大靜郡誌』	필사본	대정역사문화연구회발간	郡誌

위의 표에 있는 지리지 중에서 『生活狀態調查』와 『濟州島勢要覽』은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조선총독부와 제주도청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주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주지리지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분고에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金鍾鉉_耽羅誌』는 심재 김석익이 지은 「增補耽羅誌序」에서 그 이름이 보이며,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濟州島便覽』

『濟州島便覽』은 高禎鍾이 작성한 책이다. 高禎鍾에 대해서는 자세한 생평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주도 제주면 일도리 1441번지에 살았다는 기

록이 있을 뿐이다. 먼저 이 책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濟州島便覽』의 구성
濟州島概觀-位置及地勢-面積-氣候-戶口-職業別戶口統計-濟州의 行政-教育機關-宗教-言論機關-社會團體-衛生機關-濟州의 交通-濟州의 通信-濟州의 金融機關-濟州의 農業-濟州의 商業-濟州의 工業-濟州의 漁業-濟州의 畜産-官廳及經濟團體-市場-名勝古蹟-史蹟-商工業一覽-人事紹介

책의 구성은 ‘제주-정의-대정’의 구조를 벗어나 주제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형식에 있어서는 예전의 『탐라지』를 완전히 탈피한 것이다. 하지만 ‘名勝古蹟’ ‘史蹟’ 등의 항목은 『탐라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학작품 등의 소개는 없고, 신문물에 대한 기록이 전면에서 등장하고 있다. 판매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책을 만든 의도는 序과 卷頭辭에 잘 표현되어 있다.

蓋觀東西하고 察古今에 有國則必有史하고 有邑則必有誌하느니 然則我濟州는 以南鮮一大寶庫로 二十萬의 人口를 有하고 數千年의 歷史를 存한 九韓의 一人 耽羅國이다.

濟州는 우리의 鄉土이다. 過去에 우리 祖先이 이곳에서 生하였으며 長하였으며 住하였으며 葬하였고 現在 우리가 生하고 長하고 住할 뿐만 아니라 永遠未來의 子與孫의 永住地이다. …(중략)… 그것은 제주의 외관을 아는 것이니, 외관만으로 결코 제주를 알지 못할 것이다. 참 제주를 알자면 적어도 내면으로 드러가서 제주의 역사는 엿더하며 제주의 지리는 엿더하며 제주의 문화는 엿더하며 제주의 경제는 엿더하며 제주의 산업은 엿더하며 …(후략)”

첫 번째 인용문은 고성주가 쓴 서문이다. 고성주는 제주 최초의 근대서점인 瀛洲書館을 운영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저자가 쓴 권두사이다. 이 두 글에서 나타나는 것은 제주도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사람들이 그 속살을 잘 알지는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다. 이 책에서는 제주의 속살을 알기 위해서는 제주의 문화, 경제, 산업 등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이 책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조선시대 『탐라지』에서는 田結, 戶

口, 進上, 貢獻 등을 제외하고는 숫자로 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제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生活狀態調査』에서 먼저 확인되며, 『제주도편람』 이후에 작성된 『濟州島勢要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해방 후 작성된 『담수계_증보탐라지』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이 시대의 경향으로 보인다.

작성주체가 제주도 사람이라는 것도 주목해야한다. 조선시대 『탐라지』는 기본적으로 외부인의 시각으로 제주도를 기록한 책이다. 이 시대는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를 기록하려 하였다.

③ 『濟州島實記』 = 『金斗奉_耽羅誌』

金斗奉은 일제강점기 제주인물이다. 호는 信天이고, 제주시 일도리에 거주하였다. 瀛州吟社의 회원으로 향토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이 책은 필사본과 인쇄본 2종이 확인된다.

필사본으로 된 『김두봉_탐라지』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책의 표지에는 ‘耽羅誌’라고 되어 있다. 서문은 李應鎬가 1932년에 썼고, 1933년 ‘濟州島實蹟硏究社編輯部發行’이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은 인쇄하기 전의 초고본의 형태로 보인다.

『濟州島實記』는 1932년에 인쇄되었다. 이후 4판까지 확인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도서관 등에서 확인된다. 이 두 책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인쇄할 때에는 李應鎬의 서문이 빠져 있는데,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책에는 저작권과 책 가격이 있다. 상업적인 목적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濟州道實記』의 구성
濟州道實記	建治沿革-地理河川-氣象-交通及通信-城內沿革-宗教沿革-教育狀況-農産의 由來와 發展된 種類-勸農하는 春耕風俗-畜産의 發展-森林及造林에 대한 興味-無盡藏의 寶庫 濟州道の 海岸-古來의 遺風-金寧堂外各傳説-風俗的燃燈神-漢拏山記譯-瀛洲十景歌-龍淵夜帆歌-農夫歌-埠頭에서 본 感想-藥水瀑布-漢拏山別曲-鮮詩-釣魚歌-古代人物-孝子-烈女-土擾-附錄-星主王子傳-李朝文治-總論
耽羅誌補遺	綸音-記文-上樑文-漢詩-科宦-先生案

『제주도실기』는 「제주도실기」와 「탐라지보유」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실기」는 국한문 혼용이고, 「탐라지보유」는 한문학 작품을 수록하였다. 이 책의 핵심은 「제주도실기」이다. 「제주도실기」의 내용은 기존 『탐라지』를 계승하는 내용, 변형하여 기록한 것, 저자가 새롭게 수록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建治沿革」, 「地理河川」, 「城內沿革」, 「古代人物」, 「孝子」, 「烈女」, 「土擾」은 조선시대 『탐라지』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다. 「漢拏山記釋」에는 金緻와 崔益鉉의 한라산기를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김치의 기문은 기존 『탐라지』에서 소개된 것이고, 최익현의 작품은 처음 소개된 것이다. 「宗教沿革」, 「教育狀況」, 「農産의 由來와 發展된 種類」, 「埤頭에서 본 感想」 등은 시대상황에 따른 제주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존 『탐라지』를 변형하여 기록한 내용들이다. 「瀛洲十景歌」, 「龍淵夜帆歌」, 「農夫歌」, 「釣魚歌」, 「藥水瀑布」, 「漢拏山別曲」, 「鮮詩」의 항목은 민요와 가요 형태의 작품으로 이 책에서 처음 수록되었다. 「星主王子傳」는 탐라의 역사를 저자가 새롭게 구성하여 기록한 것이며, 신문자료에서도 확인된다.²³⁾ 이 내용들은 모두 국한문혼용으로 되어 있어, 많은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탐라지보유」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綸音」을 제외하고는 기존 탐라지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先生案」 부분은 일본인 島司의 이름도 확인된다.

이 책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라지』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일제시대에도 제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적지 않았다. 셋째, 제주 사람들에 의해 작성된 지리지이다. 넷째, 제주 사람들의 민요와 가요 등을 많이 수록하였다.

⑥ 『김석익-탐라지』

심재 김석익은 구한말 제주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며, 浮海 安秉宅의 제자이다. 이 책은 한문필사본이며, 그의 문집 안에 『탐라지』의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먼저 전체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동아일보 1929, 12, 24~1929, 12, 28. 전설의 제주도, 성주왕자전

구분	『김석익_탐라지』 구성
제주	建治沿革-鎭管-官員-邑號-姓氏-風俗-形勝-山川-泉井 附池-島嶼 附浦口-橋梁-土產-田結-城郭-坊里-防護所-烽燧-宮室-公廨-樓亭-耽羅觀風案 附實興錄
정의	없음
대정	없음

이 책은 제주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의와 대정은 없다. 기존의 『탐라지』를 요약한 형태이지만, 중간에 자신의 느낌을 정확하게 피력하였다. 「風俗」의 항목에는 ‘어리석지만 검소하고 예의와 겸양이 있다.’라는 조목과 주석이 있는데, 이는 『이원진_탐라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어 김석익은 “살피건대, 土俗에서 관인들을 경외하는 것은 일이 있으면 뇌물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상례가 되어 스스로 어긋난 법과 염치에 어긋나는 벌에 빠지는 줄도 모른다. 대개 비겁한 풍속은 있지만, 예의있고 겸양하는 풍조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²⁴⁾라고 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밖에 김석익은 시문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시문을 함께 기록하여 보충하고 있다.

김석익은 『탐라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 김석익이 소장했던 『이원진_탐라지』는 현재 제주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에 말미에 김석익은 『이원진_탐라지』에 대해 “실로 남쪽지방에서 처음 있는 문헌이었고, 世敎에 관련된 것 역시 크다. 하지만 이 책은 사이사이에 『興誌』를 근거로 하였지만, 모두 수집하지 못하여 실상과 어긋나고 잘못된 탄식이 없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남겨놓았다.”²⁵⁾ 『이원진_탐라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김석익_탐라지』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사람의 관점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이다. 둘째, 국한문혼용의 시대였지만, 전통 한문을 고집하고 있다. 즉 전통의 가치

24) 『김석익_탐라지』, 案土俗敬畏官人, 有事則用賄賂, 以冀僥倖爲常禮, 而不知其自陷於乖法傷廉之誅, 蓋鄙劫之風, 則有之, 而禮讓之風, 吾不知也.

25) 『국립제주박물관_탐라지』, “粵在孝宗癸巳, 耽羅志成, 卽牧使李公元鎭所編也. 李公以此方文獻無徵, 爲之追釋故事, 修述邑誌, 令州人高弘進監校鉅梓, 實南方創有之文籍, 而抑有關於世敎者, 亦大矣. 然其爲書也, 間以興誌爲據, 而蒐採未盡, 不無闕誤爽實之嘆. 蓋當時載籍未備, 有非一二人聞見精力之所及, 則固不可以一疵之瑕, 而拋棄全璧也, 明矣. 此爲中世印本, 而板久字剝, 不可讀者, 過半, 爲之可慨也. 余於四十年前, 得見一本, 紙毛色煤, 而印跡明皙, 一字不舛. 且卷末有申纘跋文, 乃知最初印本也, 今不知落在何邊. 己丑冬心齋迂人, 金錫翼, 書於琅嬛室. 心齋.”

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기존 『탐라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넷째, 『담수계_증보탐라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⑦ 『담수계_증보탐라지』

이 책은 1953년에 완성된 책이다. 淡水契는 金汶熙, 金範竣, 頭山 白庸錫, 水光 金昌禧등으로 구성된 당시 제주 지식인이었다. 기존의 탐라지가 개인 저작에 가까웠다면, 이 책은 일종의 집단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먼저 책의 전체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담수계_증보탐라지 구성
地理	山川-泉池-沙藪-道路-島嶼-名所古跡 [名勝-古跡-官衙--官衙二-樓亭-倉庫-城郭-烽燧-祠廟-學校-寺刹-果園-柑橘-牧場]
沿革	通史-附 奇聞傳說-附 題詠-附 舊例
氣象	
風俗	
區劃	
官公署	
交通	陸上交通-海上交通
通信	
教育	
宗教	佛敎-天主教-예수敎-水雲敎
産業	農業-畜産業-林業-商業-鑛工業-水産業
言論機關	
社會團體	
産業機關	
金融機關	
人物	科宦-進士-文學-才獸-筆苑-孝子-義士-孝婦-烈女-節婦-義女-忠婢-醫術-天文-地理-富豪-滑稽-僧侶-其他
觀風案	

이 책의 권두사에서는 『이원진_탐라지』, 『이원조_탐라지초본』, 『김석익_탐라기년』 등의 저술을 이야기하면서 ‘탐라 역사를 보는 일반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또는 넓은 범위에 걸쳐 좀 더 자세히 하자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하였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小岡 金汶熙의 ‘考古證今’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 역시 이 책의 취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김석익의 간곡한 지도와 격려’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 책은 활자 인쇄도 못했고, 칠필로 油紙를 굽어서 제작하였다.

이 책의 기본체제는 『탐라지』를 기초로 하면서도 일제시대 지리지의 특징을 모두 담고자 하였다. 분량으로 봤을 때는 ‘名所古跡’ 조가 주목되는데, 전체 500면 가운데 200여 면을 차지한다. 기존의 『탐라지』를 반영한 것이고, 김석익의 간곡한 지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氣象, 交通, 通信, 宗教, 産業, 言論機關, 社會團體, 産業機關, 金融機關’ 등의 조목은 모두 통계자료가 실려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통계자료들이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觀風案에 日本 島司의 이름은 없다.

이 책은 분량 상으로 가장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제주 지리지이다. 해방 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전해지던 『탐라지』와 일제강점기의 변화사항을 모두 정리하고 있다. 이는 해방 후에도 제주지리지는 『탐라지』라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사람들의 중심이 되어 제주를 재정리하고자 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관저에 있어 내부시각으로 제주를 다시 읽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4. 제주지리지 『탐라지』의 의미

『이원진_탐라지』는 고려 때부터 쌓인 제주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찬 제주지리지이다. 이 책은 이후 제주지리지의 전형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후 많은 『탐라지』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원진_탐라지』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형상_남환박물』은 『이원진_탐라지』와는 많은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지리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탐라지』라고 하기는 힘들다. 형식도 파격에 가깝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風俗, 濟州儀禮에 관련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자신의 재임기간에 있었던 공적을 의식하면서 적었기 때문이다.

『윤시동_탐라지』인 경우는 『이원진_탐라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 책은 『이

원진_탐라지』를 기초로 ‘增補’하는 형태였다. 특히 변방에 관련한 「九鎮」, 「古今事蹟」, 「漂流異國問情」과 조정의 혜택에 관한 「列朝特典御使詢瘼」은 자세히 적었다. 이는 모두 『이원진_탐라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이원진_탐라지』의 중간본이 나온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원진_탐라지』의 내용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실제로 「奇聞」, 「邊情」, 「舊例」, 「恩恤」의 항목은 매우 신경써서 보충한 사항이었다. 이후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이원진_탐라지』의 대체한다.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바로 『장인식_탐라지』로 계승된다. 이후 『이원조_탐라지』는 『舊誌』,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續誌』의 이름으로 재생산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최영학_탐라지』였다. 『탐라사실』은 조선왕조 마지막을 장식한 제주지리지였다. 이 책은 「瑣說」과 「島擾」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조선시대 『탐라지』는 『이원진_탐라지』에서 시작하여 『이원조_탐라지초본』에서 한 차례 크게 변화하고, 『이원조_탐라지초본』은 이후 제주지리지의 기준으로 자리한다. 각각의 『탐라지』는 많은 출입이 있지만, 모두 시대와 변화에 맞게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다른 지역인 경우 이처럼 많은 지리지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탐라지』가 왜 이렇게 많이 확인되는 것일까? 첫째, 제주를 다스리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인 경우는 다녀간 사람들도 적지 않고, 조언을 구할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분명 달랐다. 게다가 제주의 책임자는 목사이지만, 감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다. 실제로 제주목사는 정3품 衙門이 아니라 종2품 衙門이었다. 둘째, 조선후기 서양세력이 東進으로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당시 제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정보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었다. 이는 『탐라지』에 변방과 표류에 관한 기록이 증가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정운경_탐라문견록』이나 『송정규_해외문견록』에도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대해, 본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본토와는 결이 다른 이질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탐라지』의 저술시각은 기본적으로 외부인의 관점이었다. 수정할 때 지역

지식인들을 참가시켰다고 하지만, 이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이는 대부분이 제주목사의 주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탐라지』와 『제주읍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읍지』는 3종이 확인되고 있다. 1종은 정조 때 작성되었고, 나머지는 고종 대에 만들어졌다. 『제주읍지』의 구성은 『탐라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빈약하기 그지없고, 하나의 보고서와 같다. 이는 대체로 進上和 貢獻을 위한 기록의 느낌이다. 이에 여러 문학작품들은 수록될 수가 없다. 공찬읍지임에도 제주의 속살을 확인하기는 힘들기에, 아쉽지만 『탐라지』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조선이 일제에 병탄된 후에는 공식적으로 『탐라지』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형태의 제주지리지가 출현하였다. 『제주도편람』, 『제주도실기』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주를 재정리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각종조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정의현과 대정현은 사라졌고, ‘제주’라는 지역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이 시기 제주지리지는 상업적인 목적도 있었고, 이는 제주도에 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전통을 지키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김석익_탐라지』가 그렇다.

저술시각에 전환도 주목된다. 이전 『탐라지』가 외부인의 시각으로 기술되었다면, 일제강점기에는 제주사람들이 제주를 주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제주지식인들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후기부터 과거합격자들이 다수 나오기 시작했고, 구한말에는 제주사람들이 제주관리로 부임하기도 한다. 본토로 진출하여 공부하는 사람들도 출현하기 시작한다. 둘째, 구한말 출륙금지령이 유야무야되면서 지리적 인식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 영역이 본토는 물론 일본까지도 확장된다. 많은 제주 사람들이 제주바다를 건너 생활하였고, 이런 활동이 지리적 인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제반사항으로 제주사람들이 ‘제주’라는 공간을 주체적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성과를 종합한 『담수계_증보탐라지』에서 잘 확인된다.

제주지역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지리지는 마을리지를 들 수 있다. 제일 먼저 확인되는 책은 1934년에 작성된 『新興里誌』이다. 里단위의 지리지는 가장 빠르다. 신

흥리는 북제주군 함덕과 조천 사이에 倭浦라고 불리던 작은 마을이다. 이 책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에는 설촌 유래 등을 기록하였고, 2권에는 마을의 주요사건을 기록하였고, 3권에는 애향심을 강조하는 내용과 기부내역 등을 수록하였다. 4~5권은 현대에 보충된 것이다. 里誌의 서문에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표현되어 있다.²⁶⁾ 제주도 내에서 ‘고향’이라고 할 때는 다른 지역과 달리 里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里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이다. 『신흥리지』 이후 제주에서는 里단위의 마을지리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모두 마을에 대한 주체적 의식의 표현이며, 이는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 하겠다.

해방 후 한문으로 작성된 제주지리지로는 高炳五(1899-1972)의 『大靜郡誌』를 들 수 있다. 고병오는 대정읍 상모리 출신이다. 간재 전우를 찾아가 배웠던 인물로 평생 상투를 지키며 살았다. 이 책은 262면에 9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항목은 『탐라지』와 일제강점기의 제주지리지의 항목과 동일하다. 내용은 대정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여기에 6.25때 전사자와 4.3때 해를 입었던 대정사람들을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이 책 역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시대의 변화사향을 담아내었다.

현대에 들어서서 제주에는 마을마다 마을지가 작성되었고, 마을을 소개하는 여러 책자들도 만들어졌다. 『旌義邑誌』, 『大靜邑誌』, 『濟州道誌』 등도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제주지리지 인식의 기저에는 모두 『탐라지』가 자리하고 있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제주지리지인 『탐라지』를 정리하고 의미를 추적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원진_탐라지』이후 있었던 제주지리지를 정리하고, 그 특징과 변화사향을 확인하였다. 본고를 통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제주지리지를 통시적으로 확인하고 살펴보았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집중적인 규명이 모자랐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자리한다.

26) 『心齋集』, 「新興里誌序」.

앞으로의 관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관련 문헌을 모두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탐라지』의 정보는 개인저작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개인저작물이 『탐라지』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정보의 흐름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탐라지』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이원진_탐라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연구 성과는 없다. 셋째, 제주지리지를 각 항목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 항목별로 변화사항을 통시적으로 확인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까지 풍속조에 대한 통시적 연구로는 마치다 타카시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도 모든 『탐라지』를 살펴본 것은 아니었고, 번역된 일부를 참조한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 제주학에 연구는 세부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부적인 연구와 함께 거시적 안목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원전

- 『九思堂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22.
 『記言』, 한국문집총간 98.
 『鏤板考』,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靜郡誌』, 대정역사문화연구회, 도서출판 가사아히, 2006.
 『白湖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23.
 『生活狀態調査』, 국립중앙도서관.
 『世宗實錄地理志』, 한국고전번역원db.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번역원db.
 『純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db.
 『雲問集』, 維基文庫db.
 『靄山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06.
 『濟州道實記』, 국립중앙도서관
 『濟州邑誌』,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지 지리지편, 전라도편(21), 2009.
 『濟州島勢要覽』, 국립중앙도서관.
 『濟州島便覽』, 국립중앙도서관
 『淸陰先生集』, 한국문집총간 77.
 『冲庵先生集』, 한국문집총간 23.
 『耽羅事實』, 서울대학교 도서관.
 『耽羅誌』,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耽羅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耽羅誌』, 국립중앙도서관.
 『耽羅誌』, 제주국립박물관.
 『耽羅誌』,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耽羅誌』, 충남대학교 도서관.
 『耽羅誌』,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耽羅誌』, 고려대학교 도서관.
 『耽羅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총서(5), 1989.
 『耽羅志略』 국학진흥원.

● 단행본

- 金尙憲, 『南槎錄』, 흥기표역, 제주문화원, 2008.
 金錫翼, 『心齋集1,2』, 김새미오 역, 제주우당도서관, 2018~2019.

- 李元鎭, 『태호이원진의 태호시고』,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실학번역총서11, 2013.
- 李衡祥, 『南宦博物』, 이상규, 오창명 역, 푸른역사, 2009.
- 宋廷奎, 『海外聞見錄』, 김용태·김새미오 역, 휴머니스트, 2015.
- 鄭連經, 『耽羅見聞錄』, 정민 역, 휴머니스트, 2008.
- 李源祚, 『耽羅誌草本』, 김찬흡 외 역, 제주교육박물관, 2007.
- 李元鎭, 『耽羅誌』, 김찬흡 외 역, 푸른역사, 2002.
- 李衡祥, 『南宦博物』, 오창명·이상규 역, 푸른역사, 2009.
- 李增, 『南槎日錄』,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1.
- 『고려사지리지역주』, 박종기 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 『大靜邑誌』, 대읍읍지편찬위원회, 파피루스, 2010.
- 『新興里誌』, 제주문화원, *
- 『의성김씨 제산종택』,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소장 국학자료목록집 62, 2019.
- 『旌義邑誌』, 오문복 편, *
- 『濟州道誌』,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 『제주삼읍교학사료집』, 김지홍·원창애 역, 제주문화원, 2003.
- 『증보탐라지』, 김찬흡외 역, 제주문화원, 2005.
- 『증보탐라지』, 김영길 역, 제주문화원, 2016.
- 『탐라문헌집』, 김계연 외 역,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

• 논문

- 고영섭, 「경기도 이천 北嶽寺(映月庵)의 역사와 인물」, 『韓國佛敎學』 67, 한국불교학회, 2013, 295-332면.
- 김경옥, 「『金陵邑誌』의 편찬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 『역사학연구』 52,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3, 63-86면.
- 김남형, 「驪江世稿」研究 I - 문헌적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 42, 한국학연구원, 2011, 317-338면.
- 김문식, 「16~17세기 寒岡 鄭述의 地理志 편찬」, 『민족문화』 29, 한국고전번역원, 2006, 173-218면.
- 김민현, 「1411년 제주도 간본 『논어』의 서지학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4(제42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33-53면.
- 김새미오, 「병와 이형상의 제주지방 의례정비와 음사철폐에 대한 소고」, 『대동한문학』 63, 대동한문학회, 2020, 103-140면.
- _____, 「『이원진_탐라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12, 대동문화

- 연구소, 2020, 349-378면.
- 김선경, 「조선 정부의 강진 파악」, 『다산과현대』 8,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5, 229-256면.
- 김순희, 「吳澐과 『咸州志』」, 『서지학연구』 29, 한국서지학회, 2004, 475-498면.
- 김영진, 「새 발굴 驪州李氏 先世 문집·저술 고찰(1) —<太湖詩稿>를 중심으로—」, 『은 지논총』 36, 은지학회, 2013, 129~166면.
- 김우리, 「조선후기 제주지역 서적간행의 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23, 역사문화학회, 2020, 157~190면.
- 김효정, 「太湖 李元鎭의 詩世界 考察」, 『한국민족문화』 73,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97~124면.
- 나재록, 「16~17세기 사찬읍지를 통해 보는 지방(향촌)문화」, 『인문사회』 21,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157~170면.
-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가 기록류」, 『고인쇄문화』 8,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 마치다타카시, 「<민속>과 <폐습> 사이: 제주도의 폐습론에 대한 통시적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_____,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 『역사민속학』 5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55~87면.
- 박인호, 「성주 읍지 『경산지』의 파관과 그 정치적 함의」, 『퇴계학과 유교문화』 58,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6, 233-270면.
- _____, 「김천 읍지 『금릉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韓國史學史學報』 30, 한국사학사학회, 2014, 147-177면.
- _____, 「선산 읍지 『일선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역사학연구』 64,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6, 69-106면.
- 박종배, 「읍지(邑誌)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무학(武學)」, 『교육사학연구』 26, 교육사학회, 2016, 91-130면.
- 박주, 「조선시대 경남지역의 효자·효녀·효부 —「경상도읍지」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54,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259-304면.
- _____, 「조선 후기 청도 『鰲山志』의 편찬과 효자 열녀」, 『韓國思想과 文化』 74,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109-130면.
- _____, 「조선 중기 丹城지역의 효자 열녀 : 『丹城誌』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13, 고려사학회, 2002, 421-443면.
- 박종기, 「조선시기 관찬 지리지의 섬 인식과 변화」, 『한국학논총』 48, 한국학연구소, 2017, 125~154면.
- 박철상, 「조선 최고의 병서 제주도판 『황석공소서』의 출현과 의미」, 『문헌과해석』 45, 문헌과해석사, 2008. 265~274면

- _____, 「제주판 『삼국지연의』 간년 고증」, 『포럼 그림과 책 2011 논문집(1)』, 화봉문고, 2011.
- 소순규,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항목의 구성과 특징」, 『동방학지』 16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33-64면.
- 안장리,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新都八景》과 『大明一統志』의 《京師八景》 비교」, 『역사민속학』 36,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161-196면.
- 양보경·김경란, 「일제 식민지 강점기 邑誌의 편찬과 그 특징」, 『應用地理』 22,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2001, 89-115면.
- 양진석,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海東輿地通載』의 추적」, 『규장각』 4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31~71면.
- 우인수, 「1749년 蔚山邑誌 《鶴城誌》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17, 한국사연구회, 2002, 125-153면.
-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2.
- 윤봉택·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 『서지학연구』 34, 한국서지학회, 2006, 251~271면.
- 윤재환, 「新資料 『太湖詩藁』를 통해 본 李元鎮의 詩世界 -資料 소개와 詩世界の 概略을 中心으로-」, 『漢文學報』 18, 우리한문학회, 2008, 391~428면.
- _____, 「少陵家の 使行 經驗과 詩的 形象化 -少陵 李尙毅太湖 李元鎮梅山 李夏鎮을 中心으로-」, 『동양한문학회』 31, 동양한문학회, 2010, 197~232면.
- 이건식, 「黃胤錫의 1775년 全國 地理誌 編纂 凡例의 특징 분석 -1775년 무렵 弘文館의 전국 지리지 편찬 關例의 復元 시도-」, 『지명학』 14, 한국지명학회, 2008, 101~150면.
- 이육, 「임란 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 『승평지』 편찬」, 『대구사학』 124, 대구사학회, 2016, 177-206면.
- 정대영, 「지식인이 바라본 조선후기 관찬지리지 제작-영·정조 연간의 지리지를 중심으로-」, 『규장각』 5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105~127면.
- 최원석, 「咸州誌 편찬 및 구성의 역사지리적 특징」, 『문화역사지리』 2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5, 18~38면.
- 허경진·강혜중, 「『朝鮮寰輿勝覽』의 상업적 출판과 전통적 가치 계승 문제」,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235-260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토 론 문

「제주 신화 「원천강본풀이」에 담긴 삶의 철학」에 대한 토론문

김 일 환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허남춘 선생님의 발표문은 <원천강본풀이>를 제주도 신화는 물론 세계 신화의 맥락에서 증충적으로, 그리고 매우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지 않은 말로 그 의미와 교훈을 말씀해 주셔서, 읽는 동안 매우 흥미로왔습니다.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과 평소 제주 신화 자료에 갖고 있던 궁금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장 2)절 <걱정과 성취>에서는 <덕담창>과 <세민황제본풀이>의 서두, 그리고 ‘심방곡’을 가져와 ‘오늘이와 매일 장상의 관계가 흥겹게 결말지어지는 장면과 흥겨운 덕담창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인용한 <덕담창>(6쪽)에는 ‘장상’이 없고, 그 다음에 보인 <세민황제본풀이>(6쪽)와 <심방곡>(7쪽)이 ‘매일 장상[장삼]’이 보입니다. <덕담창>이나 <심방곡>의 ‘매일’과 ‘장상’은 시간이고, <세민황제본풀이>는 시간과 인명, <원천강본풀이>는 인명입니다. <원천강본풀이>와 해당 노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세민황제본풀이>를 경유해야 합니다. 발표 대상인 <원천강본풀이>는 박봉춘본이고, 인용한 <세민황제본풀이>는 조술생본입니다. 박봉춘본 <세민황제본풀이>에는 ‘이승의 매일장상’이 나올 뿐, ‘오늘 오늘 오늘이라~’하는 노래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술생본의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주 무가라는 큰 범주에서 ‘관계성’을 찾은 작업 이전에 ‘박봉춘본’에서 우선적으로 ‘매일 장상’의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박봉춘본 <세민황제본풀이>의 ‘매일 장상’은 ‘별층당 놀러앉아 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궁리하고’ 있던(5쪽) 매일과 장상이 하나(혹은 부부²⁷)가 되어 ‘내면의 감옥’에서 나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心方曲’과의 연결에서도 작은 의문이 듭니다. 강경호의 논의를 가져와 ‘오느리’ 시조에 심방곡이라는 명칭이 부기된 것은 이 노래가 무가계 노래에서 전승된 사정을 반영한다(7쪽)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강경호의 논문에서도 ‘심방곡’이라는 용어가 제주도에서 무당을 가리키는 용어인 ‘심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느리 노래’(今日今日之曲)는 자암 김구(金絀, 1488~1534)가 새로 지어 중종에게 바친 노래로 소개되는 것을 비롯하여²⁷⁾, 조선 시대 사대부사회에서 기원과 축원의 노래로 널리 불렸습니다. 제주도의 여러 무가에서 ‘오느리 노래’가 불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편적인 축원의 노래가 무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2.

2장 3)절에서 오늘이가 원천강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움을 받았던 상대에게 다시 은혜를 돌려주었음을 말하며, ‘도움과 나눔의 서사’가 이루어지고, 이타적 전환과 상생 원리가 전개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원천강본풀이>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일부, 즉 광포설화인 <구복여행>과 비슷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신화’나 ‘무속’의 자리에 ‘민담’을 놓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이는 연꽃이라는 ‘식물’을 만났고, ‘석승이’는 자라지 않는 나무의 ‘주인’을 만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꽃이 만발한 것만큼이나 나무도 자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석승이가 황금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가 된 것처럼 오늘이도 연꽃을 받음으로써 ‘선녀’가 되었습니다. <구복여행>이라는 보편적 이야기의 교훈을 <원천강본풀이>, 혹은 신화의 교훈으로만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울러 다른 일반신본풀이들은 지속적으로 연행되고 채록되는데, 왜 ‘자비와 공감

27) 채록자들은 ‘매일은 여자의 이름, 장상은 남자의 이름으로 부부이다’라고 적었습니다.

28) 김구의 문집인 『자암집』은 1659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의 정신’, ‘위대한 인간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원천강본풀이>는 잊혀지고 있을까요?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이야기되고, 교과서에서도 실렸지만, 이는 모두 제주도 밖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3.

원천강은 봄·여름·가을·겨울이 함께 있는 신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인용문을 다시 살펴보면, “만리장성 둘러싸흔 곳에 / 곳곳마다 문을 열어 보았다 / 보니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다 있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천강에 사계절이 모여 있기는 하나 모두 문에 의해 구획되어 있습니다. 장편애니메이션 <주토피아(Zootopia, 2016)>에서 주토피아가 사바나(열대우림) 구역, 툰드라 타운, 사막 지형, 다운타운으로 구획되어 있는 것처럼. ‘사계절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곳곳마다 문을 열어본 것’(10쪽)이 아니라 ‘곳곳마다’ 문을 열고 봄으로써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²⁹⁾ 오늘이가 눈으로 확인한 세상을 발표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고, 오늘이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이가 ‘사계절이 하나인 깨달음’을 알았으므로 굳이 원천강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이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던 것은 아버지가 ‘구경이나 하라’³⁰⁾고 했기 때문입니다. ‘문직이’가 때문에 ‘부모국’인 원천강도 들어갈 수 없었던 오늘이의 처지를 생각하면, 부친 덕분에 문을 열어보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오늘이의 ‘모든 부탁’의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도 ‘부모’였습니다. 오늘이는 그 해결책을 당사자들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이 부모에게 나온 것이지요. 아울러 ‘너도 그 야광주들과 련화를 갖으면 신녀가 되리라’는 부모의 예언처럼 오늘이는 신녀가 됩니다. “부모를 떠나 혼자 길을 가는 것은 부모에게 벗어나기’의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이가 자신의 의지대로 한 행위는 ‘백씨

29) 각주 30)에 있는 신화책에서 부연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지요.

30) 아키바·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상』, 대관옥호서점, 1938, 477쪽.

부인을 만나서 야광주 하나를 선사해야 감사의 뜻을 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들고 있는 야광주가 하나가 된 후, 오늘이는 '옥황의 신녀로 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의 부모가 옥황상제의 명에 의해 원천강을 지키게 된 것처럼, 오늘이 역시 부모의 지도(혹은 인도)에 따라 '옥황의 신녀'가 된 것은 아닐까요?

4.

발표문에는 없지만 <원천강본풀이> 자료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이가 원천강에 이르러 문직이에게 막혀 우는 대목에 '오늘이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리 말하며 今日は夢の如く現の如くかく語りつい'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일본어 번역을 보면, 우리말로는 '꿈인지 생시인지'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의식적 무의식적'이라는 비일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박봉춘이 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키바는 서언에서 '구전자 자신의 발음과 어구를 가능한 한 보존시키고 지방적인 와음(訛音)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신가' 서두에서 '그 방언이 매우 난해하지만, 그 본문은 가능한 한 원음을 살리려고 하였다'고 채록/전사 작업의 어려움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0년대 채록본이 60년대 진성기 선생의 채록본보다 더 쉽게 읽힙니다. 채록에 참여한 조선인 제자들의 개입이 있던 것은 아닐까요?

「제주 민요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조 현 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0. 식민지 시기부터 이뤄진 제주 민요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면서 그 안에서 ‘제주민요의 문화사적 가치’를 다양한 주제어로 정리한 논문이다. 그간 서사문학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토론자로서는 발표자로 인해 제주 민요를 공부하는 좋은 계기를 얻게 되었다. 미리 읽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린다.

1. 연구사에 대한 검토가 1990년대 전반, 그러니까 거의 3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 RISS에서 최근 20년간 제출된 논문을 대강만 검색해 보아도 100편 이상이다. 발표자를 포함하여 양영자, 변성구, 서영숙 등의 연구논문들이 눈에 띈다. 이 시기의 논문을 검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변성구, <제주도 민요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연구22, 2002)

1990년대에는 어느 시기보다도 민요 관련 저서가 많이 발간되고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민요학회의 민요론집이 6호까지 간행되면서 육지부와 제주출신 학자들간의 민요학 관련 학술 정보 교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종합적인 연구에는 아직 방법론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2. 제주 민요의 특성 또는 문화사적 가치를 기술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원시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래 인용된 대목처럼 인용 표시 없이 기술된 부분도 있어 발표자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시각이 제주 민요의 실체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자들의 어떤 선입견이 투사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이 제주를 육지부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래된 것이 보존되어 있는 섬’, ‘육

지부가 잃어버린 것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으로 상정하는 일종의 '제주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의심해 보는 것이다. 의문을 풀어주시기를 바란다.

- 일반적인 토속민요적 성격이 강한 편이나, '노래'라는 민요 양식을 기본으로 **사람과 자연, 신, 동물들과도 소통하는 원시 문화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에니미즘이나 토테미즘, 정령신앙과 같은 원시적 사고가 노래 속에 반영되며,** 노동요에서는 삼라만상에 대해서 혹은 신에 대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해산물을 많이 따달라고 용왕신에 기원하는 사설이 많음, '해녀노래', '자장가', '밭밟는노래' 등에서 강하게 나타남.
- 김영돈은 노동의 에너지를 통한 삶의 고통과 극복을 강조하고, 스스로 절대 까무러치거나 꺼지지 않는 **불굴의 정신인 자강불패(自彊不敗)를 강조함.**
- **조영배는 제주도 민속음악의 마적기능을 강조하며, 신접의 기능, 신비력의 기능, 치병제의 기능, 정화의 기능을 들고 있음.** 특히 '흥생이소리', '망건소리', '팔자노래'에는 정화의 기능이 강하고, 감정 환기의 분위기를 창출하여 심적인 정화를 얻는다고 봄.

3. 발표자는, 김영돈·조영배 등 제주민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제주 민요의 문화사적 가치'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제기하고 있다. 제주 민요가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크게 보아 보편성과 특수성의 차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주 민요의 문화사적 가치로 제시된 항목 대부분은 민요 일반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해도 좋을 것들이다. 해녀들의 노동요, 섬의 특성을 드러내는 민요 정도의 특수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어떤 두드러진 독자성, 나아가 이전의 논의와는 변별되는 견해를 찾기 어려웠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제주 민요의 독자적인 문화사적 가치는 무엇인가?

「18세기 제주문인 정체성의 일단」에 대한 토론문

강 문 종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정환국 교수님의 발표문은 『漂海錄』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장한철의 면모를 중심으로 18세기 제주 지식인의 면모와 정체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타자의 시선을 통해 제주를 이해하는 방향에서 제주인의 독자적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한철 『漂海錄』의 내용에 대하여 토론자의 시선과 많은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유교적 지식인의 전형적인 면모를 제주 지식인의 면모 혹은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3장에서 안남의 상선에서 만난 명나라 유민 임준(林遵)을 대하는 태도나 그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장한철의 세계 인식은 여전히 명나라 중심의 중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표류를 당한 선상의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들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김서일과의 대화 내용과 더불어 마고 신앙과 삼성신화 등에 대한 인식을 보면 김서일과 더불어 장한철 자신은 마치 제주인이 아닌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漂海錄』 대부분의 내용에서 장한철은 18세기 유교적 지식인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漂海錄』의 내용에 근거한 장한철의 면모와 정체성이 제주적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장한철이 표류했던 곳이 어디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토론자 역시 장한철의 『漂海錄』이라는 텍스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조

금 추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오키나와 전공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오키나와 인근에 ‘虎山島’라는 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4쪽에 인용하신 승정원일기 기록에서도 장한철 자신은 안남국에 표류했다고 정조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장한철이 『漂海錄』에 유구국에 표류했다고 적은 후 왕에게는 안남국이라고 답변하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정원일기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장한철이 표류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다소 다른 의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80쪽 첫 번째 인용문에서 김서일의 발화가 악담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앞 뒤 문맥 혹은 분위기상 단순한 농담 수준으로 보이는데……?

둘째, 81쪽 첫 번째 단락에 “김진용과 김만석이 꿈에 나타나……”로 언급하셨는데 원문이 ‘昏倒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셋째, 84쪽 첫 번째 단락에서 ‘南海佛’을 당시 호산도 주변에서 활동하는 해적단의 명칭 즉 고유명사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넷째, 84쪽 두 번째 단락에서 명나라 유민인 임준 등이 승선하였다는 이유로 베트남 상선을 ‘다국적 상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섯째, 84쪽 두 번째 단락에서 장한철이 만난 베트남 상선의 실제 주인을 임준 혹은 명나라 유민으로 추정하셨는데, 토론자는 이 부분에서 베트남 상인이 명나라 유민의 후손을 고용한 형태로 이해하였습니다. 만약 임준 등 명나라 유민의 후손들이 실제 주인이라면 베트남인들이 오히려 고용인의 입장인데 고용인의 요구로 선주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정해 주고 소통이 잘 되었던 장한철 일행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어색해 보입니다.

4. 장한철이 제작했었다고 언급한 ‘南海諸國圖’의 시선이 제주 중심의 지리 인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0~91쪽 인용문 및 관련 원문에 등장하는 대분의 나라와 지방의 명칭들이 이형상이 중심이 되어 제작한 『耽羅巡歷圖』 중에 ‘漢拏壯矚’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제작한 것이며, 유구국을 ‘大·小琉球’로 구분하여 그린 것, 삼성신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고려사에서 인용한 眞一의 거인도 표류 내용 등이 제주 중심의 지리 인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지리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소고」에 대한 토론문

함 영 대 경상대 한문학과

이 논문은 ‘이원진 탐라지 이후의 제주 지리지를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이 논문의 앞서 이원진의 탐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새미오 선생님의 이어지는 논고임을 가늠케 합니다. 10여종이나 되는 제주 지리지에 대한 전문적인 소개와 연구가 없어 이 논고를 준비한다는 발표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지한 접근은 관련 연구분야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하신 내용을 따라가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탐라 - ‘제주’라는 지지와 그 관심사의 변화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지지가 발간되는 사례는 이원진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발로 내지는 필요성의 인지와 학적 관심의 실천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발간의 이유가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들어서면 통치의 편리를 위한 각종 조사의 일환으로 작성되거나 상업적인 필요에 의해 제작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탐라지’에 있어 전통시대와 근대의 확연한 차이점은 있는 것이지요? 여지가 있다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관심사의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지금 시대의 요청에 의해 다시 제주의 지리지를 제작해야 한다면 전래의 다양한 지리지들은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2. 『탐라지』와 『제주읍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것에 따르면 1653년 이원진의 『탐라지』 이후 10여 종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목이 대개 초기에는 ‘탐라지’의 명칭을 사용하여 증보되다가 1909년 이후에는 『제주읍지』의 명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탐라지’ 계열은 이원진의 『탐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제주읍지』 역시 그 형식은 『탐라지』와 유사하다고 하였으므로, 대개 그 형식은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변별적인 차이나 구별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대하여

이 탐라지의 뚜렷한 특징은 소개하신 바와 같이 “「奇聞」, 「邊情」, 「舊例」, 「恩恤」의 4가지 항목”에 대한 저자의 뚜렷한 저술의식으로 보이는데 특히 ‘기문’조에 대한 이원조의 인식, 곧 “이 땅은 본래 신령한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 칭하였으니, 齊諧의 괴담이 다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지적은 참으로 고루한 유자의 식견을 뛰어넘는 탁견으로 생각됩니다. 제주의 독특한 지역색을 잘 수집하여 문헌으로 존안하는 높은 문화론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邊情이나 舊例, 恩恤 등은 이 지지가 단순히 지리지적 성격을 지니는 데서 나아가 하나의 목민 행정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탐라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발표자의 넓은 시각에서의 평가를 더 경청하고 싶습니다.

4. 해당지역의 지지 작성에서 집필자의 문제

이 논문을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의 하나는 지리지의 집필자가 제주인이거나 아닌가 하는 문제인 듯 합니다. 발표자는 그 사실을 『제주도편람』 이래 제주도 사람들의 작성 사실을 강조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사람이 향토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애정을 가지고 작성한다면 더욱 요긴한 지리지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 지리지는 하나의 지역지로서 그 문헌의 가치는 당대의 요청에 응하여 그 서술 내용이 풍부하고 적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그 저자가 제주인이어야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집필자의 수준이지 그 출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발표자의 시각은 좀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진심을 여쭙고 싶습니다.

MEMO

